금주의 법구-〈자경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나에게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현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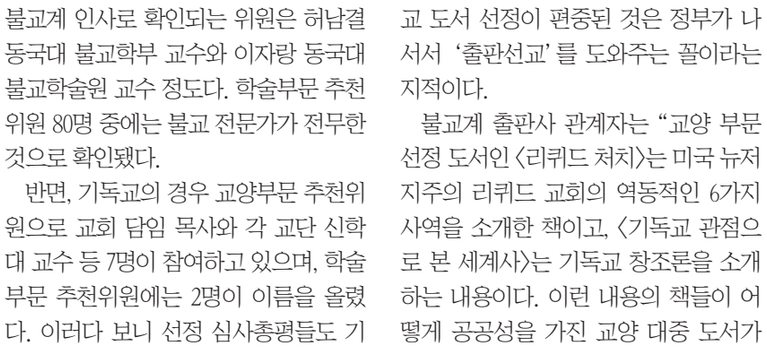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0월 17일)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공공 출판사업도 기독교 일색
'네버엔딩' 尹정부 '불교홀대'

2023년 세종도서 교양 도서 불교 관련 도서 '5종'에 그쳐
종교 37종 중 기독교는 30종
추천위원에 불교학자 2명 뿐
기독교는 7명… 목사도 참여
학술 부문 불교계 위원 '0명'
사실상 국고로 '출판선교' 나서

"기독교 종수 많아, 위원 랜덤"
출판진흥원, 원론적인 해명만
불교출판계 "기독 편중 심각"


2023 세종도서 교양 부문 종교분과 비교

불교
△가람유사 해인사편(1-2)(학교법인 동국대 출판문화원)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민족사) △윤리와 인문학으로 만나는 불교사상(모과나무) △집 떠나 사는 즐거움(불광미디어)(이상 4종)

기독교
△20세기, 세계, 기독교: 지난 100년간 세계기독교를 만든 21명의 증인들(복있는사람) △JPIC, 예언자의 세상 읽기 : 정의, 평화, 창조 보전 바로 알기(생활성서사) △관옥 이현주의 토마복음 읽기(도서출판삼인) △그리스도교 신학의 역사(가톨릭출판사) △기독교 관점으로 본 세계사(1)(부흥과개혁사) △기독교 신학의 새 길, 도의 신학(도서출판 동연) △기원 이론(새물결플러스) △길 위에 길을 내다: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만든 16인(대한기독교서회) △다시 재난, 다시 하나님 나라 : 위기에도 소멸하지 않는 공동체(비아토르) △리퀴드 처치: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적시는 교회(규장) △마렌 보딩 이야기: 우유로 조선 아기 살린 흰 옷 입은 천사(밀알북스) △모던 파시즘: 유대-기독교 세계관을 위협하는 현대 파시즘(드러커마인드) △사랑의 계시(가톨릭출판사) △세계사를 바꾼 선교이야기(드림북)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주식회사 북있는사람) △신과 악마 사이(주식회사 북있는사람) △신은 성서를 쓰지 않았다(주식회사 시공사) △신학, 하느님과 이성(가톨릭출판사)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남긴 의사 주보선: 삶으로 선교를 보여 준 한 의료선교사의 삶과 유산(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대한기독교서회) △여성 안수 투쟁사(뉴스앤조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도서출판CUP) △우리암과 우광복 이야기(밀알북스)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 브루더호프 이야기(신앙과지성사) △종교개혁 신학과 개신교 신앙(도서출판 동연) △죽음을 연습하라: 죽음에 관한 사회학 · 목회학적 분석(도서출판 동연) △지혜 피라미드: 정보 과잉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혜의 토대 쌓기(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씽크스마트)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의 기초 12가지: 주제별 성경연구(누림과 이룸) △한울회 사건의 진실: 국가폭력에 희생된 한 신앙모임(대한기독교서회) (이상 30종)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윤석열 정부의 불교 홀대가 출판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양서 보급을 위해 국고를 들여 선정하는 '세종도서' 종교 부분 도서들이 기독교 도서 일색인 데다,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들도 기독교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은 11월 22일 '2023 세종도서 교양 · 학술 부문 지원사업 추천 결과'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도서 교양 부문의 경우 10개 분과 550종이 선정됐고, 학술 부문은 10개 분과 390종이 선정됐다. 종교 분과는 교양 부문 37종이, 학술 부문 23종이 각각 선정됐다.

본지의 집계에 따르면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는 불교 관련 도서가 5종(종교 4 · 예술1)이었고, 학술 부문은 8종(철학 1 · 종교4 · 기술과학1 · 예술2)이 확인됐다. 반면 교양과 학술 부문 종교 분과의 기독교 편중은 심각한 상태였다. 교양 부문 종교 분과 37종 중 30종이 기독교 도서였고, 학술 부문 종교 분과 23종 중 13종이 기독교 학술서로 채워졌다. 각각 4종만이 선정된 불교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선정되는 불교도서 종수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세종도서 교양 · 학술부문에 선정된 불교도서는 22종이었으며, 2020년에는 21종, 2021년에는 19종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13종으로 줄었고, 올해에도 이 수치를 유지했다.

이 같은 기독교 편중 현상은 각 부문별 추천위원 배정에도 나타난다. 올해 세종도서 교양부문 추천위원 212명 중 불교계 인사로 확인되는 위원은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와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정도다. 학술부문 추천위원 80명 중에는 불교 전문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독교의 경우 교양부문 추천위원으로 교회 담임 목사와 각 교단 신학대 교수 등 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술부문 추천위원에는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러다 보니 선정 심사총평들도 기독교 일색으로 종교 분야 총평 상당 부분이 기독교 도서의 상찬이며, 불교와 다른 종교에 대한 내용은 몇 줄에 불과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측은 원론적인 해명을 내놨다. 진흥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종도서는 부문별 출판 종수에 비례해 선정된다. 추천위원도 분야별 추천 후보자를 받아 3배수로 후보자 풀을 구성해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독교 도서 편중 현상은 '양서를 보급해 국민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양서 출판 의욕을 진작시키겠다'는 세종도서 사업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부문별 출판 종수를 비례해 도서가 선정될 경우 종교출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큰 지분을 가진 기독교 출판계가 독식할 수밖에 없는 맹점을 가진다.

특히 세종도서는 도서 정가 90%의 금액으로 1종당 800만원 내외를 구입해 전국 공공 · 전문 · 병영 도서관 등에 보급되는 공공사업임에도 기독교 도서로 종교 도서 선정이 편중된 것은 정부가 나서서 '출판선교'를 도와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불교계 출판사 관계자는 "교양 부문 선정 도서인 〈리퀴드 처치〉는 미국 뉴저지주의 리퀴드 교회의 역동적인 6가지 사역을 소개한 책이고, 〈기독교 관점으로 본 세계사〉는 기독교 창조론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의 책들이 어떻게 공공성을 가진 교양 대중 도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선정 결과뿐 아니라 심사총평도 고개가 갸웃한 부분이 많다"며 "종교분야뿐 아니라 '역사 · 지리 · 관광 분야'의 경우 불교문화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분야별 심사위원에 불교 전문가를 좀 더 폭넓게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세종도서 선정 사업은 국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사업이다. 부문별 출판 종수에 비례해 선정한다는 운영 방식을 어느 정도 감안해도 37종 중 30종이 기독교 도서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선정된 책들의 내용도 선교사 이야기나 기독교 교리 관련 서적들이 많다. 이는 대중적인 교양 도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출판문화협회, 종교평화위원회와 논의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총무원 및 산하기관 종무원들이 11월 22일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정릉골에서 연탄 배달을 하고 있다.

조계종, 성북구 정릉골 자비로 채우다

조계종 총무원 · 산하기관, 11월 22일 정릉3동 연탄나눔

매년 이맘때쯤이면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서 펼쳐지는 연탄 나눔. 보통 연탄 배달은 장당 750원 정도지만 서울시내에서 950원 밑으로는 배달마저 꺼리는 동네가 있다. 국민대 인근인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이른바 '정릉골'이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정릉골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3만4800장이 배달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1월 22일 오후 정릉3동 일원에서 총무원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무산선원 및 길상사 대중스님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자비실천,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지원' 행사를 개최했다. 정릉골 200여 가구 중 연탄을 사용하는 곳만 176가구에 달해 자비행에 나선 것. 연탄뿐만 아니라 쌀 2000kg도 함께 배달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봉사단은 본격적인 연탄 배달에 앞서 국민대 학군단 앞에 집결했다. 지역구가 성북구인 김영배 국회의원과 이승로 구청장도 힘을 보탰다.

진우 스님은 "사랑과 정성을 담아 연탄을 나누게 돼 이웃이 희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비롭게 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봉사단은 여러 개로 조를 나눠 정릉골 가구에 연탄 배달을 시작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필두로 총무원 부 · 실장 스님들이 줄을 지어 연탄을 옮겼다.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아마 연탄을 잘 모를 것 같은 젊은 종무원이 연탄을 본 적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나도 연탄 본지가 오래됐다"며 멋쩍게 웃었다.

연탄 배달에는 2016년 아름다운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건립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출신 유학생 2명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에 온지 1년 반이 지난 크리스티안 알파(23) 씨는 "성남 봉국사에 지내며 동국대 어학당을 다니고 있다. 연탄을 처음 보는데 (봉사활동이) 재밌다"고 말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릴 시기인 소설(小雪)이지만 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라 봉사활동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봉사단은 길게 줄을 지어 연탄을 나르고, 거리가 먼 곳은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구슬땀을 흘렸다. 4년 만에 다시 시작된 조계종 총무원의 자비행은 한겨울 온기가 가장 늦게 전해지는 달동네를 품었다.

윤호섭 기자

성파 대종사 결제법어…"한 물건 신령스럽네"

동안거 결제 앞두고 법어 내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계묘년 동안거 결제에 앞서 결제법어를 내려 수행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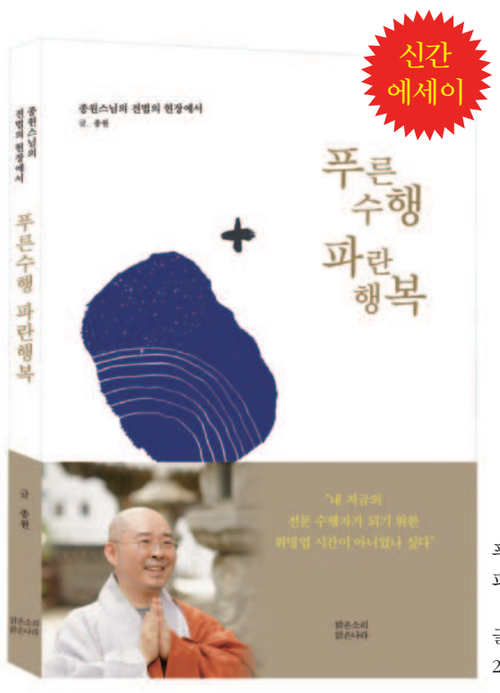
성파 대종사는 11월 23일 발표한 결제법어에서 "본래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더니 오늘 도리어 더욱 밝구나. 대천세계가 모두 다 없어져도 이 물건은 언제나 신령스럽네"라는 게송을 밝히고, 동안거 결제를 앞둔 사부대중에게 "결제와 해제가 있는 미지근한 공부로는 살아서는 시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니 결제했다는 견해를 가지지 말고 목숨을 걸고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성파 대종사는 이어 "알겠는가? 경계 없어지니 사람 없고 새도 드문데 지는 꽃 살포시 푸른 이끼에 떨어진다. 노승이 일없이 소나무와 달을 보다가 때로 오가는 흰 구름을 보고 웃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기2567년 계묘년 동안거 결제일인 11월 27일부터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000여 명의 수좌가 정진에 들어갔다. 〈종정예하 · 총림 방장 법어 5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맑은소리맑은나라 문의 051) 255-0263 | E-mail. puremind-ms@hanmail.net



푸른수행 파란행복
글. 종원
256면 | 20,000원

종원스님의 포교에세이
푸른수행 파란행복

포교의 일선에서 뽑아올린
주옥같은 **신행 이야기**를
전국 서점에서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중단 없는 포교 원력으로 전법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종원스님을 지금 만나게 됩니다

7대 종교, 봉암사서 종교 가치 되새기다

종지협, 이웃종교 성지순례차 봉암사 방문

문경 봉암사=윤호섭 기자

출산율 감소 등 사회현안 공감
봉암사 마애불 순례…화합 다져
진우 스님 "후대 전승에 노력"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한국을 대표하는 7대 종교 수장들이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희양산문 봉암사에서 현대사회 종교 가치와 수행정신을 되새겼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20일 문경 봉암사에서 이웃종교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성지순례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장 이용훈 주교가 불교계에 봉쇄수도원 같은 성격의 수행처가 있는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물어보면서 마련됐다.

조계종립 특별선원이 있는 봉암사는 1947년 성철 스님을 비롯해 청담 · 자운 스님 등 당대 내로라하는 선승들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 는 기치 아래 용맹정진한 수행처로 유명하다. 또한 연중 부처님오신날 하루만 산문을 열어 일반인이 참배하기 힘든 사찰이기도 하다.

성지순례에는 진우 스님을 비롯해 이용훈 주교,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이 각 종교를 대표해 동참했다. 사찰 안내는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이 맡았다.

대표단은 선열당에서 점심공양을 마친 뒤 보림당에서 한국사회와 종교계가 직면한 여러 현안을 공유했다. 이용훈 주교는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언급하면서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0.6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신부뿐만 아니라 스님이 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가톨릭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봉암사 경내를 둘러보는 대표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용훈 주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진우 스님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불교적으로 보면 바다에 돌 하나 던져서 생기는 파도와 같다. 인간이 보는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거나 논할 수는 없다"며 "개개인부터 각자의 의무를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많은 사람들이 유교를 종교보다는 하나의 도덕 가치로만 받아들이는 현상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종수 관장은 "종교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것 자체가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유림에선 그렇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다"며 "유교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종교를 유교라고 밝힐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수 관장의 이 같은 고민에 진우 스님과 이용훈 주교는 유교가 보다 종교적이기 위해선 연속성을 가진 의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표단은 차담 이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을 순례하면서 이웃종교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불교학계 거목인 서경수 교수(1925~1986)에게 1년간 불교를 배웠다고 밝힌 이용훈 주교는 순례 내내 불교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주교는 "봉암사는 조용히 정진하는 수행처이자 나름의 규약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의 배려로 오게 돼 기쁘다"며 "수천년을 견뎌온 자연환경과 깨끗이 정돈된 산사가 인상적이다. 스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보물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불교를 대표하는 청정수행도량에 올 수 있어 영광"이라며 "수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산문에 들어오면서부터 전율을 느꼈다. 많이 보고 배우고 간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이웃종교 수장들의 감사 인사에 "먼 곳까지 흔쾌히 같이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며 "사찰과 자연환경이 앞으로 후대에 제대로 전승돼 우리나라의 큰 보물로 가치가 이어지길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태고 보우 국사 위상 강화 추진"

태고종, 11월 17일 학술대회
종단 정통 · 전통성 확립 위해
'석옥–태고 계맥' 연구 계획도

태고종이 태고 보우(1301~1382) 국사의 위상 연구 · 조명을 통해 종단 정통성과 전통성 확립에 나섰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은 11월 17일 서울 종로 사간동 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고려 말 태고 보우 국사의 사상적 형성과 전개' 를 주제로 '제5차 태고종의 정통성 · 전통성 확립을 위한 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입재식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종조 태고 보우 국사가 한국불교 종조로 선양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특히 임제 선사의 19세 법손인 석옥 청공(1272~1352) 선사와 그 가르침을 전해 받은 태고 보우 국사와의 관계를 심도있게 조명하겠다는 계획도 내왔다.

실제 태고 보우 국사는 1346년에 중국으로 들어가 1347년 석옥 청공에게 인가를 받고 가사를 전해 받아 고려 임제종의 적통을 이었다. 백운 경한(1299~1347) 선사도 1351년 천호암에서 석옥 청공 선사에게 법을 묻고, 인도 선승인 지공 스님(?~1363)에게 사사 후 1352년 귀국했다.

상진 스님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 참석한 중국불교 스님 90명이 양주 청련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석옥 청공 선사가 주석했던 사찰의 주지 스님도 참석해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내년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태고 보우 국사의 법이 한국불교 정통 적자임을 알릴 수 있도록 종조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이는 태고종 종도로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로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나서 태고 보우 국사에 대한 연구와 조명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한국불교의 종조가 태고 보우 선사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석옥 청공-태고 보우의 계맥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태고 보우 국사의 선사상의 연원과 한국불교사적 위상 등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김진무 충남대 교수는 '중국 임제종의 법맥 전승과 태고 보우의 선사상' 을 통해 석옥 청공 선사에게 임제의 법을 계승한 태고 보우 국사의 선사상 면면을 살폈다.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원증국사 태고 보우의 위상' 을 발표한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태고 보우 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구도와 정법계승 △간화선 수행 체계화 △현실적 개혁 통합 정신 △호국적 불교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11월 17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종사 · 명덕 법계 품서식. 종사 · 명덕은 승랍 30년 이상이어야 자격이 주어지는 종단 지도자급 법계다.

'지도자 상징' 종사 · 명덕 법계 품서

법계위원회, 11월 17일 조계사서 품서식 봉행

조계종단의 지도자급을 상징하는 종사 · 명덕 법계의 품서식이 봉행됐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법산)는 11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사 · 명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종사 법계 대상자 비구스님 38명과 명덕 법계 대상자 비구니스님 38명이다. 종사 · 명덕 법계는 승랍 30년이 돼야 자격이 주어지며,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명사 법계 바로 아래에 해당한다.

이날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세속의 온갖 장애를 이겨내고 종문의 스승이 된 것을 경하했다. 성파 대종사는 "출가할 때의 그 서원대로 위로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해 법등을 전하고, 아래로는 대자비심을 발하여 고통 받고 상처받은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원장 범해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종사 · 명덕 법계는 구도의 열정으로 깨달음을 추구해온 치열한 수행정진을 높이 평가하고, 지도자 역량을 갖춘 수행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공적인 자리로 종단의 핵심이자 종도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법계"라고 설명한 뒤 "여러분 모두가 교단의 중추로서 적시에 종단과 종도의 마음을 읽어가며 일념의 정진으로 사부대중에게 법익을 베풀 수 있는 교화의 덕목을 갖춘 종단 발전의 역군이 돼 달라"고 말했다.

품서식에서 품수자를 대표해 법계증은 보관 · 명오 스님이, 가사는 각평 · 청진 스님이 받았다. 스님들은 새로 받은 21조 가사를 이마 위로 들어 올려 정대하고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해 한층 더 정진할 것을 서원했다.

윤호섭 기자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임명

조계종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에 법원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법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종단 주요소임을 맡아왔던 경륜과 경력으로 군종교구의 안정과 화합을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 스님은 "원장스님의 말씀 명심하고 노력하겠다"며 "교구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해 화합하는 것을 급선무로 하고 전법에도 진력하겠다"고 답했다. 법원 스님은 이날 종단 핵심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하며 한국불교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군종특별교구는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제7대 군종특별교구장 취임 및 제55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 를 봉행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부처님 법 전합시다”…청년 전법도량 ‘우뚝’

봉선사, 첫 청년연합법회 봉행
경동대 · 상월청년회 · 광동학원
미래 한국불교 주축들 ‘한자리’
호산 스님 “청년 지원” 약속도

남양주 봉선사=김내영 기자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한국불교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불자들의 당당하고 굳센 외침이 봉선사 청풍루를 가득 메웠다. 어린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다함께 어우러진 이 자리는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야단법석이자 서로의 전법 활동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화합의 장이기도 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는 11월 19일 경내 청풍루에서 ‘봉선사청년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처음 열린 청년연합법회에서는 경동대 불교학생회 창립과 상월청년회 5기 입재, 전법기금 전달 등을 통해 미래세대 전법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법회에는 경동대 불교학생회, 상월청년회, 상월청년합창단, 상월비보이단과 광동중, 광동고, 의정부광동고 학생들이 동참해 미래 한국불교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중앙종회의원),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 스님, 총무원 감사국장 덕운 스님, 기획국장 금오 스님,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법정 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 총무원 호법과장 보타 스님, 상월청년회 지도법사 무공 스님, 봉선사 대학생전법단 전법위원 혜명 스님, 김남명 봉선사 교구신도회장, 이도피안 봉선사 신도회장, 신인섭 경동대 기획부총장,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김순남 신한대 교수 권준희 · 손범준 · 이범욱 교법사 등이 참석했다.



봉선사의 첫 청년연합법회에서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청년불자들이 합장한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동대 불교학생회 ‘창단’

연합법회의 첫 순서로 경기북부지역의 최초 불교학생회인 경동대 불교학생회 창단식이 진행됐다. 경동대 불교학생회는 호산 스님이 봉선사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지도교수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노력한 끝에 만들어졌다. 경동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는 신인섭 기획부총장이 맡으며, 학생 2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불교학생회 창단을 축하하기 위해 학생회 임원진과 지도교수에게는 상월결사 대학생전법단 고문 자승 스님(상월결사 회주) 친필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 액자와 발전기금 600만원이 전달됐다.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은 격려사에서 “청년불자들이 가득한 법회가 열리니 활기차고 기쁘다. 앞으로도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배워갈 수 있는 자리가 더 늘어나길 바란다”며 “미래세대 불자들의 걸림돌 없는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주 경동대 학생회장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불교학생회 성장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박준형 상월청년회장과 조성진 신한대 학생이 축하의 꽃다발을 선사했고, 법회 동참자들은 박수와 환호로 경동대 불교학생회의 활기찬 시작을 응원했다.

상월청년회 5기 입재

상월청년회 5기 입재식도 이어졌다. 상월청년회는 아홉 스님의 상월선원 정진결사 정신을 이어받은 청년회로, 2021년 창립돼 올해 5번째 입재를 맞게 됐다. 상월청년회 지도법사인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은 5기를 이끌어갈 박준형 회장, 이선영 부회장, 이윤수 관리부장, 정은빈 교육부장, 이수연 홍보부장 등 임원진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봉선사는 상월청년회 발전기금으로도 300만원을 전달했다. 전법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경기포교사단 군 10 · 11 · 12팀에 각 50만원의 포교활동 지원금도 수여됐다.

보관 스님은 “불교를 알리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길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박준형 상월청년회장은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전법 원력과 호산 스님의 청년불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상월청년회가 5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매달 연합법회와 봉사활동, 문화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법문을 대신해 대중과 봉선사 염송문을 합송했다. 청년들에게 염송문을 읽는 역할을 부여해, 법회의 주체적인 동참과 자긍심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호산 스님은 끝으로 “광동학원은 올해 안에 자모님들을 주축으로 한 합창단 창단을 준비해주길 바란다. 연합법회 청년들은 한 달 후에 있을 법회 전까지 한글 칠정례를 외워오면 푸짐한 상품과 장학금 등을 수여하겠다”며 “한국불교 미래 이끌 청년불자들의 활발한 전법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통 큰 공약’을 내걸었다.

무엇보다 이날 법회에서는 특별한 전법기금 전달식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상월청년합창단은 그간 모은 공연 수익금 630만원을 광동중고등학교 학생 21명의 장학금으로 회향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김세용 상월청년합창단 부단장은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의 전법 원력에 힘을 보태고자 했다”고 전했다.

향후 봉선사청년연합은 매달 셋째 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갈 전망이다. 다음 달 법회는 봉선사 템플스테이가 예정돼 있다.

“동국대 ‘대학평가 8위’…건학위 덕분”

윤재웅 총장, 간담회서 소회
‘등록금 · 취업 걱정없는’ 강조한
자승스님 원력 · 돈관스님 헌신
내년 3월 중 대규모 모연 계획


소회를 밝히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

“동국대가 3년 연속 톱10 안에 들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 건학위원회가 구성되고, 스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11월 21일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8위를 기록한 것에 소회를 이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1994년 시작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동국대는 2000년대만 해도 ‘인서울 대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순위를 기록했다. 동국대는 2003년에는 30위, 2005년에는 44위였고, 2010년대에는 17~20위권 안팎의 성적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동국대는 3년 연속으로 10위권 안에 들었고, 올해에는 8위를 기록하며 ‘톱10’에 안착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의 소회처럼 이 같은 동국대의 발전에는 2021년 4월 발족한 건학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을 위해 ‘지역 미래 불자 육성 장학’ ‘동국건학장학’이 신설됐다. ‘동국건학장학’은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이며,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지역 사찰이 동국대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이 같은 건학위원회의 장학제도는 인재육성과 신행을 통한 불교 포교를 모두 아우르고 있어 불교계 안팎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처음 시작한 동국대 취업박람회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로, 첫 해에만 삼성전자, 테스라 등 국내외 대기업, 공기업은 물론 유망 스타트업까지 309개 기업이 참여해 화제가 됐다.

“자승 스님께서 화두로 던진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은 학교의 발전 동력이 됐습니다. 또한 이사장과 건학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돈관 스님의 열정과 헌신도 동국 중흥의 요인입니다. 실제 이사장스님은 일주일에 5~6일 출근하며, 학교법인 산하 학교 및 기관들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른스님들의 원력과 헌신이 작금의 결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은 학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내보였다. 내년 3월 중 대규모 기금 모연 행사를 열고,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학위원회의 ‘동국 중흥이 불교 중흥’이라는 원력 아래 학교는 어느 때보다 종단과 결속력을 가지고, 화합하고 있습니다. 총장으로서 할 일은 발전기금을 모연해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죠. 동국 중흥과 불교 중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일 기자

“물러섬 없는 정진”…한마음선원 수계법회

1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371명 수계…불제자로 거듭나
인하대 불교동아리 4명 수계
5200여 명 운집해 함께 ‘발심’

“오늘 수계법회에 동참한 모든 대중들은 업식의 무명 집착에서 벗어나 본래의 성품을 회복하고자 오계를 받아 지니고 정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수계자들은 이제 삼귀의를 행하며 오계를 받아 지니고 청정하고 무한한 본 성품을 의지해 물러섬 없는 정진을 다짐하오니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해 진정한 불제자 나아가겠다는 발원이 이어졌다. 수계를 받은 신도 대중은 이날 불제자로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1월 19일 안양본원에서 제35차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회에서는 대행 선사를 증사로, 이사장 혜수 스님을 계사로 371명이 수계를 받아 불제자로 거듭났으며, 4844명이 연비를 받으며 불자로서 발심을 다시 되새겼다. 또한 인하대 불교동아리(지도법사 혜한) 소속 학생 4명이 수계를 받아 정식 불자가 돼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연비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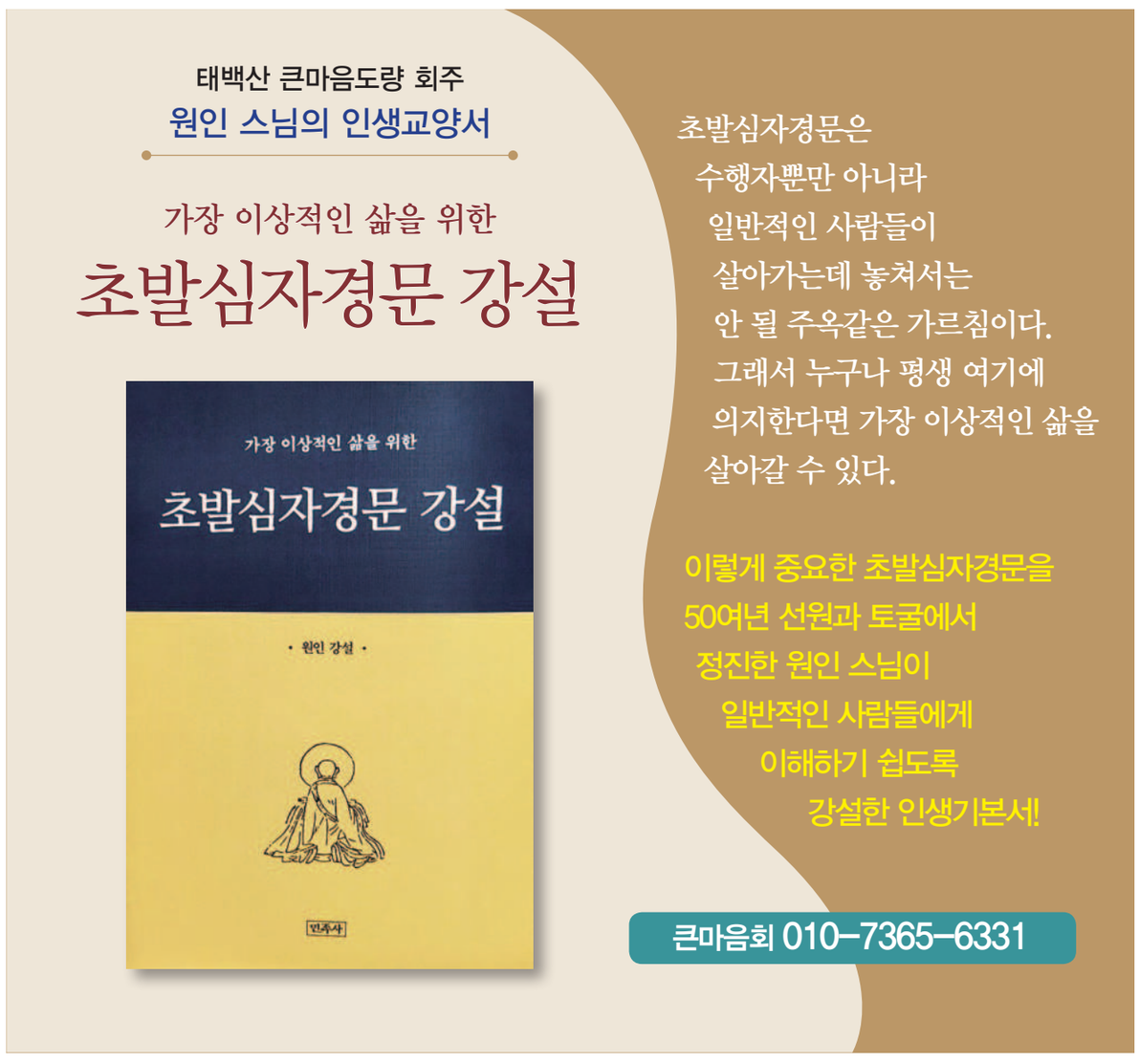
이날 수계자들은 부단한 정진을 통해 진정한 대자유인이 될 것을 발원했다. 수계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저희 후계자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행을 하여 나와 주변을 밝히고 밝은 자비의 빛이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나가겠다”며 “이제 저희 수계자들은 삼세의 부처님과 스승님이 일러주신 한마음의 도리를 마음 깊이 새겨 탐진치의 삼독심을 녹이고 돌고 도는 생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오계를 받아 지니고, 지켜나가는 것은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며 “대행 선사가 말씀하셨듯이 오계를 실천함으로써 좋은 인연으로 남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불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본원과 전국 지원에서 5200여 명이 운집한 법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등 가족단위 동참자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어린 손녀와 함께 법회를 찾은 장경례 씨는 “우리 딸이 사업을 해서 많이 바빠 내가 손녀를 데리고 수계법회에 동참했다”면서 “손녀가 4살인데 매일 ‘부처님은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신심이 있다. 이런 손녀와 함께 수계법회에 참여하게 돼 기쁘고, 부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법회에 참석한 정태권 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힘든 점도 있는데 주인공 관법 수행을 하며 이겨내고 있다. 또한 매년 선원에서 연비를 받으며 불자로서 재발심의 계기를 삼는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양주 청련사 자비행…“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저소득층 100가구에 김치 등 전달
25가구에는 연탄 400장씩, 1만 장
상진 스님 “늘 이웃들과 함께할 것”

양주=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양주 청련사가 11월 21일 저소득층에 김치와 연탄을 전달했다.

연탄을 가득 실은 트럭이 좁은 골목길을 올라 언덕 집에 다다랐다. 시끌벅적한 소리에 집 앞마당으로 나온 이숙자(78) 할머니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들이 반가운지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어르신, 주변에는 언제나 어르신과 함께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할머니는 스님들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연탄을 바라보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스님,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습니다. 요즘엔 연탄을 1000장씩 팔고 가격도 비싸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청련사에서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태고종 천년고찰 양주 청련사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청련사는 11월 21일 장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겨울나기 자비의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청련사 회주)을 비롯해 청련사 주지 직무대행 심곡 스님, 총무 벽산 스님 등 청련사 대중스님들과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이정수 장흥면장 등이 동참했다.

이날 청련사가 장흥면에 전달한 물품은 김치 1200kg(12kg, 100박스), 라면 100박스, 화장지 240롤, 고무장갑 500켤레, 연탄 1만 장 등이다. 김치와 라면, 화장지, 고무장갑은 장흥면사무소가 선정한 지역 내 저소득층 100가구에, 연탄은 꼭 필요한 25가구에 400장씩 전달됐다.

물품은 청련사 대중스님들의 모임인 참나나눔회, 청련사 포교원, 청련사 신도회인 관음회 및 심향합창단, 청련사 매점, 장흥면사무소, 장흥면 새마을부녀회가 십시일반 마련했다. 특히 이들은 전날 청련사에 모여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고 포장하며 자비행의 의미를 더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청련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치, 라면, 연탄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상진 스님이 태고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하고 첫 겨울 자비나눔 행사라 더욱 뜻깊다. 청련사의 이 같은 활동 덕분에 장흥면이 더욱 따뜻하고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도 “상진 스님과 청련사 대중스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돼 장흥 지역주민들이 올겨울을 잘 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식 이후 상진 스님과 30여 명의 대중은 장흥면 부곡리에 위치한 이숙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 연탄을 손수 날랐다. 400장의 연탄은 스님들과 불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졌고, 금세 마당 한켠을 가득 채웠다. 쌓여가는 연탄에 참석대중의 얼굴에는 고단함보다 행복함과 미소가 담겨 있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이웃이 많다. 청련사가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할 뿐”이라며 “항상 용기 잃지 말고 행복한 마음으로 겨울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태고종도 각 지역 종무원에서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늘 함께하는 태고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련사는 매년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노인잔치, 무료급식, 장학사업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동국대 WISE캠 차기 총장에 류완하 교수

동대 이사회, 11월 21일 선출
류 총장 “특성화 학제 개편”

동국대 WISE캠퍼스를 이끌어갈 차기 총장으로 류완하 동국대 WISE캠퍼스 스마트시티융합대학 디자인미술학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는 11월 21일 제352회 이사회를 열고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으로 류완하 교수를 선출했다.

차기 총장으로 선출된 류완하 당선인은 동국대 WISE캠퍼스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를, 계명대 예술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WISE캠퍼스 도서관장, 평생교육원장, 기획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동국대 WISE캠퍼스 문화예술디자인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 당선인은 총장 공약으로 특성화 분야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컬 대학 3.0을 대비해 2차전지, 자동차 부품소재, 스마트 관광 분야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학제를 신설하고, 경주를 기반해 인문, 영상콘텐츠, 웹툰 등을 배우는 문화콘텐츠 학제를 만들 것을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류 당선인은 “글로컬 대학 3.0에서도 요구하듯 앞으로의 교육방향의 근간은 학문 간의 벽을 허무는 융합학제로의 개편이 변화의 주된 과제”라면서 “융합학제의 완성은 지역거점 대학으로서 혁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산학연 협력모델 강화 등을 통해 연간 100~12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 확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불교 종립 대학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으로는 △불교대학의 경쟁력 강화 △일반학과와 융합교과목 개발 △외국인 유학생 불자 양성 △연 1회 이상 불교학 관련 국제 수준의 학회 기획 및



주최 △대학생 전법단 운영 △불교생활사 박물관 건립 △유튜브, 웹툰 등을 활용한 포교 등을 내놨다.

류 당선인은 선출 직후 밝힌 소감을 통해 쇄신을 통해 학교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류 당선인은 “갑자기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어깨가 무겁고, 숙연해진다”며 “동국대학교는 불교 종립학교로서 학교가 무너지면 불교의 한 단면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오늘 이사회의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쇄신하고 정진해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이사회는 이사장 돈관 스님의 이사 임기가 12월 8일 새로 시작됨에 따라 상정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선출의 건’을 통해 만장일치로 현 이사장 돈관 스님을 재선출했다. 중임된 임기는 오는 12월 8일부터 2027년 12월 7일까지 4년이다.

내년 2월 17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성월 스님의 후임으로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진화 스님이, 12월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문 스님의 후임으로 성행 스님(청계사 주지)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원명 · 호산 · 경우 스님은 만장일치로 재선출됐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감사 원명 스님의 후임으로 법성 스님(신륵사 주지)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한편, 이사회 앞서 이사스님들의 학교발전 기금 기부도 이어졌다. 이사 경우 스님은 7000만원을, 호산 · 정문 스님은 5000만원을, 종호 스님은 2500만원을 쾌척했다.

신중일 기자

중앙승가대 네팔 불교대학 MOU

11월 21일, 학술 · 학생 교류 협력



중앙승가대(총장 월우)와 네팔 국립 룸비니 불교대학이 양교간 학술 및 학생교류 협력에 뜻을 모았다.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과 네팔 국립 룸비니 불교대학 수바라나 라바즈라차라야 부총장은 11월 21일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에서 양교의 상호 교류와 우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에 따라 양교는 △양교의 학생 교류 독려 △학술교류 활동 전개 △상호 교육과정 발전 및 교학실천 활동 △합작 연구 촉진 등을 전개한다.

한편 네팔 국립 룸비니 불교대학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 위치한 네팔 유일의 국립불교대학이다. 총리가 총장직을 맡는 중앙정부 직속 기관이며, 약 2000명이 재학 중이다.

김내영 기자

“GO! 전법! 부처님 가르침 행하GO, 전하GO, 누리GO”

조계종 포교원, 11월 22일 송년법회
새로운 슬로건 ‘GO! 전법!’ 공개
선업 스님 “실천으로 전법케어”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22일 송년법회에서 새로운 슬로건 ‘Go! 전법’을 공개하고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선업 스님 포교원장 취임과 함께 출범한 제9대 포교원이 “GO! 전법”을 외치며 전법활동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은 11월 22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제9대 포교원과 함께하는 불기 2567년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송년법회에서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원의 새로운 슬로건 ‘GO! 전법!’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선업 스님은 “제8대 포교원 슬로건인 ‘전법ON’의 연결선상에서 전법의 기치를 내걸고 활동에 더욱 매진하자는 의미가 담겼다”면서 “전법의 등불이 세상을 비춰 모든 존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디테일’을 강조한 스님은 슬로건의 실천적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GO! 전법!’”에는 지금 행하고(GO), 바로 전하고(GO), 함께 누리고(GO)의 의미가 담겼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스님은 불교 중흥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을 염원하기도 했다. 스님은 “새벽마다 전국 모든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태민안 발원 기도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를 염원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모인 것”이라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전법케어’를 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포교원장 선업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포교원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

진우 스님은 “전법은 먼 곳에서가 아닌 나와 가까운 가족, 이웃, 아이들, 청년들에게 먼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라면서 “대승보살 원력으로 부처님법 전하는 인재불사에 함께 정진해달라. 그 전법의 길에 종단도 늘 든든한 도반으로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뛰어난 리더십과 신심, 탁월한 능력으로 포교원을 이끌어 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선업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신도회와 포교단체에도 “포교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하나 돼 부처님 법 널리 알리는 책무에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동참 대중들은 오른손을 들고 “GO! 전법!”을 큰소리로 세 번 외치고 전법의지를 다지면서 송년법회를 마무리했다.

임은호 기자

공불련, “나라와 국민을 부처님 같이”

11월 18일~19일, 창립 23주년 기념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정승윤, 이하 공불련)가 창립 23주년을 기념하며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나라와 국민을 부처님 같이 섬기며 나아갈 것을 서원했다.

공불련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통도사 일원에서 ‘창립 23주년 기념법회 및 대의원 총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공불련은 법회 및 문화공연, 수행정진을 이어갔으며 〈금강경〉 독송과 108배 참배 등 템플스테이도 진행했다. 입재법회에서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공무원은 무엇보다 국가관이 투철해야 한다. 우선 계(戒)를 지키고 마음의 부처를 찾아야 한다”며 이어 “마음의 부처를 찾으면 화합을 할 수 있다. 항상 화합해야 하며 작은 틈도 만들지 말고 나라와 민생을 위해 정진하는 원력으로 공복(公僕)의 역할을 다해주기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통도사에서 무엇보다 각자의 마음을 마주하는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아보는 시간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불련은 통도사 문수법당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사업일정 등 주요사안을 논의 및 승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불교인권위, 33주년…인권상에 여래종

11월 20일, 기념식 및 시상식 개최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가 1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3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살행 실천을 굳게 다짐했다.〈사진〉 기념식과 함께 제29회 불교인권위원상 시상식도 열어 여래종에 상금 300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불교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인권 탄압에 맞서 불국정토 구현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불교인권위의) 민주, 빈민, 노동자, 환경 등 다양한 방면의 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운동이 보편화 ·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기념식에 이어 제29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여래종은 국내 교화시설과 소외계층을 위한 보살행을 시작으로 40여 년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는 해외포교의 일환으로 스리랑카와 미얀마 등에 우물파기, 장학금 · 학용품지원, 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명안 스님은 상금으로 받은 300만원에 금일봉을 더한 금액을 불교인권위원회 활동기금으로 전해 훈훈함을 더했다.

김내영 기자

신흥사, ‘지역 미래불자 기금’에 1천만 원

강원지역 동국대 재학생 10명에 장학금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가 11월 22일 교내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신흥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에 1천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건학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하며, 동국대 재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 이날 53회를 맞았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이번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신청을 위해 강원도 속초, 양양, 인제, 철원 지역의 동국대 학생 총 27명 중 25명이나 신흥사 육성장학에 지원했다.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동국대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8위를 기록하는 등 학교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으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흥사 선덕 득우 스님은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동국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활동해주길 바란다”며 “전액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학업과 활동에 열중하길 바라며, 앞으로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이루어지길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불교문화상품 공모 최우수상 ‘온고지신’

문화사업단, 11월 23일 시상식
원명 스님 “대중 관심 높아져”



한국불교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해 그 우수성을 알려온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제9회 최우수상에 OHHO(오호, 주수완 · 김은진) 팀의 ‘온고지신’이 선정됐다.〈사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문화사업단)은 11월 23일 서울 템플스테이홍보관에서 제9회 불교문화상품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을 비롯한 수상자 16팀에게 상장을 수여했다.〈사진〉 다만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작품이 선정되지 않았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온고지신’은 꽃살문과 단청 모양의 뱃지로, 디자인과 활용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OHHO 팀의 주수완 씨는 “한국 전통을 공부하다 보니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며 “사찰을 다니면서 느꼈던 꽃살문과 단청의 아름다움을 현대인들에게 실용적으로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수상작은 11월 23일부터 한 달간 템플스테이홍보관에 전시된다.

김내영 기자

한 물건 언제나 신령스럽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本來如不動(본래여부동)한데
今日轉還明(금일전환명)이로다
大千俱滅盡(대천구멸진)하야도
此物鎭長靈(차물진장령)이로다

본래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더니 오늘 도리어 더욱 밝구나. 대천세계가 모두 다 없어져도 이 물건은 언제나 신령스럽네.

금일 시회대중은 결제를 해도 결제했다는 견해를 가지지 말고 해제를 해도 해제했다는 견해를 가지지 말라.

티끌 한 점이 눈에 들어가면 헛꽃이 휘날리느니라.

오직 화두일념이 뜨거운 불무더기가 되어 萬魔와 千佛을 모두 태워버릴 때 佛祖의 向上一路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결제와 해제가 있는 미지근한 공부로는 살아서는 시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장부들이여!

올 삼동결제에는 모두가 목숨을 걸고 정진해야 하리니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공부해야 하리라.

이렇게 공부해야 오래지 않아 이루리니, 이렇게 공부하는데 무슨 부처와 중생을 논하겠는가?

대용맹 · 대정진으로 은산철벽을 뚫어야 하리라.

주장자를 내리치면서 이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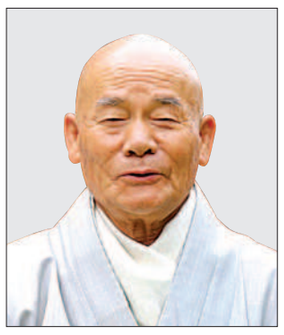
會麼(회마)아
境了人空鳥亦稀(경료인공조역희)한데
落花寂寂委靑苔(낙화적적위청태)로다
老僧無事對松月(노승무사대송월)이라가
卻笑白雲時往來(각소백운시왕래)로다

알겠는가?

경계 없어지니 사람 없고 새도 드문데 지는 꽃 살포시 푸른 이끼에 떨어진다. 노승이 일없이 소나무와 달을 보다가 때로 오가는 흰 구름을 보고 웃는다.

그대는 세상 살리는 주인공이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전쟁이 터져 사람 가슴에 총을 쏘고 있습니다. 아차! 어떻게 할까? 한 방울의 미움이 사람 죽이는 전쟁이 됩니다. 작은 날 개짓이 하늘을 찢는 천둥이 됩니다. 가슴으로 돌아오소서. 지심으로 돌아오소서.

산천은 단풍이 들어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고 출가 납승은 동안거에 들어갑니다. 목숨 같은 화두 몰두 이외에 전쟁 씻을 무슨 방법이 있나? 동안거 결제보다 더 큰 전쟁 씻어낼 기도가 있나? 내 책임입니다. 내 업장입니다. 이 일밖에 없으니 한 생각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상래소수 공덕해 회향삼처 실원만(上來所修 功德海 廻向三處 悉圓滿) 부처님이 닦아놓은 공덕의 바다, 모든 생명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이것이라고 하면 머리에 머리를 덧붙인 격이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목을 자르고 살기를 원하는 식이다. 어떻게 발붙일까? 만 리에 구름이 없어 항상 드러나 있다. 공겁 이전 한 덩어리 달빛, 이 응관(應觀) 이전에 아득한 이 빛 육 손가락이요, 잔소리다. 알았다고 하면 기특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알 수 없다고 하면 허락하리라." -경허스님 말씀-

출렁출렁 출렁이는 이 활기 동천에 뜬 보름달이 새벽하늘 서쪽 고목나무 위에 밝아있다. 세상은 둘러꺼지게 밝아있다. 지축을 흔드는 대종소리 세월을 넘어선 이 법계성 절절이 응하는 이 응관 지심귀명례 이 지심 고구정녕 반야심경의 이 반야 목탁소리 죽비소리 엎어도 잦혀도 아! 한 가닥 부처님의 골수! 구구 팔십일 이 골수여! 경허스님 확철대오, 이뭘까 한 가닥으로 우렁차게, 웅장하게, 찢어지게, 밝게, 이~뭘까?

밝은 달은 어디로 돌아가나? 고요는 세월을 넘어 푸른 잎은 단풍이 들어 낙엽이 지고 있네. 물건마다 머리마다 다 드러나는 이 거울, 신비의 이 거울 산하대지 삼라만상 가지가지 이 반야 알 수 없는 한 덩어리 이 자체 텅텅 비어 자유스러워 넉넉하고 여유스러워 생명 뿌리 알 수 없는 이~뭘까? 철을 넘어 언제나 싱싱한 바다, 살아있는 것의 이 기상 하늘은 끝까지 높아져 실핏줄에 잦아지네. 세상은 화장찰해 터질 듯 촉발하는 봉오리 봉오리 천하강산 이 반야, 이~뭘까?

영혼이 행복해졌는가? 삼계의 큰 스승, 자비스러운 어버이, 사랑의 큰 품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이 물건이요, 이놈이네. 대웅전 대적광전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불하고 찬탄하고 경배합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곳이 어디인가? 모양 앞이요, 느낌 앞이요, 생각 앞이다. 목탁소리에 분별이 다 지워졌네. 도도히 흐르는 웅장한 이 고요, 드러나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응관이든, 반야든, 관세음보살이든 한 덩어리 이뭘까? 이~뭘까?

대지의 복덩어리, 잘 익은 가을 호박 덩실덩실 보시보다 더 큰 소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시는 월등한 내 큰 품입니다.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알게 해줍니다. 보시는 중병을 낫게 합니다. 아래턱이 돌아가는 이 소식이여, 후끈해지네. 주어라! 놓아지는 소식, 돌아가는 소식이다. 주면 열린다. 툭 터져 활발발 해진다. 고요가 드러난다. 무진고요 세상을 안고 있네. 소통에는 중병이 없다. 가까워 가까워져 엄청난 생명자리가 돌아간다. 아닌 것이 붙을 수가 없다. 인색해서 자기 성질에 지면 숨길이 막혀 못난이가 된다. 임명 종시 납월 팔일, 눈 깜짝 사이 마칠 때가 임박한다. 이 한 물건 공들여 공들여라. 항상 한 것이 어디 있나?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나? 천만번 변하고 변해도 바다는 역시 물 제자리 그리워서 천만번 뒤집어, 엎어, 잦혀, 변하고 변하는 바다여, 파도여. 무너지고 변하는데 어디다 마음 붙일까? 아, 파도가 물이네.

펄펄 살아있는 이 생명의 기둥, 생각 전의 이 기둥 반야에 실어,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사랑에 태워, 이뭘까에 태워 걸리는 것이 녹아져 견줄 데가 없어 서서 웃는다. 하늘 땅 한복판에 서서 웃는다. 만경창파 배 한 척이다. 한 점의 응이다. 응하는 이 놈이다. 만경창파가 조견이다. 돌이키는 빛이다. 조견 오온 개공이다.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사랑이다. 어느 것 하나도 사랑이다.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다. 모두가 절절한 생명의 양식이다.

"국화는 아침이슬에 젖고, 낙엽은 가을밤에 떨어진다. 부처님을 묻는다면 바위 아래 젖지 않는 물소리."

납자의 오도송이다. 생기덩어리 빈 바다, 바다가 세상에 생기를 쏟아 붓듯이 이뭘까? 화두 몰두가 법계의 콧구멍을 열어 숨통이 터지게 해주네.

"한 사람의 정진대중이 세상을 산 기운으로 꽉 차게 해준다."

춘성스님 법문입니다.

가지가지 세상만사는 반야(般若)의 반(般) 누가 보고 누가 듣나? 아, 둘일 수가 없다. 이놈이다. 바로 반야(般若)의 야(若). 반야는 불가사의 한 덩어리 이뭘까? 화두 억 천만년 이 고요, 한 덩어리 이~뭘까? 이탈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애써서 돌이키고 돌이켜라. 애쓰다 보면 아, 세상은 용맹정진이다. 세상만사 용맹정진이다. 돌이켜지는 힘이 확실해질수록 한 물건도 붙을 수 없는 이글이글 돌아가는 원동력 한 덩어리, 생각 전, 일색의 한가한 공부길 얼마나 통쾌한가?

상주일체가 달마다. 저절로 자연스러워 달마야중이다. 법이요, 순리다. 반야가 이뭘까?다. 끝없이 돌아가니 그때그때 '맞게' 가 중도다. 일체가 달마야중이다. 가슴이 시원해지네. 억지와 무리는 쭈그러진다. 헛힘이다. 즉하에 돌아와라. 제자리, 지심(至心), 이뭘까?로 돌아와라. 벙실벙실 웃게, 세상이 박수치게, 백억 달마가 조도의 벗이다. '맞게' 가 중도다. 달마야중 맞는 법 호법선신이다. 여기에 이르러 어떻게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있겠나? 무슨 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반야심경을 만났네. 그 시절 부처님을 지금 만났네.

'이 문제' 해결 법문 중에 부처님의 반야심경 법문보다 더 절절한 법문이 어디 있나? 아, 반야! 반야는 용맹정진이다. 하늘땅이 몰아주니 용맹정진이다. 목탁소리 파도소리 대종소리 천둥소리 가지가지 각양각색 다양한 소리 반(般) 소리 자체는 야(若) 여기에 이르러 버릴 자식이 어디 있나. 오온이 조견이다. 일체가 이놈이다. 물결은 반(般), 바다는 야(若), 반야는 용맹정진 이뭘까, 이~뭘까?

애쓰다 보면 자가옹 이 늙은이 여기 있었네. 나갈 때 들어올 때 지나가고 돌아올 때 대웅전을 향해 이뭘까로 경배합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어 화두 놓칠 틈이 없네. 하늘이 와 있고 소리가 와 있고 땅이 받치고 있으니 화두 벗어날 틈이 없네. '이~' 하는 이 자체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 놈' 얼마나 쉬운가! 놓치지 마라, 잊지 마라, 순간순간이 용맹정진이다. 십년 후 백년 후 제자리에 와 있다면 성공이다. 그러나 바로 지금 제자리에 돌아오게 해주는 반조, 이~뭘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졸고 있어도 그대는 세상을 살리는 주인공이다.

같이 가고 같이 걷고, 서고 앉고 서로 함께 세월이 깊었네. 물마시고 옷 입고 언제나 대면이라. 머리 돌려 다시 생각할 일이 없네. 이~뭘까?

11월 27일 계묘년 동안거 결제를 맞아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000명의 수좌가 만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정예하를 비롯해 각 총림 방장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원고는 11월 23일 기준으로 결제 당일에 하신 방장스님 법어는 싣지 못했습니다. 법어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미루는 마음에 공부 늦는다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지도무난(至道無難)이요.
유혐간택(唯嫌揀擇)이니
단막증애(但莫憎愛)하면
통연명백(洞然明白)이로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함을 여의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신심명은 삼조 승찬 스님이 지은 글입니다.

승찬 대사는 수나라 양제 대업2년에 입적했습니다. 승찬 대사는 대풍질(大風疾)이라는 큰 병에 걸려 있었는데 오늘날의 문둥병입니다. 스님은 문둥병에 걸려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조혜가대사(二祖慧可大師)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죄를 참회케 해 주십시오."

"그대는 죄를 가져 오너라. 죄를 참회시켜 주리라."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 되었느니라. 그대는 그저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에 의지해서 안주하라."

"지금 화상(和尙)을 뵈옵고 승보(僧寶)는 알았으나 어떤 것을 불보(佛寶). 법보(法寶)라 합니까?"

"마음이 부처이며 마음이 법이니라.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고 승보도 또한 그러하니 그대는 알겠는가?"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에 혜가대사께서 그가 법기(法器)인줄 아시고 매우 기특하게 여겨 승찬 이라고 법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해 3월 18일 복광사(福光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그로부터 병이 차츰 나아져서 2년 동안 혜가스님을 시봉 하였습니다. 입적 하실 적에는 법회 하던 큰 나무 밑에서 합장한 채 서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신심명은 격외도리와 교리의 현묘한 이치를 다 갖추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순상쟁(違順相爭)이
시위심병(是爲心病)이니.
불식현지(不識玄旨)하고
도로염정(徒勞念靜)이로다.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툼은 마음의 병이 되나니. 근본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고 하도다. 〈중략〉

부사의해탈력(不思議解脫力)이여.
묘용항사야무극(妙用恒沙也無極)이로다.

부사의 한 해탈의 힘이여.
묘한 작용 항하 모래와 같아 다함이 없도다.

하안거 해제 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삼동결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늦어지는 것은 시간 여유가 있거니 하고 항상 미루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모든 조사스님들도 옛날에는 모두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그가 이미 장부요 나도 또한 장부거니 다만 하지 않을지언정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인사 이 좋은 도량에서 이번 동안거 기간 애써 정진해서 공부를 성취하도록 합시다.

주인공의 삶을 살면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추행만국추무적(秋行萬國秋無跡)하고.
월만천강월불분(月滿千江月不分)이라.

가을 기운이 만방에 퍼져도 가을은 자취가 남아 있지 않으며, 달이 천개의 강에 잠겼는데도 하늘의 달은 나누어지지 않는구나.

일념 정진으로 깨달음 성취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동안거 결제 3개월 동안 대중스님들은 몸과 마음을 모아서 각자 본성을 깨닫기 위해 일념으로 정진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一心淸淨境界淸淨(일심청정경계청정)
一心混濁境界混濁(일심혼탁경계혼탁)
한 마음이 맑고 청정하면 바라보이는 세계도 맑고 청정하고 한 마음이 혼탁하면 바라보이는 세계도 혼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원시부족의 깨달음

원시부족은 생각했다. 깜깜한 밤에 마을을 환하게 밝혀주는 밝은 달을 따다가 마을에 나무 위에 걸어두면 마을을 항상 환하게 비춰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밝은 달을 따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을 향해서 달렸다. 곧 딸 것 같은 달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들판을 달려도 달을 딸 수가 없었다. 새벽이 오면 달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몇 날 며칠을 달리고 달리던 부족들은 깨달음을 얻었다. 달은 딸 수가 없다는 것을.

원시부족은 생각을 했다. 달은 마냥 머물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원시부족은 더 이상 달을 좇아가지 않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달빛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누구나 찾고 있는 이 마음
누구나 간직한 이 마음을
찾을 수가 있는 걸까!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걸까!
내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걸까!
바보처럼…찾지 마라.

내 마음 늘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길을 걸을 때도 같이 길을 가는 것이고 잠을 잘 때도 같이 잠을 자고 노래를 부를 때도 같이 노래를 부르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은 잠시도 나와 떨어진 적이 없는 것. 보려고 하지 말고 만지려고 하지 마라. 따로 깨닫게 한다고 깨달음을 좇아가지 마라. 깨달을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머물고 행하는 이대로 일 뿐이다. 일상생활 어느 하나도 마음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좋으면 좋은 줄 아는 이대로 이 자체가 나의 참다운 마음인 것이다.

항상 함께하는 이 마음 늘 여기에… 연꽃처럼 때 묻지 않고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는다.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정한 이 마음. 과거 현재 미래에 충만하고 영원한 이 마음. 본래 마음은 태어남도 죽는 것도 없다. 다만 물들거나 때묻지 않는 如如(여여)한 마음인 것을.

오늘 밤에도 달빛이 금정산 범어사를 비치고 있고 불어오는 바람에 대나무들이 몸을 맞대고 춤을 춘다.

“케이블카 환상, 애물단지로 돌아온다”

통도사 영축환경위,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철회’ 촉구

11월 20일 통도사서 기자회견
케이블카 개발 644억 원 규모
“통도사 2014년부터 반대입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위원장 현범, 이하 영축환경위)가 11월 20일 통도사 경내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영축환경위는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설치가 “길이 보존해야 할 공공재를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한 전유물로 허가하는 것”이라며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특혜인 이번 사업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축환경위 위원장 현범 스님은 “신불산 일대는 식생보전등급 기준 1등급 지역이나 3등급으로 낮춘 것은 매우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며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마땅히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예상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낙석 등 지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현재도 낙석이 떨어지는 곳이어서 산사태 위험이 있고 태풍이 지나는 길목이기 때문에 안전상으로도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용에 대해 함세영 부산대 명예교수도 “신불산은 동쪽과 서쪽이 단층으로 형성돼 있으며 케이블카 설치로 암반에 풍화와 침식을 일으켜 한 번 훼손되면 복구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영축환경위는 이에 더해 “통도사는 2014년부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해왔다”며 “2018년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부동의 결정을 하도록 힘을 보탰음에도 이번에 영축산과 가장 가까운 노선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영축총림 통도사에 대한 도발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도 “관광 인프라를 형성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사탕발림으로 경쟁하듯 만들어놓은 수많은 산악케이블카를 보라”며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애물단지로 남아있다. 울주군과 케이블카 사업단은 좀 다른 시선으로 지속가능한 길을 찾아주시길 바라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무지한 욕심을 철회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가 11월 20일 통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불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44억 원 전액 민자사업이다.

울주군은 이순걸 군수 취임 후 산악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획 구간은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억새평원까지 2472㎞에 이른다.

울주군 서부 6개 읍·면 발전협의회는 이날 오후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도사 기자회견 현장에는 영축환경위원장 현범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청우 스님, 교무국장 보원 스님, 포교국장 신경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함세영 부산대 지질학과 명예교수, 구자상 前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영축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보현장학회, 청소년·다문화가정 지원

장학금 2010만원·아동영양키트 전달

재단법인 보현장학회(이사장 정여)가 11월 18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장학금 수여 및 다문화가정 아동영양키트 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장학금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16명에게 각 100만원, 고등학생 7명에게 각 50만원, 중학생 2명에게 각 20만원, 총 25명에게 2010만원을 전달했다. 다문화가정 아동영양키트는 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 회원기관인 금정구가족지원센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금정청소년수련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용당어린이집 등에서 추천받은 101명의 아동에게 전달됐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보현장학회는 은사스님께서 설립하셨다. 받는 사람보다 나눠주는 보현장학회 이사스님들과 불자들이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한다”며 “아울러 오늘 뜻깊은 자리에 다문화가족이 참석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생명나눔 ‘100원 희망 콘서트’ 개최

11월 21일, 저금통 모으기·봉사자 표창도

100원의 온정을 모아 환우에게 희망을 전하는 콘서트가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이하 부산생명나눔)가 11월 21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제18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 부산생명나눔은 이번 콘서트에서 1년 전에 배포한 난치병 환우 돕기 저금통을 모으고, 지원받는 환자를 소개하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했다. 행사에는 부산생명나눔 본부장 심산 스님과 부본부장 자인 스님, 해암 스님, 이사 성문 스님을 비롯해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심산 스님은 “진정한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는 생명나눔 장기기증회원과 후원회원, 이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연에 앞서 부산생명나눔은 한 해 동안 생명가치에 동참하고 함께 노력한 봉사자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장은 광명사 오정숙 불자를 비롯해 9명이 수상했다. 또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단법인 미소원이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정각원 창립 1주년…“세상 밝히자”

제12회 김장·장학금 전달
1000여 명 국수 만발공양도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사장 향공)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지역민을 위한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산정각원은 11월 22일 사상구 르네시떼 야외공연장에서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제12회 연말 사랑의 김장김치·장학금·국수 무료급식’을 개최했다. 부산정각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의 공덕을 널리 회향하고 장학금을 비롯해 소외 이웃을 위한 도시락 나눔, 무료급식을 이어가는 자비나눔 공동체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정각원은 11월 22일 사상구 르네시떼 야외공연장에서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제12회 연말 사랑의 김장김치·장학금·국수 무료급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지 향공 스님을 비롯해 사상구 옥천사 회주 청강 스님,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화엄승가회 이사 대각 스님과 조병길 사상구청장, 윤태한 부산시의회 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개회, 내빈소개, 시상식, 격려사, 축사, 장학금 및 김장김치 전달식으로 이어졌으며 축하공연과 국수 무료 급식이 진행됐다.

부산정각원은 이날 김장김치 10㎏과 컵라면 각각 323박스를 전달했으며 학생 11명에게 각 20만원, 총 220만원을 지원했다. 김치는 사상구 관내 12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새마을부녀회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부산정각원에서 봉사를 이어온 회원들을 격려하는 시상식도 열렸다. 표창장은 김정자·황지경·김정순·김수남 불자가 수상했으며, 감사장은 전수덕·채승원 불자가 받았다.

이사장 향공 스님은 “참여해주신 모든 불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봉사자들은 어두운 곳곳을 밝히듯 나눔의 활동을 펼쳐왔다. 나눔에 앞장서 주신 봉사자들의 손길이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앞으로도 나눔의 공동체로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은 견강암 산하 봉사단체다. 30여 년 전 견강암 주지 향공 스님이 부산 국제시장 난민촌에서 굶고 배고픈 소외 이웃을 위한 국수 만발공양을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됐다.

이후 부산 사상구로 도량을 이전해 봉사를 이어왔으며 봉사나눔 단체인 정각원을 창립했다. 2022년 11월 1일 정각원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현재 100여 명의 후원회원이 있으며 매월 2·4주 무료급식과 어르신 효나눔 잔치, 동지팥죽, 김장김치 등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연제구불교聯, 백미 3000kg 나눔

12개동 주민센터 거쳐 소외이웃에 회향키로

부산연제구불교연합회(회장 법승)가 11월 22일 정수사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자비의 쌀은 총 3000kg이며, 쌀은 연제구 내 12개동 주민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이웃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연제구불교연합회 고문 원광 스님, 고문 보당 스님, 회장 법승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들과 주석수 연제구청장 등 관계자가 동참했다.

회장 법승 스님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를 나누고 전달하고 싶은 회원들의 마음이 모였다”며 “고문이신 원광 스님의 원력으로 많은 백미를 모을 수 있었다. 자비나눔에 함께 동참해 준 모든 회원 스님들께도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달라이라마 인도
보드가야법회 10일
달라이라마 법문 및 성지순례(12월26일~1월4일 도착)
동참금 | 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보드가야 법회(보드가야대탑–계족산–전정각산–가야산)–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칠엽굴–제석굴) –파트나–델리–인천
특별한 일정
1. 달라이라마 보드가야 법회 3일간
2. 부처님 성불하신 보드가야 대탑 기도
3.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금란가사를 지니고 들어가서 미륵부처님을 기다린다는 계족산 등정
4. 부처님이 오르셨던 전정각산과 가야산 등정
5. 법화경 설법지 영축산과 나란다대학
6. 제석천이 찾아와서 설법을 요청한 제석굴 순례

인도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1월20일 출발~1월30일 도착(11일 일정)
동참금 | 28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일본 교토 벚꽃여행 4일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교토의 명사찰 순례
3월 25일 출발~3월 28일 도착(4일 일정)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동복사–아라시야마 천룡사–광륭사–동사–삼십삼간당 등 모두가 벚꽃이 만발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1차 2024년 4월12일~4월21일(9박10일)
2차 2024년 5월17일~5월26일(9박10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화염산,고창고성,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5월16일 출발~5월 20일 도착
동참금 | 문의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
▶5일 : 북경–인천(대한항공)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2024년 6월07일~6월22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책을 드립니다.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환지본처 하시어 가르침 주소서”

태고종 전 종정 지허 대종사 49재 봉행

11월 19일, 순천 선암사 만세루서
“큰스님 뜻 이어 수행정진” 다짐
평생 선수행 · 선암사 중창 진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전 종정 지허 대종사의 49재가 11월 19일 순천 선암사 만세루에서 봉행됐다.

태고종 전 종정 지허 대종사의 49재가 11월 19일 순천 선암사(주지 승범) 만세루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담 스님 등 종단 소임자 스님들과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월인 스님, 지허문도회장 승원 스님, 문도스님들이 참석해 지허 대종사가 하루빨리 중생 곁으로 돌아오길 기원했다.

행사는 선조사 스님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총무부장 도성 스님의 행장 소개, 법담 스님의 열반송 낭독, 승원 스님 문도대표 인사말과 승범 스님 인사말, 총무원장 상진 스님 · 월인 스님 추도사가 진행됐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고종단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 더욱 큰스님의 가르침과 꾸짖음이 절실한데, 다시는 그 크신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슬픔이 가득하다”며 “가시는 모습 그대로 곧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실 것을 믿으며, 삼가 큰스님의 각령 앞에 일향구를 올리니 안양국에서 왕생하시어 소요자재 하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은 “추운 날씨에 참여해 주신 대중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문도들은 부단한 수행정진으로 조사의 가풍과 선암사의 사풍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도대표 승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큰스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생에 기쁜 일이 하나 있고, 애통할 일이 하나 있다. 기쁜 일은 내 상좌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닫는 것이고, 애통할 일은 상좌가 깨달았는데 내가 공부를 못해서 상좌보다 깨닫지 못함이 애통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제 저희는 큰스님을 뵙지는 못하지만 법에 의지해서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법요식에 이어 참가대중은 49재 의식으로 지허 대종사와의 이 생의 인연을 회향했다.

한편 지허 스님은 1956년 만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지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전주 관음선원에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선암사 강원을 졸업하고, 해인사 용탐선원, 통도사 극락선원, 미래사 토굴, 수덕사, 상원사, 심원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행했다.

지허 스님은 1979년 평생의 수행처였던 선암사 금둔사터를 발견하고 복원 및 중창불사를 진행했다. 금둔사 주지,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선암사 주지, 중앙선원장, 중앙원로의원, 선암사 부방장을 역임하고, 2020년 태고종 제20세 종정에 추대되었다.

평생 선수행과 선암사 중창, 선다 보급 등에 진력했던 스님은 10월 2일 금둔사에서 법랍 67세 세수 83세로 입적했다.

“불자들 의지처 될 도심 포교도량으로 성장”

화엄사빛고을포교원, 2주년 기념법회

연성 스님 “대학생 전법 활동에 기여”


화엄사빛고을포교원이 11월 18일 경내 대웅전에서 개원 2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구례 화엄사가 광주지역 도심포교의 원력으로 건립한 화엄사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이 11월 18일 경내 대웅전에서 개원 2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는 화엄사 부주지 우석 스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 화엄사 석경박물관장 우견 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문도스님들과 광주불교연합회 고문 도계 스님, 김대원 신도회장, 화엄사 화엄회 허재현 회장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2주년을 축하했다.

2년간의 주지 소임을 맡아 빛고을포교원을 이끌고 있는 연성 스님은 “불교대학에서 그간 80명이 졸업하는 등 개원 2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량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며 “개원 이후 많은 도움을 주신 화엄사 대중스님들과 지역 사암,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 스님들과 신도들의 함께 하는 마음이 더해져 사찰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스님은 대학생 전법을 위한 향후 운영계획도 밝혔다. 스님은 “호남대학교 불교동아리 활동 지원 등 대학생들이 불교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청년포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를 대표해 참여한 도계 스님은 축사를 통해 “광주불교의 모든 대중을 대신해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화엄사 부주지 우석 스님도 “불과 2년 만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빛고을포교원이 화엄사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포교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찰이 새롭게 개원하고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불자들의 염원과 서원이 담겨야 한다. 빛고을포교원이 희노애락이 함께하는 불자들의 삶의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도 ‘남편나무’ 글귀를 통해 축하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날 신도들은 발원문을 통해 “빛고을포교원 청정도량을 인연한 모든 불자가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마다 지닌 큰 뜻을 이루고 한 송이 향기로운 연꽃으로 피어나 우주 법계를 무량한 빛과 생명으로 장엄하기를 불보살님께 두 손 모아 발원한다”고 서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신임 공동대표에 법공 스님

2023 정기총회…내년 사업 결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해청)가 11월 17일 광주 나무숲센터 3층 담마홀에서 ‘2023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공동대표에 법공 스님(문빈정사 주지)을 선임했다.〈사진〉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결산과 2024년 사업계획, 2023년 수지결산 및 2024년 예산안을 결의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임원스님들과 사무국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으로 이룩했다”고 활동을 격려했다.

해청 스님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며 “녹색불교아카데미와 녹색불교경전학교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33회 산해원 문화상 수상자 발표

배한봉 · 이용민 · 이상연 선정
12월 4일, 성주사서 시상식


배한봉 이용민 이상연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법안)가 산해원문화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조민규)를 열어 제33회 향기로운 산해원 문화상 수상자로 문학 부문에 배한봉 시인, 예술 부문에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 행원상에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을 각각 선정했다. 언론 학술 부문은 적격자가 없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산해원 문화상은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창원지역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1년 제정한 상이다.

이번에 문학 부문 수상자인 배한봉 시인은 1998년 ‘현대시’ 신인상으로 문단에 등단 후 ‘육탁’ 등 6권의 시집을 포함한 총 9권의 저서를 펴냈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시 ‘우포늪 왁새’가 수록됐고, 소월시문학상 대상, 경남문학상 등 국내 유수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했다.

예술 부문 수상자 이용민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는 통영국제음악제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무국장, 본부장, 재단 대표에 이르기까지 실무를 총괄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음악부문 대표축제로 성장 발전시켰다. 특히 통영이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 선정되고, 유네스코 산하 국제 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에 가입되는 등 세계 정상급 국제축제도시로 성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행원상 부문 수상자인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오랫동안 지역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왔다. 게다가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장학 사업을 펼쳤다. 라이온스협회 총재로도 활동하며 사회봉사를 선도하는 등 지역 문화 창달에 힘썼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7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3시 창원 성주사에서 열린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상진 스님, 경남교구종무원 발전 기원

11월 16일, 연석회의서…종단 관심 당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경남교구종무원 스님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교구 발전을 기원했다.〈사진〉

태고종 경남종무원(원장 환명)은 11월 16일 경남 창원 원각사에서 교구 주지 연석회의 및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도스님들이 총무원 집행부를 믿어 주면 더욱 열심히 종단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며 “태고종 종조 태고보우 국사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중국에서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교구종무원장 환명 스님은 “태고종 경남교구 종도스님들의 단합된 모습과 활기찬 모습으로 지금 종무원 신청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고 “총무원이 안정되면서 지방 종무원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 발전과 경남교구종무원의 발전을 위해 소임이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정진하겠다”며 종단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상진 스님에게 전달했다. 상진 스님도 경남교구종무원 원로스님들에게 대장경판을 증정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상진 스님은 경남교구 종무원스님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밀양 부은사 주지 지원 스님은 태고종 승려연수교육 강화를 건의했다. 이에 상진 스님은 연수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교수협의체를 구성, 관련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논의해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주 보덕사, 정여 대종사 초청 특별법회

정여 스님 “자비도량 되길” 거듭 당부



울주 보덕사(주지 효암)는 11월 17일 보덕사 대웅전에서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가 똑같이 맑고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맑고 청정한 그 마음을 그대로 쓰지 못하고 욕망과 욕심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서 “본래 부모로부터 받은 맑고 깨끗한 몸을 이제는 기도와 염불 또 수행을 통해서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 자신도 행복하고 또 주변도 행복하고 점점 부처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오늘 보덕사 법회에서는 동참자들로부터 때 묻지 않는 본연의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겠다는 서원이 느껴진다”며 “보덕사 도량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도량, 맑고 청정하게 수행하는 도량,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는 도량, 학비가 없어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 학비도 내주는 도량, 노인들을 보살피는 그런 자비도량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여 스님은 보덕사 주지 효암 스님에게 보덕사 불사를 위한 격려금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계묘년 가을 산신재 봉행

자비의 쌀 3톤 진안군 전달도



신비의 돌탑군으로 국가지정명승으로 지정된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가 가을 산신대재를 봉행했다.〈사진〉

11월 21일 돌탑 앞에 설치된 특별법단에는 전국각지에서 생산된 공양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자비의 쌀이 진설됐다.

1부 행사는 공로패 · 감사패 수여와 신도회장 임명장 수여, 자비의 쌀 전달, 인사말, 축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산신재에서는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신도들의 무량수경 독송, 소지공양, 전북무형문화재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39위 신장법문, 산신청, 지전춤이 이어졌다.

진성 스님은 윤복길 전 신도회장에게 공로패를, 탑사 윤금상 전국신도회장, 박선자 수석부회장, 김경은 총무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진안군은 김승학 복성개발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사)붓다봉사단은 복성산업개발과 태원건설, 혁신금속의 후원으로 마련한 자비의 쌀 3톤(10kg 300포대)을 진안군에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의 탑을 축조한 이갑룡 어른께서 매년 음력 3월 9일과 10월 9일에 산신재를 봉행한 것을 시작으로 127년이 지났다”면서 “이갑룡 어르신은 산신재에 모아진 기금을 모아 만주의 독립운동가들에 전달하곤 했다. 뜻을 기리는 의미로 진안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 스님과 신도대표가 무대에 올라 무량수경을 함께 독송했고, 동참 대중들은 소지공양을 올리며 모든 국민의 화합과 평화,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불교종단협, 디저트로 감미로운 여행

제12회 전통음식 문화한마당 개최



한국의 떡과 과자를 전통 방식으로 재현, 어른 세대와 또 젊은 세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다양한 전통 디저트를 소개하고 맛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울산광역시 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해남사 주지)는 11월 17일 울산 해남사 앞마당과 문화공간 해남에서 제12회 전통음식 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디저트로 떠나는 감미로운 미감여행’을 주제로 열린 전통음식문화 한마당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전통 디저트가 소개됐다. 특히 한국의 떡과 과자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K-디저트는 한국의 발효식품과 치즈 등을 활용한 점에서 인기가 높았다.

100여 종의 다양한 디저트가 선보여진 이번 행사는 울산지역의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지역색을 살려 더욱 눈길을 끌었다. 마선영 요리연구가는 울주배로 만든 백설기, 봉계항우쌀로 만든 증편, 울산담감으로 만드는 고명 등을 선보였다.

개막식에서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은 “고단한 일상에서 달콤한 디저트로 하루의 시름을 잊을 수 있듯, 울산불교종단연합회는 울산 시민불자들의 고단함을 비워주는 달콤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해남사를 대표해 김영자 신도회장은 심민령 울산 중구 부구청장에게 백미 200포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백미는 울산 중구청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나눠줄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8살 몽골 소년, 티베트 불교 중심 선 이유는?

10대 제쭌 담빠 후툭투 환생자
최근 달라이라마 법회서 공개
일반교육 받고 간단사원 생활도
18세에 출가 스스로 선택키로
중국 반발…무역 관세 부과도

박영빈 객원기자


사찰에서 경전공부를 하고 있는 10대 제쭌담빠 A.아타나르. 사진출처=뉴욕타임즈

몽골에서 태어난 8살 소년이 티베트 불교계의 가장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월 17일 일본의 '도쿄신문'과 '커리얼 재팬' 등의 언론은 복수의 외신 등을 인용해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인 '제쭌 담빠 후툭투'의 10번째 환생자를 둘러싼 문제를 보도했다.

제쭌 담빠 후툭투는 몽골불교의 최고 지도자로 외몽골이 공산화되기 전까지 내몽골의 짱갸 후툭투와 함께 몽골불교계를 이끌었다. 전통적으로 티베트불교에선 달라이라마, 판첸라마와 함께 두 후툭투를 더해 '4대 라마'라고 칭하며 극동 시베리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티베트불교 문화권에 강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했다. 이중 8대 제쭌 담빠는 청나라에서 독립을 선언한 외몽골이 대칸으로 추대하면서 복드칸이라는 이름으로 즉위, 독립운동을 이끌어 이후 공산국가가 된 몽골에서도 영웅으로 존경받았다.

9대 제쭌 담빠는 몽골이 공산화된 이후에 티베트에서 환생했으며, 신변의 안전을 위해 신분이 비밀에 붙여졌고, 90년대에 들어 몽골의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에야 그 신분이 공개됐다. 2012년 9대 제쭌 담빠는 울란바타르에서 입적했으며 "나는 몽골에서 환생할 것이고, 환생자의 선정과 탐색은 달라이라마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고 유언을 남겼다.

환생자 탐색단에 함께한 몽골의 종교학자 바타 마시기쉬 빅사는 "몽골에서 환생자를 찾는 제도는 공산화와 함께 그 맥이 거의 끊겨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총 8만명 후보자들 가운데 종교적 관습과 의례에 따라 최종적으로 9명이 탐색에 응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종 탐색에서 한 살 배기 아이만이 9대 제쭌 담빠가 사용하던 법구를 손에 쥐고, 탐색단에 있던 전생의 시자스님의 무릎에 올라가 앉았다. 바타 박사는 "그 자리 모든 스님과 학자들은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스승을 찾아낸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안전을 위해 7년간 비밀에 붙여졌던 제쭌 담빠의 환생자는 지난 3월, 인도 다람살라에서 몽골불자들의 요청으로 봉행된 달라이라마의 법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A.아타나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8세의 소년은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으며, 현재 안전의 이유에서 쌍둥이 중 누가 제쭌 담빠의 환생자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미 16년도의 달라이라마의 몽골 방문과 제쭌 담빠의 환생자 관련 발표에서 중국은 몽골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무역 관세를 부과했으며, 양국 회담도 취소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수출입과 사회인프라 투자 부문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몽골의 입장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달라이라마의 몽골대표인 뗄로 린뽀체는 "소년이 정치적인 이유로 선정됐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제쭌 담빠는 몽골불자들의 지도자이고,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필수적인 종교적 지도 외엔 소년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야말로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현재 A.아타나르는 평범하게 일반 학교 교육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간단사원에서 정규적인 불교교육도 받고 있다. 간단사원과 아타나르의 가족은 "아이가 최종적으로 출가하거나 불교지도자로서의 삶을 선택할지는 18세가 되면 아이에게 직접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의로 변형된 고대 마애불에 당국 처벌 '난색'

〈善意〉

쓰촨성 1400년 된 고대 석불
현지 노인 신심으로 페인트칠


채색되기 전 마애불의 모습(상), 채색된 후의 모습(하). 사진출처=웨이신 뉴스

중국 쓰촨성에서 발견된 1400년이 넘은 고대 석불에 색색의 페인트가 칠해진 것으로 전해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11월 15일 중국의 '웨이신 뉴스'와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 외신은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다. 석불에 페인트 칠을 한 것은 현재 노인들로 신심을 가지고 선의로 했다는 진술에서 당국이 처벌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쓰촨성 난장현(南江县), 바중시(巴中市)에 소재한 마애불들은 지난 2021년 새로 발견된 불상들이다. 지난 7월 쓰촨대학 고고학·박물관학부와 바중시 문화유적국이 발표한 〈쓰촨성 난장현 스페이허(石飞河) 마애조상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불상들은 1400년 전 북위 말기부터 당나라 후기까지 연속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전했다. 바중시 문화유적국은 "북위말의 마애불은 매우 드문 사례이고, 특히 자연석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여 이렇게 불상들이 조성된 것은 쓰촨에서는 보기 어렵다. 또한 쓰촨과 중원북방 지역간의 불교문화와 예술교류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15일 아침, 난장현 문화유물보호 연구센터에서는 "불상들에 무단으로 페인트를 사용한 채색작업이 더해졌으며, 현재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복원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사건은 11월 13일 일어났다. 당국은 조사를 벌여 당시 주민인 왕모 씨와 그 딸인 리모 씨의 증언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인근 마을의 예모 씨에게 부탁하여 마애불에 옷과 상호를 그린 것으로 밝혀졌다. 왕모 씨는 "이 부처님을 예경하며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감사의 의미에서 가사를 공양하고 상호를 새로 그리는 뜻에서 채색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바중시 문화유적국 직원은 "당시 마애불들에는 보호를 위한 임시 건물과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채색작업 당시 이미 사건을 알아챘으나 마애불들이 너무 깊은 산속에 있어 작업을 제지할 수 없었다. 유적국 직원과 공안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작업이 완료된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지 공안은 "불상에 채색한 사람들은 모두 70~80대 노인들이다. 신행활동으로 채색하였다고 진술하였기에 강력하게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교육과 일정 수준의 경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난장현 인민정부 측 역시 취재진들에게 "현지 마을 주민들은 불상에 채색을 하는 것이 선한 행위이며 문화유물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에 곤란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사건발생 후 지자체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 현장에 보호조치를 추가했으며 문화재 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호 및 복원 계획을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다. 채색에 사용된 페인트들은 대부분 아크릴 페인트로 전문가는 "복원이 가능하지만 미세한 부분까지의 완벽복원은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사건을 보고받은 진다수 베이징대 고고학 교수는 "불상이 발굴된 시대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귀중한 불상으로 이러한 석조유물은 한 번 훼손되면 원래 상태로 돌리기가 어렵다"면서 "문화재 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고,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불교계 "스님 희화화 멈춰"

AI가 만든 '승려들 일탈' 사진 온라인서 무분별 유포


태국 불교계가 AI가 만든 '가짜 사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출처=카오소드

태국 불교계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가짜 사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님들이 주황색 가사를 두른 채 헤비메탈을 연주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며 사고를 내는 모습 등을 담은 조작된 사진들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희화화(戱畫化)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와 불교계는 가짜 사진을 유포할 시 사이버범죄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1월 12일 카오소드(Khaosode) 등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불교협회 사무국장이자 국립불교국(NOB) 대변인인 수팟 무엉마(Suphat Mueangma)는 "태국 불교계 많은 사람들이 가짜 사진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사진들을 전부 삭제하고 유포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진들은 AI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제작된 것이다. 승려들이 헤비메탈 밴드를 결성해 광란의 공연을 선보이는 모습, 레이싱 경기장에서 헬멧 등 장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태우는 승려 등 부패한 모습이 담겼다.

현재 이 사진들은 온라인상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작·유포되고 있다. 정부와 태국 불교계는 "해당 사진들이 대중들로 하여금 진짜 스님들이 일탈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해 불교 평판을 저해시킨다"고 우려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 사진들을 최초 제작·유포한 사람은 '컴퓨터에 의한 허위 정보 생성·유포 등 사이버범죄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총리실에서도 가짜 사진을 유포하지 말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여론은 냉담한 반응이다.

카오소드는 사설을 통해 "'진짜' 승려들이 술을 마시거나 여자를 만나는 등 부패한 일은 실제 있는 일"이라며 "불교계는 이러한 논란에 발끈하는 대신 태국 젊은이들을 만나서 불교에 왜 무관심하고 냉소적인지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부 태국인들이 태국 주류 불교에서 멀어지게 만든 요인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불교계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룸비니에 대규모 러시아 불교 사원 착공

47억 규모…2025년 완공 예정


룸비네서 열린 러시아 불교사원 건설 착공식 모습. 사진출처=카트만두포스트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지로 알려진 네팔 룸비니에 2층짜리 러시아 불교 사원 건설이 시작됐다.

11월 17일 카트만두포스트(the kathmandupost)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108년 된 성 조지 수도원을 상징하는 이 불교 사원의 건설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네팔 주재 러시아 대사관, 러시아 불교 사원 건설 재단 및 러시아 불교 순례자들이 3억 루피(한화 약 46억6500만원)를 공동 투자해 시작됐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네팔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세이 노비코프(Aleksei Novikov)는 러시아 승려들의 염불과 함께 진행된 착공식에서 성 조지 수도원에서 가져온 돌 조각을 불단에 올려놓았다.

룸비니개발기금(Lumbini Development Fund)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네팔 국외 거주자들의 큰 도움도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지금까지 27개국이 룸비니에 그들의 나라를 대표하기 위한 사원과 수도원을 지었다. 룸비니 개발 기금에 따르면 룸비니 내 불교 구조물 건설을 위해 40개국 및 단체들과 협약이 체결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 추천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커버물 세탁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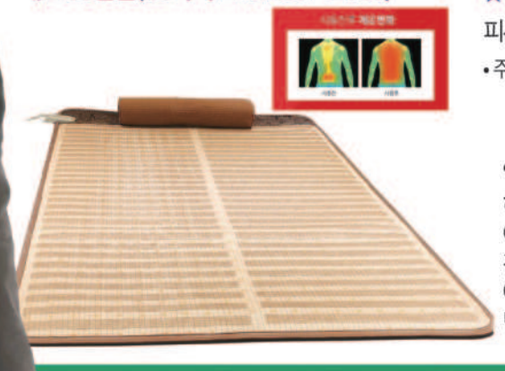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수제약제 비누

★ 코로나 예방 효과 증명 ★

피부질환 건조한 피부에 효과가 큽니다.

- 주요성분 : 천연식물성오일, 포졸란, 피톤치드, 히아루론산, 비타민E 등이 함유된 천연 수제비누로 계면활성제와 경화제, 인공향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수제비누 입니다.

기능성 약제비누
한박스(3개) 3만원
식약처 허가 업체 제조

"황토알파토"란? 백악기 시대의 화성암으로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여 세계에서 주목하는 고급미용재료 입니다.
아주 가벼운 광물로 다공성의 공기 구멍을 갖고 있어 피지 및 각질의 흡착 및 제거 효과가 뛰어나고 천연 무기질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젊고 생기 있는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민감성 피부에 효과, 오래 사용해도 무르지 않아 단단하고 좋습니다.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하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하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하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 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다. 한편, 베개를 밸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다.



베개 20만원

그림액자난로

공기오염 NO! 탄소배출 NO!
전자파 NO! 전기요금 걱정 NO!
난방비는 내리고!
건강난방은 올리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원적외선 대류 복사열 건강난방



실내·외 활용도 높음, 보조난방
★ 열효율이 높아 화장실 동파예방 ★

탄소에너지 난로 국내산입니다.
최고온도 105℃
원적외선 대류 복사열 난방으로 90%이상 절감

공기중 산소를 태우지 않고 수분을 데우는 방식으로 가까이 사용해도 전자파 발생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며 빛이 공기를 투과하지 않고 직접 물체에 도달합니다. 음이온 공기정화 기능으로 인체 살균작용, 향균 및 곰팡이 제거효과 ※ 야외화장실 추천(화장실 냄새제거) 음이온발생※

무색 표면 온도가 100도 넘어도 색깔이 없습니다.
무취 공기중에 산소와 음이온이 잡냄새를 잡아줍니다.
무음 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액자난로 15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전제품 국내산

전국 금석문, 탁본으로 '不變의 기록' 되다

문화재청 · 불교중앙박물관 '금석문 탁본 조사' 10주년 맞아

'탁본 장인' 홍선 스님 참여해
금석문 708점 탁본 조사 마쳐
11월 17일 성과 조명 학술대회
"제대로 된 선본 탁본도 문화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탁본(拓本)은 비석이나 기물 등의 각명(刻銘) · 문양 등을 먹에 의해서 원형 그대로 종이에 뜨는 방법이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에 전해졌고 금석학과 함께 성행했다. 기실 금석학과 탁본은 함께 발전했다. 문자의 점획이나 선 등의 미묘한 부분은 탁본으로 확인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부터 중국은 명비(名碑)의 탁본을 떠서 첩(帖)으로 만들어졌으며, '법첩(法帖)'이라하며 서예의 명품 내지 교본으로서 활용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은 2013년부터 '금석문 탁본 조사 사업'을 시행해왔고, 올해로 사업 시행 10년을 맞았다.

2013년 시범조사 때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해당 사업을 통해 불교 금석문 190점, 일반 금석문 518점 등 총 708점에 대한 탁본 조사를 마쳤으며, 이렇게 작업한 탁본들을 국립문화재연구원 누리집(https://portal.nrich.go.kr)에 공개하고 있다.

탁본, 기록의 예술

특히, 탁본 조사에는 '탁본 장인'인 흥선 스님이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제대로 된 선보 탁본을 위해서는 많은 공력이 필요하다. 당장 탁본의 재료인 종이는 제일 좋은 한지를 사용한다.

먹물 역시 기계로 갈면 안 되며, 시중에 유통되는 먹물은 방부제가 들어있어 사용 금물이다. 오로지 좋은 먹을 하루 사용할 물량만 손으로 갈아서 탁본에 사용한다.

종이를 밀착시키기 위한 '나무 솔'은 조사단에서 별도로 주문해서 만든 것을 쓴다. 종이에 먹을 치는 방망이는 일반적인 솜이 아닌 좁쌀에 천을 감싸 제작했다. 모두 탁본 전문가 흥선 스님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다.


지난 2018년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서 열린 금석문조사 사업 현장설명회에서 책임연구원 흥선 스님이 사명대사 사적비편의 탁본을 진행하고 있다.

탁본은 시간과 인내의 싸움이기도 하다. 완벽한 조건이 되도록 시간을 맞춰 작업해야 하며 먹을 칠 때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먹봉을 두드려야 한다. 1.7m 비문을 한 면을 탁본하는데만 1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먹의 농도를 조절하며 평균 5번을 먹봉을 치는 작업을 한다.

이런 10년 간의 탁본 조사로 조사단은 △비신(碑身, 비석의 몸체)의 상태에 따른 먹방망이의 재료 다양화 △비면(碑面)에 먹이 남지 않도록 하면서도 선명하게 탁본을 뜰 수 있는 최적의 종이 두께 확보 △사전 현장조사와 세척, 탁본 후 이물질 제거와 습식 세척 과정 등 탁본과 관련한 업무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10년 탁본 성과 정리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변(不變)의 기록, 10년의 두드림'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문화재청과 불교중앙박물관의 '금석문 탁본 조사 사업' 10년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였다.

'금석문 탁본조사 사업의 성과와 전망' 주제 발표를 발표한 흥선 스님(금석문탁본조사사업 책임연구원)은 "10년간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 질적으로 우수하고 예술성을 갖춘 탁본 자료의 확보 및 집성'을 목표로 전국의 주요 금석문 탁본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금석학 관련 연구와 가치 증진, 탁본 중요성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

스님은 이어 "지금까지 전국 금석문의 10% 정도만 조사된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선본 탁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금석문 전반에 대한 인문학적 교육, 올바른 탁본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학술대회에서는 △실상사 수철화상비와 무위사 선각대사비의 탁본을 통한 판독과 해석 △양평 이행원(李行遠) 신도비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김생(金生) 집자비(集字碑) 연구 △금석문의 기본 정보, 사진, 판독문, 해석문 등을 제공하는 국립문화재연구원 금석문 DB 구축 현황과 방향 △탁본 조사 사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탁본의 시각적 예술성과 미래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탁본 조사 사업 결과물의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됐다.

경허 선사 면면 담긴 자료들 '총망라'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硏
'신출 경허자료집'(상 · 하) 간행
1년여 편찬 작업 거쳐 선봬
경허 선사 친필 등도 수록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경허 선사 자료집을 선보였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경허집편찬위원회는 "약 1년간의 작업을 거쳐 〈신출 경허선사 자료집〉(상 · 하)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전자불전연구소는 지난해 10월 6일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경허, 받을 것도 전할 것도 없는 외로운 시대의 선사' 주제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편찬위원회와 경허조사단을 구성하고 자료 수집 등 자료집 편찬에 매진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경허 선사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대거 수록됐다. 경허 선사가 직접 쓴 해인총림 해인사 고승 진영 영찬(影讚)을 비롯해 경허 선사 친필인 퇴설당 편액 및 주련 등의 사진을 모아서 수록했다.

경허 선사의 친필과 기록이 일부 수록된 '해인사 방함록'은 근현대 선원 방함록의 시초로 선방수좌들의 행적을 기록하려한 경허 선사의 의지가 담겨 있는 자료다. 경허조사단은 조사 당시 해인사성보박물관의 허락을 구하여 직접 촬영한 방함록 전문을 포함했다.

여기에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해인사에서 활동했던 행적이 있는 '초암자(草岩子) 스님의 경허어록' 전문과 초암자 필적대조자료, 현재 초암자와 필체가 유사한 이로 추정되는 덕원고경(德元古鏡, 1882~1943)스님의 필적대조자료들도 함께 수록했다.

이와 더불어 고양 원각사 성보박물관의 〈무심도인본 경허어록〉, 김천 청암사 소장 영찬, 〈완산 정혜사 신창건기〉 등 경허스님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망라했다.

편찬위원회는 자료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경허 선사와 그 제자인 만공 선사의 어록의 선집을 번역 〈정판 경허록〉과 〈만공어록〉 등을 출간할 계획이다.

〈신출 경허선사 자료집〉은 도서출판 고래에서 비매품으로 발간됐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신출 경허'를 검색하거나, 또는 전자불전연구소 웹페이지(www.iebtc.net)에서 ebook(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생 성과품 특별전

12월 1일까지 세종시청 1층서
단청, 전각 등 50여 점 전시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박희웅)은 12월 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청 1층 로비에서 2023년 세종학습관 전통공예체험교육 성과품 특별전 '전통숨結: 과거와 미래를 잇다'를 개최한다.

전통문화교육원은 2021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설한 '전통문화 사회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서울학습관(서울 고덕동)과 세종학습관(세종시 다정동)에서 단청과 모사, 전각, 배첩 등과 관련한 '전통공예 체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공예 체험교육(단청, 모사, 전각, 배첩 과정)'의 수강생들의 성과품 50여 점을 전시하며, 2022년 개관한 세종학습관에서 개최하는 첫 전시이다. 전시 관람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단, 토 · 일요일은 휴관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일반 국민들에게 전통공예와 교육성과를 공유하는 전시 개최 등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제13회 아카데미선그림 회원전

선아트스페이스, 11월 29일~12월 5일

우리나라 전통 그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그려온 아카데미선그림이 13번째 정기회원전을 연다.

올해 아카데미선그림전시는 두가지 콘셉트로 기획됐다.

2023년 한 해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가들의 본작품과, '문자도'라는 하나의 주제로 각자의 개성을 녹여낸 단체적으로 구성 전시된다.

전시는 작품들이 나만의 꽃이 되고, 용이 되고, 항아리가 되고, 부처가 되며, 동자가 돼 관람객이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전시도록 대신 달력을 제작, 관람객들에게 일년 내내 감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단체작으로 구성된 '문자도'는 본래 한자를 기본으로, 그 글자와 관계있는 고사 등의 내용을 획 속에 넣어 서체를 구성한 그림이다. 아카데미선그림은 문자도의 형식과 내용을 확장, 한자뿐 아니라 한글과 영어, 숫자, 기호 등으로도 문자도를 만들어 냈다. 작품들은 선아트스페이스 전시 후 북촌전시실에서도 12월 6~12일 관람 가능하다. 02)733-0730 임은호 기자


제13회 아카데미선그림 회원전 중 이순희 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성철선사상
도대현/448쪽/23,000원

인도불교사
정순일/726쪽/35,000원

주역선해 연구
청화/510쪽/25,000원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280쪽/15,000원

불성론 연구
최현민/368쪽/18,000원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천수경 연구
정각/500쪽/28,000원

역경학 개론 (우수학술도서)
최종남 외/454쪽/23,000원

현수 법장 연구
계환/252쪽/15,000원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408쪽/20,000원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320쪽/17,000원

경봉 선사 연구
정도/304쪽/17,000원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360쪽/18,000원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524쪽/25,000원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우수학술도서)
현송/436쪽/23,000원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242쪽/15,000원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454쪽/23,000원

불교세시풍속
오인/446쪽/23,000원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424쪽/23,000원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484쪽/24,000원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496쪽/25,000원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292쪽/17,000원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488쪽/25,000원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364쪽/18,000원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464쪽/25,000원

삼계교 연구 (우수학술도서)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272쪽/16,000원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364쪽/20,000원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송시의 선학적 이해 (우수학술도서)
박영환/536쪽/27,000원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312쪽/17,000원

불교교육론
이송곤/528쪽/27,000원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328쪽/18,000원

한국의 죽음 의례의식 연구
탄탄/384쪽/20,000원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우수학술도서)
박경준/824쪽/37,000원

경량부 연구 (세종학술도서)
카토 쥰쇼 저, 김재현 역/576쪽/37,000원

붓다의 법담학 연구
이광준/448쪽/25,000원

생전예수재 연구
승범/280쪽/18,000원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
이윤옥/372쪽/22,000원

불교 시간론 원전 연구 (세종학술도서)
정은해 역해/696쪽/35,000원

대승불교 흥기시대 인도의 사원생활
임은정 역/384쪽/23,000원

불교와 사회윤리
차차석/304쪽/18,000원

환성지안 선사
무각/344쪽/22,000원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이명호/224쪽/17,000원

반야경의 사상 개설
이광준/336쪽/20,000원

불교사회경제사상
박경준/436쪽/25,000원

용성 사상 연구
진관/296쪽/20,000원

신자유주의와 상생의 불교경제학
김광수/284쪽/20,000원

불타의 대승선맥
오형근, 박화문/316쪽/2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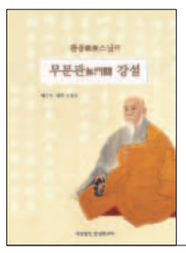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2~11/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푸른수행 파란행복	종원	맑은소리맑은나라	6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2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루퍼트 스파이라	퍼블리온	7	어상: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3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8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개정판)	에크하르트톨레	양문	9	정선앙굿따라니까야(정선니까야시리즈4)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5	부모은중경(큰글씨한글경전)목련경/우란분경/삼세인과경	경전연구모임 편	불교시대사	10	맛지마니까야(2) 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잊힐 뻔한 선지식 법문, 유발상좌가 다시 알리다



관응 스님의 무문관 강설
엮은이 김성규
사단법인 통섭불교원
2만5000원

관응 스님 유발상좌 김성규 원장
스님 남긴 무문관 법문들 묶어내
"선지식 법문, 남길 수 있어 다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뜰 앞의 잣나무."

조주 스님(778~897)에게 어느 한 스님이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하고 물으니 돌아온 답이다.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을 선문답이지만 명쾌한 답을 듣기는 어렵다.

1991년 문경 김용사에서 열린 무문관 야단법석 현장에서 지안 관응 대종사(1910~2004)는 열흘 간 걸친 법문에서 명료하게 선(禪)의 공안을 펼쳐 설명했다. 시간과 함께 사라졌을 법문이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책으로 나왔다.

김성규 (사)통섭불교원장이 책 〈관응 스님의 무문관 강설〉을 새롭게 엮었다. 〈관응 스님의 무문관 강설〉은 김성규 원장이 소장하고 있던 법문 테이프를 3년 간 풀어 정리한 책이다.

김 원장은 1988년 법륜불자교수회를 창립하기 앞서 운문사에서 개최한 제1회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관응 스님을 만났다. 관응 스님의 법문을 들은 후 김성규 원장은 유발상좌로 인연을 이어 더욱 정진했으며, 스님의 법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 책으로 엮게 되었다.

김 원장은 "주옥 같은 스님의 법문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다"며 "다행히 스님의 법문 테이프를 가지고 있어 몇 년 동안 녹취하고 교정 교열해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응 스님은 선을 이야기하면서 교학을 세우고, 교학을 이야기하면서 선지를 밝힌, 선교가 일심으로 회통하는 스님이셨다"고 회고했다.

관응 스님은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간 수행을 마치고 평생 선 수행을 한 대선사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웠고 일본 교토 용곡대학교에서 불교를 공부한 '신선지식(新善知識)'으로 불렸다. 1956년에는 직지사 조실로 추대되었으며 불교정화 이후 1959년 조계사 초대 주지 및 중앙포교사로 포교활동을 펼쳤다. 1984년에는 원산 스님 외 9명의 스님에게 전강을 내렸으며 1985년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지냈다.



191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관응 스님은 1929년 상주 남장사에서 혜봉 스님을 계사로, 탄옹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일본 용곡(龍谷)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조계사와 용주사, 직지사 주지를 비롯해 동국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명예원로이며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등을 지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특히 관응 스님의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는 한국불교계 일대 사건이었다. 세수 75세에도 수행정진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전강제자 10명을 배출했다. 스님은 정화에도 힘써 초대 조계사 주지였으며 화성 용주사 정화를 이끌었다. 포교에도 발군의 역량을 발휘해 초대 중앙 포교사로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쳐 1987년 제1회 포교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원장은 "관응 스님의 불은을 되새기면서 스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것 중의 하나인 무문관 법문을 정리했다"며 "불교에 뜻을 세우고 견성하려고 수행정진하는 수행자에게 인연이 닿는다면 큰 행운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책〈관응 스님의 무문관 강설〉은 책〈무문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강설과 선(禪)의 공안(公案) 가운데 유명한 제1칙 조주무자(趙州無字)로 시작돼 마지막 제48칙 건봉일로(乾峰一路)로 마무리된다.

책을 엮은 김성규 원장은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로 33년간 재직했으며 현재 명예교수이다. 승가 대학 및 일반 불교대학에서 불교에 대해 강의했으며 법륜교수불자회 회장과 '이뭣고' 백년결사운동의 지도법사를 역임했다. 1988년 법륜불자교수회를 창립했으며 영남대학교 의료원 불교신행회,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불교학생회를 창립했다. 현재 불교수행 공동체인 사단법인 통섭불교원 원장이다.

언어는 과연 완벽한 전달 수단일까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한상희 외
도서출판 운주사
2만3000원

인류가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 차별화된 능력은 바로 '언어'의 사용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며 문명과 문화를 형성했고, 의사소통을 해왔다. 우리에게 언어의 사용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중요한 일이다.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는 언어가 가지는 다양한 역할과 한계, 순기능과 역기능 등에 대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현대 심리학에서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렇듯 세계의 존재 및 그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언어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유용한 도구인지, 아니면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왜곡하는 불편한 도구인지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편집자 서문(한자경 이화여대 교수)'에서는 인식과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가 과연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가를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서양철학과 불교의 차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연기와 유식사상에 의거해 언어의 분별적 이원성을 논하고, 이를 뛰어넘는 언어의 사용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초기불교: 언어, 깨달음으로 가는 길(한상희 경북대 교수)'에서는 초기불교에서 바른 언어의 사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논한다. 불교에서는 실천을 통한 체득을 중시하는데, 그것이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대승불교: 은유로 나타나는 세계(김성철 금강대 교수)'는 유가행파, 특히 안혜의 은유론에서 정점을 이루는 인도 의미론의 발전과정을 다루는데, 그 과정에서 언어와 정신의 상호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대승불교에서는 언어적 사고가 업과 번뇌의 원인이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비언어적 인식을 획득해야 한다는 견해가 밑바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선불교: 불립문자와 불리문자의 이중주(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선불교에서 언어에 대한 관점은 언어를 부정한 불립문자를 표방하며 시작되었지만, 다시 요로설선(繞路說禪)을 통한 불리문자로 언어를 긍정하게 되었고, 대혜의 간화선에 이르러 불립문자로 재전환되었다고 밝힌다. 따라서 선불교의 역사에서 언어관은 '불립문자와 불리문자의 이중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양철학: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로서의 인간(박찬국 서울대 교수)'에서는 '언어적 전환' 이후의 현대철학에 와서야 언어는 철학의 중심적인 주제가 되었고, 인간의 이성과 의식을 이해하는 주도적인 실마리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고대 그리스철학, 중세철학, 근대철학의 언어관을 개괄한 후, 현대철학의 헤르더, 훔볼트, 카시러, 하이데거와 가다머, 비트겐슈타인, 데리다, 포퍼 등의 언어관을 살펴본다.

'심리학: 말과 마음의 관계-언어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권석만 서울대 명예교수)'는 언어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한다. 따라서 언어의 순기능을 활용하되 그 역기능을 잘 이해하여 언어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가 매년 개최하는 학술연찬회에서 발표됐다. 올해 학술연찬회는 1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신중일 기자

불교와 꽁트의 만남!! 꽁트를 통해 불교의 세계로 들어간다

불교 지식 꽁트

화제의 신간



무아

혼이 나간 듯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나는 나의 존재를 잊었다.
망아(忘我)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화석이 되어 버린 아가씨
설마 죽은 것은 아니겠지?

무아(無我) — 나(我)란 없다는 뜻. 논리적 바탕은 오온무아(오온은 무아), 제법무아(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또 무아는 아뜨만(ātman)을 부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초기경전의 주석서들에서는 대부분'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문에서-

글 윤창화 | 204쪽 | 9,5000 원

저자 윤창화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13회), 1999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한국고전번역원)을 졸업했다. 1980년 불교 전문 출판사인 민족사를 만들어 42년째 불교책을 내고 있다. 논문으로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 선사의 서간문 고찰」,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저서로는《왕초보, 선 박사 되다》,《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선불교》,《불교 사자성어》등이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아는 것이 힘이다!

불교 사자 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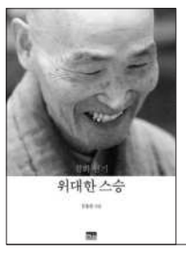
사자성어의 의미와 우리의 삶!
사자성어 60개를 두 달 만에 익힐 수 있다!



글 윤창화 | 224쪽 | 13,8000 원

몽중설몽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
회자정리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무명장야
-어리석음의 기나긴 밤
팔풍부동
-희로애락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자비무적
-자비 앞에는 원수가 없다
이고득락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다
실유불성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즉심시불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다

“승가는 화합”…청화 대종사 사상 망라



청화 전기
위대한 스승
김용출 지음
한울
2만9800원

일종식 · 장좌불와로 평생 수행
한국불교 대표하는 선승 평가
여러 수행법 회통 · 공존 추구
음성 · 영상 · 법문집 등 정리



2000년 3월 곡성 성륜사 조선당에서 〈현대불교〉와 인터뷰한 청화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하루 한 끼 일종식과 눕지 않는 장좌불와를 실천해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으로 꼽히는 청화 대종사(1924~2003). 스님이 이 같은 용맹정진에 나선 건 2600년 전 고타마 싯다르타가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떠나 6년간 극한의 고행을 한 데서 비롯됐다. 고타마가 무상대도를 얻지 못한 채 고행림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그린 회화 〈출산석가도〉를 1989년 남종화의 거장 아산 조방원에게 받은 청화 스님이었다.

청화 스님은 그때부터 거처하는 방 벽에 〈출산석가도〉를 붙여놓고 부처의 6년 고행을, 목숨을 내건 구도 정신을 되새기곤 했다. 석가모니의 정신으로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3년 4월, 스님은 횡성 배향산 토굴에 조방원의 그림 〈출산석가도〉와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 사본을 그대로 놔둔 채 옷가지만 챙겨 나왔다. 상좌들은 스님이 오랫동안 주석한 곡성 성륜사로 모시려 했지만 정작 스님은 고향 무안 혜운사로 걸음을 옮겼다.

청화 스님은 2003년 6월 서울 도봉산 광륜사에서 열린 보살수계식에 참석해 마지막 대중 법문을 했다.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지만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며 곡성 성륜사로 돌아왔다.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준비한 청화 스님. 상좌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열반 이후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라고 누누이 당부했다.

“올 때도 빈손이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을 호화롭게 할 필요가 없네. 그냥 거적에 말아서 일반 화장터에서 태운 뒤에 뿌려주소. 그렇게 해서 장례비용이 다소 남으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해주소.”

청화 스님은 그해 11월 12일 오후 10시 30분 성륜사 조선당에서 도일 스님을 비롯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납 80세, 법랍 56세로 눈을 감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대중과 화합 잘하고 살아가시게. 승가란 화합이네.”

청화 대종사 탄생 100주년과 열반 20년을 맞이해 스님의 행장과 사상을 망라한 〈청화 전기: 위대한 스승〉. 청화 스님이 ‘위대한 스승’으로 꼽히는 이유는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이면서 정통 불법의 부흥을 위해 일생을 바쳤기 때문이다.



청화 스님 창건사찰인 곡성 성륜사 조선당 앞에서. 현대불교 자료사진

스님은 정통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행법의 회통과 공존을 추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염불선의 대중화를 시도해 큰 주목을 끌었다. 우주만유는 진여불성뿐이고 마음이 곧 부처라는 반야의 지혜를 여의지 않고 수행한다면 모든 수행법이 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화선뿐만 아니라 염불선, 묵조선 등 여러 수행법의 회통과 공존 가능성을 열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간화선만을 유일한 수행법으로 여기던 조계종의 풍토 속에서 한때 외도로 치부돼 엄청난 비판과 핍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숱한 가시밭길 속에서도 스님이 염불선을 포기하지 않은 건 근기의 차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 더 많은 대중이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을 역임한 지선 스님은 “큰스님은 제가 보아온 수많은 수행자들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열심히 수행했던 스님이었다”며 “하루 한 끼 공양으로 법체를 유지하시며 장좌불와, 묵언으로 참선 정진하셔 전형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회고한다.

이 책은 청화 스님의 음성과 영상, 녹취록 등 다양한 형태로 보존된 800여 개 법문을 비롯해 〈정통선의 향훈〉 〈원통불법의 요체〉 〈안심법문〉 등 법문서와 〈정토삼부경〉 〈육조단경〉 등의 주역서, 스님의 은사인 금타 선사의 유작 〈금강심론〉, 각종 저술 등 수많은 자료 열람과 주요 도반 및 상좌와의 인터뷰를 망라해 발간했다.

2003년 논픽션 〈최옥란 평전〉과 2006년 〈독일 아리랑〉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저자는 논픽션그룹 ‘실록’ 멤버들과 함께 〈역사논픽션 3 · 1운동〉을 집필 중이던 2018년 두 권의 책을 통해 청화 스님을 처음 만났다. 스님의 행장뿐만 아니라 원통불교 사상과 염불선 등에 매료된 저자는 방대한 자료를 5년 동안 읽고 듣고 많은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 이를 통해 스님의 탄생부터 출가, 치열한 구도와 만행, 사상의 형성과 대중 법문, 태안사 및 성륜사에서의 하화중생, 6년간 미국 전도, 생애 마지막 시기와 열반 모습 등 청화 스님의 일대기를 과장이나 축소 없이 논픽션 작가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

한 자씩 간절한 발원을 필사하다



상월결사
108 원력문 필사본
사단법인 상월결사 엮음
조계종출판사
1만원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부처님 발자취 따라 인도와 네팔 1167km를 오직 도보로 43일 동안 순례한 위대한 여정이 있었다. 부처님이 길에서 먹고 자며 전법을 위해 걸어서 인도 전역을 다녔던 것처럼, 상월결사 또한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간절한 원을 세우고 그 실천행을 위해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간절한 원은 뚜렷한 목표의식과 실천행을 담은 ‘상월결사 108 원력문’을 탄생시켰다.

우리들이 목표로 정해 가고자 하는 행선지가 원(願)이라면, 가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바로 역(力)이다. 이를 합쳐 ‘원력’이라고 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원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실천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상월결사 108원력문’이 ‘발원문’이 아니라 ‘원력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월결사 108 원력문 필사본〉은 불교 신행 과정인 ‘신해행증’을 마음에 새기며 108개의 원력문을 총 여덟 번 필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든 페이지가 180도로 활짝 펼쳐지게 제작돼 어떤 페이지에도 글씨 쓰는 것이 편하도록 제작됐다. 뒤표지에 수록된 동영상 QR 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활용해 108배 및 필사를 할 수도 있다.

108개 원력을 눈으로 먼저 읽고, 소리 내어 독송하고, 마음속으로 음미하며 손으로 써 내려보자. 손에 힘을 주어 꾹꾹 눌러 쓰는 동안, 원력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다시 실천의 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임은호 기자

본성 생겨난 원인 일목요연하게



금강삼매경 강설
구선 스님 강설
도서출판 연화
3만원

〈금강삼매경〉은 부처님께서 법화삼부경을 설법하기 전에 먼저 설한 것이다. 금강삼매는 금강부동삼매로, 대적정의 적멸상에 머물러서 모든 생멸심을 분리시킨 상태다. 금강삼매에 들어가 있던 부처님께서 다시 깨어나 본성의 적멸상(寂滅相)과 적정상(寂靜相)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경전이 시작된다.

경북 영양 연화사 주지 구선 스님은 최근 출간한 〈금강삼매경 강설〉에서 본성이 생겨난 원인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두 권으로 출간됐으며 1권은 ‘금강삼매경 서품’ ‘무상법품’ ‘무생행품’ ‘본각리품’ ‘입실제품1’ 등으로, 2권은 ‘금강삼매경 입실제품2’ ‘진성공품’ ‘여래장품’ ‘총지품’ 등으로 구성됐다. 세 종류 연기가 시작된 원인과 절차, 즉 본원본제와 본연, 생멸문과 진여문이 생겨난 과정에 대해 말하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구선 스님은 “여래장연기의 원인과 절차에 대해 이토록 일목요연하게 말한 경전은 〈금강삼매경〉이 유일하다”면서 “〈금강삼매경〉으로 인해 본원본제의 일과 일심법계의 일, 여래장연기, 생명연기, 진여연기의 모든 과정이 정리되고 불의 종지가 세워진다”고 설명했다.

1983년 출가한 구선 스님은 진리와 깨달음을 다양한 사상서에 담아 출간했다. 이를 실생활에 접목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현재 경북 영양 연화사 주지이며 서울에서 선나명상원을 운영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비틀거리던 길 위에서 만난 그대



구도 시인 최명숙
최명숙 지음
도서출판 솟대
1만2000원

불자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아래 최명숙 대표가 자전 에세이 〈구도(求道) 시인 최명숙〉을 발간했다. 이 책은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회장 방귀희)가 펴낸 2023 ‘장애예술인 스토리텔링 북’ 〈누구시리즈 23〉으로 주인공 뇌성마비장애인 시인 최명숙 대표의 이야기가 담겼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학창시절, 직장생활, 불교와의 인연, 작가활동 등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희망차게 일궈온 최명숙 대표의 60여 년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1962년 10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최 대표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시골에서 구삭동이 조산과 난산으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뇌성마비장애를 갖게 됐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등에 업혀 듣던 어머니의 기도처럼 잘 자라, 보고 느끼고 혹은 늦은 깨달음을 적어가는 시인이 됐다. 시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다 보니 다른 삶의 길도 열려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25년 근무하였고, 현재는 장애인의 불교와 문화예술이 있는 모임 보리수아래 대표, 도서출판 도반의 편집주간으로 있다.

최 대표는 1992년 〈시와 비평〉 신인상을 받은 이후 2002년 구상솟대문학상, 2018년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다. 2021년 낸 시집 〈심검당 살구꽃〉은 한국불교출판협회의 올해의 10대 불서로 선정됐다. 임은호 기자

우리가 꼭 가야 할 성지 베스트 8
삶이 고(苦)일 때 붓다, 직설과 미술

250여 컷 명작 불교미술로 떠나는 ‘붓다의 생애’
성지의 현장감·풍부한 해설로
순례의 감동이 두 배로 다가온다!



청화 강소연 지음
432쪽 | 35,000원

탄생·사유·수행·깨침·전법·열반…
깨달음의 여정을 생생한 체험으로 따라가면
비로소 내 안에 갇혔던 괴로움이 사그라진다!

탄생·사유·수행·깨침·전법·열반 등 붓다의 생애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가 250여 컷의 명작 불교미술과 함께 색다른 감동으로 밀려온다. 성지의 현장감에 깊고 풍부한 해설이 더해져 성지순례의 감동을 두 배로 되살렸다. ‘존재의 고통’을 해결한 붓다의 생애를 생생한 체험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갇혀 있던 괴로움도 사라진다.

“붓다의 생애는 ‘고(苦)’라는 실존적 문제를 풀기 위한 여정이다.
성지 속 붓다의 족적을 따라가며 ‘존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보자.”
- 본문 중에서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43 보석을 찾는 이 2



▶한줄 요약
소문대로 이석원은 한센병 환자촌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이 기자 일행은 마침내 이석원을 만나러 간다.

그는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내가 묻자 오오스마 기자는 정말 못 믿을 정도로 생기에 찬 눈으로 말을 이었다.

-밤새 생각하다 보니 그 생각이 났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가봅시다. 가보면 그 어떤 해답이라도 나오겠지요.

오오스마 기자가 힘차게 말했다.

마을로 내려와 차에 올랐다. 나는 의외로 사건이 쉽게 풀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 한동안 어디를 어떻게 헤맨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환자촌이라니. 우선 느낌부터가 좋지 않았다. 일이 풀려가도 참 더럽게 풀려간다는 그런 생각이었다. 저절로 머리가 내저어졌다.

차가 너무 덜컹거려 나는 창 쪽으로 기우는 몸을 간신히 바로 잡았다. 마을을 거의 벗어날 때까지도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 계속 말없이 차창 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심 작가가 입을 열었다.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해요.

내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심 작가의 옆얼굴을 쳐다보았다.

-왜요?

-어제 그놈의 글 때문에 정신이 산란해서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의 그 글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화엔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그 절대라는 말이 잊히질 않아요.

-그는 불화를 절대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오오스마 기자가 끼어들었다.

-그렇겠지요. 그에게 있어 불화는 신앙의 대상물 아닙니까.

햇살 속에 물러가고 있는 안개가 자우룩이 주위를 감싸오고 있었다. 지나치는 산정마다 꽃들이 이곳저곳에 자우룩이 피어 있는 게 보였다. 심 작가는 불쑥 그렇게 말을 던져 놓고 더 말이 없었다. 그들 역시 난해한 문제이다 보니 질문의 우문성을 뒤늦게야 깨닫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잠시 후에야 심 작가가 오오스마 기자를 돌아보았다.

-도대체 종교와 예술이 무엇이기에…. 무슨 연관이 있기에 그가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그림이란 매개체를 통해 절대의 세계를 얻을 수 있다?

말이 되느냐는 듯이 심 작가가 말했다.

-그것은 종교가 먼저 왔느냐, 철학이 먼저 왔느냐, 아니면 그것들이 소멸된 뒤에 예술이 성립되었느냐 하는 말로 대답해야 할 성질일 것 같은데요.

내가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심 작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는데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물며 미인을 뽑는데도 진선미가 있는데 도대체 그가 말하는 절대의 잣대는 어디에 있다는 말인지…? 종교? 아니면 철학? 아니면 예술? 아니면 무조건적인 신앙의 대상물?

-그것은 문화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 때로는 미라는 예술이 선을 지향하는 종교보다도 가치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겠고 그 위에 철학이라는 진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 또 종교가 최하위로 밀려날 수도 있겠고. 예술이 그 아래 놓일 수도 있겠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융합된 것이며 시간적 관계가 아니라 개념적 관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야.

오오스마 기자가 말했다.

-하나로 본다?

심 작가가 되뇌었다.

-동시적으로 공존하며 얽혀있다는 것이지.

오오스마 기자의 말에 심 작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은 아니었다. 그는 말이 없었는데 그런 그를 보고 있노라니 이석원이 말하는 절대는 그런 관계마저도 단절된 곳에 있다는 생각이 나는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도 이제야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어쩐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이름도 모르는 읍내에서 주린 뱃속을 채운 다음 갈루촌을 향해 다시 차에 올랐다. 갈루촌에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다.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햇살이 눈에 부신데도 어쩐지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다. 사람 그림자라고는 없었다. 어쩐지 마을은 황폐해 보였고 불을 놓아 개간한 밭의 둔덕에도 잡풀이 어우러져 있어서 을씨년스러웠다. 마을로 들어서다가 오오스마 기자가 마침 등에 짐을 지고 산으로 오르는 중늙은이에게 물었다.

-이 마을에 사십니까?

늙은이가 날 선 눈으로 일행을 쳐다보았다. 이방인의 모습이 낯설다는 표정이었다.

-어디서들 오셨소?

-이 마을에 사시면 누굴 좀 찾을까 해서요.

-난 이곳에 살지 않소만 그래 누굴 찾으시오?

-혹시 이 부근에 나환자촌 아니 한센병 환자촌이 있습니까?

-한센?

-네. 아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다고 하던데…?

늙은이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리고는 휘적휘적 산기슭 쪽으로 걸어갔다. 네 사람은 멀거니 그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걸어가던 늙은이가 한순간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으로 가려거든 나를 따라오시오.

노인네가 산길로 들어섰다. 풀섶이 발길에 채였다.

-그곳을 알고 있습니까?

심 작가가 물었다.

-알고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소.

-아니 어디에 있기에 산으로 오르시는지…?

노인네가 돌아서더니 심 작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삽화 · 김상규

-그래 그곳엔 왜 가려고 하시오?

-누굴 좀 찾을까 해서요….

심 작가가 대답했고 노인네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왜 산속으로만 들어가십니까?

심 작가가 잠시 걷다가 노인에게 물었다.

-그곳이 이 산 너머에 있기 때문이오.

-이 산 너머에요?

-나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오.

보기엔 멀쩡한 모습이어서 별 거리낌 없었는데 그가 한센촌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 네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노인네가 희미하게 웃었다.

-걱정들 놓우. 난 한센병 환자는 아니니까. 그곳 병원에서 허드렛일을 보는 사람이라오.

-일전에 환자의 가족분들까지 함께 모여 살기에 한센인 환자촌으로 부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과는 달라서 한 지붕 아래에서 평생 같이 살면서도 전염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의술도 위생도 많이 발전되었다는….

심 작가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뭔가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거기 이석원이란 이름을 가진 스님이 기거하고 있습니까?

오오스마 기자가 능숙한 원어로 노인에게 물었다. 대학에서 언어를 전공했다고 하더니 정말 능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 사람을 찾소?

막상 노인네의 입에서 그를 안다는 말이 나오자 네 사람이 얼어붙었다.

-그럴 일이 좀 있어서….

가까스로 오오스마 기자가 대답했다.

-그 사람 처음엔 봉사요원으로 와서는 아예 이곳에서 눌러앉은 사람이라오.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에 그만한 사람도 없지. 제 나라도 아닌데 이 먼 곳까지 와서 어느 누가 피고름 질질 흘리며 썩어 문드러져 가는 환자들을 돌보누.

-그 사람이 이석원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까?

심 작가가 믿기지 않는지 물었다.

-그렇다오.

-이런 곳에 환자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심 작가가 그래도 못 믿겠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다시 물었다.

심 작가의 물음에 늙은이가 고개를 홰홰 내저었다.

-예전엔 이 산등성이가 온통 그들 천지였다오. 정부에서 여기로 환자들을 분산시켰는데 저 산 아래 동리를 보시오. 주민이 몇 명이나 사는가. 고향이니까 살고 있지만 골짜기 물이 어디로 흐르겠소. 그래서 마을이 저렇게 텅 빈 거라오.

구불거리는 산길을 얼마나 헤쳐 갔는지 몰랐다. 산정이 눈앞이다 싶었더니 곤두박질치는 산중턱에 나지막이 엎드린 움막들이 보였다. 움막이 눈에 들어오자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칠 않았다. 그러잖아도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판이었는데 저 움막이 한센병 환자들이 엉켜 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자 더욱 그랬다. 불어오는 바람 곁에도 병균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옹기종기 이마를 맞댄 움막 한 쪽으로 한 스무 평이나 될까? 슬레이트로 지어진 단층 건물이 보였는데 어찌나 낡았는지 금방이라도 폭삭 내려앉을 것만 같았다. 병원이라는 간판이 언뜻 보였는데 나는 그 건물 밖 산 중턱 중간 중간에 서 있는 낡은 집을 몇 채 발견하였다. 병원 앞까지 가서야 병원 앞뜰 가에 앉아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자 매우 당황하는 것 같았다. 더욱이 제 나라 사람들이 아니니.

-방문하는 객들은 방문록에 기재해야 하니 일단 병원 안으로 들어가야 할게요.

앞선 걷던 노인네가 돌아보며 말했다.

-그야 그래야 하겠습니다마는 이석원 씨를 바로 만날 수 없을까요?

오오스마 기자가 물었다.

-환자들을 방문하고 있지 않다면 병원 안에 있을게요. 조심해야 하오. 여기는 음성 환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양성 환자들만 수용하는 곳이니까. 절대 환자들에게 근접해서는 안 되오.

-알겠습니다.

심 작가가 약간 긴장된 어조로 대답했다.

노인네를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병원 안은 밖에서 보기보다는 제법 깨끗한 편이었다. 환자들이지 싶은 사람들이 몇몇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는데 나는 그 중 한 늙은이와 눈길을 마주치다가 깜짝 놀랐다. 온통 눈썹이 문드러지고 코가 내려앉았고 한 쪽 볼이 없는 사람의 시퍼런 눈길이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걸친 옷들이 화려하다. 붉고 푸르고 인도식 복장이 유별나 보였다.

어떻게 원장실로 안내되었는지 몰랐다. 수녀 한 명이 우리를 맞았고 원장실로 들어가니 오십대의 수녀가 앉아 있었다. 미국인 것 같았다. 자초지종을 얘기해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안내해 드리세요. 마가렛에게 간다고 갔으니까요.

-그러지요.

우리를 데려왔던 노인을 따라 넷은 밖으로 나왔다. 울긋불긋한 옷을 걸친 환자들의 눈길이 네 사람에게 쏠렸다.

밖으로 나온 노인네가 산 중간 중간에 지어져 있는 판잣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한참을 걷던 노인네가 입을 열었다.

-환자가 한정되었을 땐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지 않았는데 환자 수가 늘다 보니 사는 게 이렇다오.

-그렇다고 국가 보조도 있을 터인데…? 그리고 요즘에는 약이 좋아 일상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심 작가 역시 그런 점을 느끼고 있었던지 말끝을 흐렸다.

노인네가 자조적으로 웃었다.〈계속〉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㉒ 효와 축수



▶한줄 요약
효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효에서 자비와 보살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효심이 곧 '불심', 효행이 곧 '보살행'

연기(緣起)로 확장된 효

불교 우화 '세 사람의 천사'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상(無常)을 일깨우는 무수한 천사들을 만난다고 말해준다. 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어 지옥에 떨어진 이에게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어찌 그리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일생을 살아왔느냐! 세상에 있을 때 세 사람의 천사를 만나지 못했더냐?" 이에 "제가 그런 천사들을 만났다면 왜 생전에 착하게 살지 못했겠습니까"라고 답하자, 염라대왕이 말한다.

"그렇다면 주름이 많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기운이 없어 걸음과 말씨도 느린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 "그런 노인이라면 수없이 보았지요." "너는 그 천사를 만나고도,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어갈 테니 서둘러 선행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염라대왕은 이어 병든 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과 답을 하고 나서 말한다. "너는 이처럼 늙어감과 병듦과 죽음을 경고하는 세 천사를 만났으면서도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일을 게을리했기에 지옥 업을 받게 된 것이다." 세 천사는 나의 실존이며, 태어난 이상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철저히 직면하도록 일깨우는 가르침이라 하겠다.

이 우화는 싯다르타가 안락하고 풍요로운 태자의 삶을 떨치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사문유관(四門遊觀)의 상징적 계기를 나타낸다. 싯다르타가 동문 밖에서 만난 노인, 남문 밖에서 만난 병든 이, 서문 밖에서 만난 죽은 이는 특별한 사건을 당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거치는 삶의 과정에 놓여있었다. 그 누구도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 번민하던 그는 북문 밖에서 사문을 만나, 번뇌를 끊을 수 있는 길을 찾아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불교에서는 지금의 내가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수많은 생을 거치는 동안 모든 존재가 서로 인과의 원리로 얽혀있다고 본다.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자 온몸을 던져 절하였다. 아난이 그 이유를 여쭙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이 한 무더기의 뼈는 과거 전생에 나의 조상이나 부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끝없는 예로부터 나의 부모가 아닌 자가 없다. 일체 남자는 모두 나의 자부(慈婦)이고 일체 여자는 모두 나의 비모(悲母)이다.

부처님은 연기의 도리를 깨달아 일체 중생이 나의 생명을 있게 한 존재임을 새기도록 하였다. 따라서 효(孝)의 일차적 대상은 자신을 낳고 기른 부모이지만, 연기의 가르침에 따른 불교의 효 관념은 무한히 확장되어 있다. 〈범망경〉 보살계에 "효순(孝順) 하는 것을 계라 한다"고 하였다. 계(戒)의 정의를 효순에 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효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효에서 자비와 보살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세 천사에 대한 실존적 자각과 함께, 현세에서 만나는 부모와 노인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되어 보다 넓고 깊은 이해와 공경이 우러나온다. 효는 나의 부모를 넘어선 모든 부모와 일체중생에 대한 공경에 있으니 효심(孝心)이 곧 불심(佛心)이며, 효행(孝行)이 곧 보살행(菩薩行)인 것이다.

오십 세에서 백 세까지

무병장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바람이다. 따라서 육십갑자를 한 바퀴 돌아 태어난 간지의 해를 다시 맞으면, 노인으로 진입하여 장수를 기원하는 축수의례(祝壽儀禮)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갑이 지나 수의(壽衣)를 마련하는 풍습도 같은 뜻이다. 수의에 목숨 '수(壽)' 자를 쓰듯이 장수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수의를 미리 만들어놓으면 장수한다"는 담론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백세를 기약하는 의복'이란 뜻으로 수의를 '백세의금(百歲依衾)'이라 부르기도 했으니, 자식이 부모의 수의와 관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 곧 효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환갑을 꺼리는 관념도 있었다. 고려 말 충렬왕이 환갑이 되는 해를 맞았을 때, 역술가가 '환갑은 재앙이 많은 해라 몸을 조심하고 덕을 닦도록' 충언하였다. 서민층까지 환갑잔치가 일반화되었던 조선 중기에도 성혼(成渾)의 문집에 '올해가 61세이니 세속에서 꺼리는 이른바 환갑'이란 내용이 전한다. 수십 년 전까지 '환갑을 하면 좋지 않다' 하여 한 해 앞당겨 잔치하거나, 환갑잔치를 '산 제사'라 부르고 당사자를 '산 조상'이라 하여 조상숭배의 맥락을 따르는 풍습도 있었다.

이는 환갑이 지나면 사주팔자의 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서, 육십갑자를 넘어선 시점을 '생의 일단락'이라는 의미로 여겼기 때문이다. 황제가 제정한 연호(年號)나 육십갑자로 연도를 나타내던 시절에, 60년이라는 시간은 허물어졌다가 재생하는 반복의 주기였다. 이처럼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 환갑은 경사스러운 날인 동시에, 육십갑자를 넘어선 데 대한 조심스러움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통도사 팔상도의 '사문유관상' 중 남문(병자)과 서문(상여) 장면. ©성보문화재연구원

고려, 불교 '축수의례' 성황
공민왕, 살생없는 생일 잔치
1천명 스님에 공양 올리기도
보살계에선 '효순이 곧 계'



회갑연 장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런가 하면 〈예기〉에 경로의 지침을 상세히 밝혀둔 점이 흥미롭다. 이를테면 50세부터 노화가 시작되니 좋은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60세에 이르면 고기반찬이 필요하며, 70세에는 가외 반찬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명주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다고 하였다. 점차 허약하고 영양이 부족해지니 음식과 보온 등에 신경을 쓰도록 연령별 지침을 만든 것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대우가 높아짐을 지팡이를 통해 드러내기도 하였다. '오십장어가(五十杖於家)'라 하여 50세에는 집안에서 지팡이를 짚다가, 60세가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70세에 이르면 나라에서, 80세에는 조정에서 지팡이를 짚는다고 하였다. 이때의 지팡이란 노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의미하여, 집안 중심의 노인에서 점차 마을과 나라는 물론 임금이 있는 조정에 이르기까지 대우가 확장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아울러 50~60대의 노인에게는 당사자의 부역과 병역을 면해주지만, 80대 노인이 있는 집에는 아들 한 명에게 국가 부역을 면제하고, 90세의 노인이 있으면 집안의 모든 부역을 면제시켜주어 노인 봉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의 경로정책은 기로(耆老)·양로(養老)의 문화에서 살필 수 있다.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을 우대하기 위해 기로소(耆老所)를 설치하고, 이들에게 임금이 지팡이와 의자 등을 하사하였다. 봄·가을에는 장수를 축하하는 기로연(耆老宴)을 열어, 참석자들이 축하의 시를 지어 시축을 만들고 잔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

일반백성에게는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다. 매년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궁궐과 지방관아로 청해 경로잔치를 열고 선물을 내렸으며, 노인직(老人職)·수직(壽職)이라 하여 80세가 넘은 노인이라면 누구든 품계를 주었다. 백 세가 넘으면 비록 평민이라도 종1품 숭정대부의 품계를 주었으니,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경로 풍습이었다.

부처님과 함께한 축수의례

고려 현종은 자신의 탄신잔치 대신, 먼저 떠난 부모를 기리며 축수도량(祝壽道場)만 간소하게 열었다. "나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앞으로는 봉양할 길이 없다. 매양 부모의 은공을 생각할 때 추모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거니, 어찌 슬픈 생각을 억누르고 도리어 축하를 받겠는가. 이제부터 진상하는 축하물자를 모두 금하고, 오직 축수하는 도량만 두어 행하라"고 명한 것이다.

지금도 자신의 생일에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문화가 있듯이, 1012년에 현종은 어린시절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며, 모든 하례를 금하고 불교의례만 간략히 봉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시대에는 왕의 생일에 무병장수를 바라는 축수도량·축수재와 함께, 많은 스님에게 공양을 대접하는 반승(飯僧)이 성행하였다.

고려 말 공민왕은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열면 반드시 살생이 따르니, 대신 1천명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에 회암사에 거둥하여 직접 향로를 받들고 승방을 돌며 일일이 스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동행한 왕비와 세자들도 함께 밤새워 불공을 올렸다. 국운이 위태로운 시기라 불법에 의지하는 뜻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신(七星神)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풍습도 민간의 전유물만이 아니었다. 불교에서는 칠성을 불교적으로 재편한 칠성여래를 함께 모시고 있어, 스님들을 청해 칠성신에게 왕실의 장수를 비는 도량을 베풀기도 한 것이다.

이때 이규보는 "…청정한 법당에서 법식의 자리를 마련하고, 큰스님들을 청해 비밀의 법장을 펼칩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감싸주심에 의지하고 신령의 보호를 입어, 강건하고 굳세어 다함 없는 수명을 길이 누리시고, 백성이 화목하여 가지런한 세계를 이어가도록 하소서"라는 내용의 '국복북두연명도액(國卜北斗延命度厄) 도량문'을 지어 올렸다.

조선왕조는 불법에 의지하려는 마음과 유교이념의 명분이 상충하는 시대로, 축수재 또한 폐지와 봉행이 거듭되었다. 이에 조선 말 조재삼(趙在三)은, "임금의 탄신일에 훈구대신들이 절에 가서 재를 마련해 축수하던 관습을 성종 때 혁파했으나, 지금 불좌 앞에 여전히 '주상전하만만세(主上殿下萬萬歲)' 일곱 자를 쓴다"고 하였다. 조선의 수많은 원당(願堂)이 각종 축원을 위해 세워졌고, 장수 복락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 소망이기에 비공식의 축수재는 더 많이 행해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근대기에는 효를 다짐하는 '보은회'가 결정되기도 했다. 1915년 경성 소림사(小林寺)에서 대보부모은중회(大報父母恩重會)를 구성해, 도장까지 찍어가며 부모 은혜 갚기를 맹세하고 지성으로 불전에 축원하면서 효를 다짐한 것이다. 소문을 듣고 뒤이어 입회하려는 각처의 선남선녀가 줄을 이었다 한다. 주기적으로 법회를 열어 보은의 뜻을 다짐한 뜻이 가상하나, 구성 면면을 보면 재력가들이 교류를 위해 결성한 모임의 성격이 짙다.

왕실과 지배층의 효와 축수의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었다면, 서민층의 효는 부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법하다. 〈범망경〉 보살계에 '효순이 곧 계'라 했듯이, 대다수 민중의 마음은 낮게 흐르며 대지를 적시는 물처럼 자연에 가깝기 때문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윤인수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소개합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22 육도윤회도(2)



▶한줄 요약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300년 전이건, 700년 전이건 간에 과보는 온다. 그 업이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업은 백 년 전의 것이건 천 년 전의 것이건 발동한다. 붓다는 "업을 없앨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다.

업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천년 전통의 업장소멸 경전으로 유명한 〈지장경〉. 〈지장경〉은 오랜 세월 동안, 악업 중생의 구제와 교화의 최전선에서 그 역할을 해왔다. 교화되기 힘든 하(下) 근기 사람들의 무지한 악습은 어떻게 타파되는가? 경전 속에도 이러한 질문이 나온다. 지옥으로 물밀 듯 밀려들어 오는 악업 중생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천왕이 묻는다.

악업 중생, 구제불능 아닌가요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오랜 겁을 지내오면서 그와 같은 큰 서원(大願)을 발했는데, 어찌해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도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또 광대한 서원을 발하옵니까?"

자각하지 못하고 악업을 세세생생 반복하는 중생들이 너무나 많아, '미래 겁이 다하도록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지장보살이 큰 서원'을 세웠으나, 불가항력 아닌가요? 불가항력으로 보이는 저 무수한 악업 중생들에 대해, 역시 굴하지 않고 거듭 큰 서원으로 대적하는 지장보살이 안타깝다'고 호소한다. 이에 세존은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내 이제 그대들과 미래 현재의 하늘과 인간 무리들에게 널리 이익을 주기 위해,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염부제 안 생사의 길에서, 일체의 죄고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시키는 자비의 방편에 대해 말하리라"라고 한다. 세존은 지장보살이 일체 죄업 중생을 어떻게 구제하는 지 그 방편을 일러준다.

지장보살은, 만약에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묵은 앙화로 단명하게 되는 과보를 말해보고/ 만약에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가난해 고초 받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공작이나 비둘기 · 원앙새의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사나운 말을 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끼리 다투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훼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에 부스럼이 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게 찌그러지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음식에 절도가 없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에 병이 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게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를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산이나 숲에 불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전후 부모에게 행패부리는 자를 만나면 내생에 바꿔 나서 매맞는 과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그물로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골육 간에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후략) ('염부중생업감품(염부제 중생이 받는 업보)' 제4 〈지장경〉)

〈지장경〉의 '염부중생업감품'을 보면 중생들이 흔히 짓는 악업들의 종류가 나열되고, 그것의 과보가 적나라하게 공개된다. 즉, 어떤 (악업의) 원인을 지었을 때, 어떤 (고통의) 과보를 받는지 그 인과의 법칙(원리 또는 패턴)이 나와 있다. 그 법칙은 '(A)하면 → (A)당한다'라는 '한대로 받는다'는 철칙이다.

내용인즉슨, 살생해 남의 목숨을 뺏으면, 다음 생에 내 목숨이 짧아진다(단명한다), 도둑질해서 남을 가난하게 하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다, 성욕의 부정행위를 하면 축생으로 태어난다(식욕과 성욕 위주로 활동하는 동물로 몸 받는다), 성을 잘 내면 못생기게 태어난다(나와 남의 얼굴을 험악하게 만드니 험악한 얼굴을 받는다), 인색하게 남에게 하면 내가 구하는 바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남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사냥으로 상대를 놀라 미치게 해 목숨을 잃게 하면 (그 과보로) 내가 미쳐 헤매다 죽는다 등.

'같은 에너지의 윤회'라는 철칙

〈지장경〉에서 말하는 업의 원칙은 '원인과 과보가 같다(동격이다)'이다. 가장 기본적인 업의 원칙이 '(A)하면→ (A)당한다'이다. 그런데, 그런데 '(A)→ (AB)'의 경우로, 원인과 조금 다른 형태의 과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A)→ (AAA)'의 경우로 원인의 세 배 가량의 폭풍 과보가 오는 경우도 있다.

〈지장경〉서 말하는 업의 원칙은
'원인으로 인해 받는 과보 같다'
악업 과보 이어지는 고통의 연속
'업보 고통서 벗어나라' 가르침

이에 대해 〈해탈장엄론〉에는 업의 에너지가 크게 3가지 형태로 전개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이숙과(異熟果, 자신이 한 행위가 숙성돼 또 다른 형태의 결과로서 돌아온다), 두 번째는 등류과(等流果, 저지른 원인과 유사한 과보를 받는다), 세 번째는 증상과(增上果, 악업이 더욱 진행된 결과로서 내게 돌아온다)이다.

예를 들면, 도둑질의 경우를 인용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힘으로 강탈한 탈취, 아무도 모르게 남의 것을 훔치는 은밀한 탈취, 물건의 길이나 무게 등을 속인 기만적 탈취 등으로 나뉜다. 도둑질의 업은 3가지 과보로 자신에게 돌아오는데, '이숙과'의 과보인 경우 아귀로 태어나고, '등류과'의 과보인 경우 인간계에 태어나더라도 가난해 고통을 받고, '증상과'의 과보인 경우 유달리 서리와 우박이 많은 곳에 태어난다"라고 한다.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과 중음 기간의 중생(六道四生中中有情衆), 수륙 판화의 부분. 육도의 세상이 하나의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장경〉에서 말하는 업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등류과'에 해당하는데, '저지른 대로 (같은 형태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다. 우선 이 '한대로 받는다'의 업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형태'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대로 받는다'라는 표현보다 '같은 에너지의 형태가 끌려온다'라고 하면 이해가 더 쉽겠다.

예를 들면, 내가 짝궁을 때렸다면, 내가 꼭 그 짝궁에게 다시 맞지는 않는다. 엉뚱한 다른 사람한테 나는 조만간 맞을 수 있다. 즉 내게서 나간 '후려치는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끼리는 결속되는 원리에 따라, 돌고 돌아 다시 그 에너지를 가진 나에게 돌아온다는 원리이다. '후려치는 에너지'가 꼭 사람을 통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같은 '후려지치는 에너지'의 형태로 돌아오기도 한다.

우리가 어쳐구니없고 또는 난데없다고 여기는 모든 상황의 껍데기는 두고, 그 안의 에너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드디어 '인과의 법칙'(위빠사나 제2단계)에 눈 뜨게 된다. 업의 에너지는 껍데기(육안으로 보이는 유형의 물질) 상관없이 자재(自在)하다. 그렇기에 몸이 죽어도 업은 남아 다음 생으로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업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면 편안한 상황이 오고, 조바심 내는 마음으로 살멸 계속 조바심 내는 상황이 온다.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온다. 열심히 기도하면 계속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다 이룬 듯 평정심으로 기도하면 평정한 상황이 온다.

사랑받지 못하는 결핍감에 머무르면 계속 결핍된 상황이 일어나고, 행복하고 감사한 충만감에 머무르면 충만한 상황이 일어난다. 배신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배신하는 에너지의 사람들(도반이나 부모, 형제)로 들끓게 된다. 즉, 나의 에너지에 대한 각성(알아차림)이 업을 이해하는 또 업을 소멸하는 첫 걸음이다.

인과의 과보 깨우쳐주려고

그렇다면, 지장보살이 중생이 가장 흔히 짓는 악업과 그 과보를 구구절절 나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악업 중생을 정죄하고 벌주려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의 죄고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겨, 미래의 무량겁으로 업의 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음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므로 또 거듭 원을 발하느니라. 이러한 보살은 사바세계 염부제 안에서 백천만억 방편으로 교화하고 있나니라."

지장보살이 이렇게 악업의 과보를 경고하는 이유는, 먼저 고통 속의 악업 중생이 불쌍하기 때문이다. 악업 중생이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악업의 인(원인)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초래한 악업은 본인이 받아 계속되는 고통의 도가니이니, 제발 그 인과를 알아 그만 악업을 짓고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보는 언제 오는가? 가깝게는 방금 전 또는 어제, 몇 주 전의 업이 바로바로 돌아온다. 그리고 멀게는 3생 이전의 업 역시 현생에 과보로 오는 경우가 많다. 다시 강조하지만, 업은 물질과 시공을 초월한다. 그리고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300년 전이건, 700년 전이건 간에 과보는 온다. 언제 오는가? '조건이 될 때' 온다. 그 업이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업은 백 년 전의 것이건 천 년 전의 것이건 발동한다. 붓다는 "업을 없앨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다. '알아차림(각성의 힘)'으로!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불기 2568(2024)년 갑진년(甲辰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계묘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8(2024)년 갑진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제주지사	010-3697-2441	김용덕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이안의 Media In Buddha 23 드라마 〈연인〉



▶한줄 요약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연인〉은 병자호란 속에서 백성들의 끈질긴 생존 서사와 사랑 이야기를 담아 화제가 됐다.

전쟁 속 '삶의 가치'를 되짚다

조선시대에 나라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던 큰 전란으로는 왜란과 호란이 있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이었던 왜란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였고, 이 전쟁에서 우리 역사는 왕이 아니라 두 지도자를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기억한다. 성웅이라는 칭호를 받은 이순신 장군과 승려로서 의승도대장이라는 공직을 맡아 전투에서도 큰 공을 세우고 전후 수습에도 외교관으로서 활약한 사명당 유정 스님.

그런데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나라였다. 승려가 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했다. 국가에서 발행한 도첩이라는 증서 받아야 되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도첩제가 폐지되었으니 도첩을 받은 정식 승려도, 제대로 국가로부터 관직을 받은 승려도 사명당이 마지막이다. 그렇다고 승려가 사라진 것도, 절이 없어진 것도, 불교에 대한 민중의 믿음이 싹 없어진 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승려는 있었고, 절도 있었다.

조선의 왕과 관료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그 전쟁의 여파로 명나라가 청나라에 밀리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점점 더 허황되고 모자란 꼴을 보이다 1627년에는 결국 또 침략을 받게 되었다. 명나라를 꺾은 후금의 침략으로 정묘호란을 겪고도 갈팡질팡하다가 1636년에 더 강성해진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도록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를 벗지 못하고 병자호란까지 겪었다.

그리고 왜란과 달리 호란에서는 영웅도 없었고, 승전보도 없었다. 왕과 관료들은 남한산성으로 달아났다가 겨우 한 달만에 청 태종에게 왕인 인조가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항복을 했으니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굴욕적인 패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고도 조선은 망하지 않았다.

임진왜란에서 그토록 승병의 덕을 보고도 도첩제를 폐지한 왕과 관료들이 농성하던 남한산성에는 여전히 절도 있고 승병도 있었다. 도첩을 내리지 않았는데 승려가 있는 까닭은 조정은 돈 한 푼, 사람 하나 들이지 않고 그 성을 쌓고 관리하고 지키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승병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쪽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지위를 보장할 제도조차 없애놓고 불교를 더 쥐어짜는 탄압을 하다가 막상 호적에게 쫓기자 또다시 남한산성에서 승려들을 방패삼으려 했으니 참 못난 조정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도첩도 받지 않아 사실은 불법 신분인 남한산성의 승려들을 나라를 지킬 기적의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호국으로 이름 높아 온갖 전설을 만들어 낸 사명 대사처럼.

패전의 책임은 조정에 있었으나 그 피해와 고통은 모든 백성이 감당해야했다. MBC 드라마 〈연인〉은 이런 패전국 조선에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감당해야 했는지를 상상한다. 〈최종병기 활〉(2011년, 김한민 감독)이나 〈남한산성〉(2017년, 황동혁 감독) 같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드라마는 더 긴 호흡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굴곡진 인연을 만들어낸다.



드라마 〈연인〉의 한 장면. 병자호란 속에서 백성들의 끈질긴 생존 서사와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왜란 끝나고 태어났을 양반집 애기씨 길채(안은진)는 짝사랑하는 도령에게는 연모를, 자신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선비 장현(남궁민)에게는 새침을 내보이는 청춘이다. 양반집 애기씨니 먹고 자고 입는 것 걱정할 형편도 아니고, 전쟁도 끝난 시기니 세상 불안할 것도 없는 상황인 줄 알았으니, 짝사랑하는 도령이 친구랑 혼약한 사이라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 같을 나이였다.

그런데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겨우 한 달만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적을 막으려다 죽고, 장정들 없이 노인과 어린이와 여성만 남은 마을은 청나라 군대의 노략질 앞에서 털리고 밟혔다. 그리고 적국에 인질로 끌려갔다. 왕실 사람인 소현세자와 봉림대군만 인질로 간 것이 아니라 50만에서 60만 명을 헤아리는 조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전쟁을 책임져야할 관료들이나 군사로 나섰던 남성들만이 아니라 여성들까지 끌고 간 것은 청나라의 침략 목적이 단순히 명분과 화친이 아니라 '재물과 여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 이 여자들이 인질이 되어 정절을 잃게 된들 그 책임은 전쟁이 벌어질 상황을 만들고, 제 나라 백성보다 사대하는 명나라를 지키겠다고 외교적으로 자충수를 두고, 이미 벌어진 전쟁에서는 이기는 길이나 명예롭게 죽는 길보다 굴욕을 겪고도 살아남아서 백성으로 정권 유지하는 값을 치르겠다고 한 국가에게 있다.

병자호란 포로로 끌려간 조선 여인들
다시 귀환해도 돌아온 건 멸시와 박해
길채를 마지막까지 지킨 건 장현의 순애
'화중생연' 같은 주인공들의 모습 '애잔'

그러나 여성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리라고 믿지 않았다. 여성들은 '더럽혀진 몸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며 적의 손길이 닿기 전에 바다에 몸을 던지고 절벽으로 뛰어내렸다. 이토록 여성들을 몰아붙인 것은 살아 돌아가서 감당할 치욕이 적의 손길보다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주인공 길채는 피란길에서 다른 여성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 때 어떻게든 살아남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시장까지 팔려가고서도 돌아온다. 사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돌아올 길은 어떻게든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었다. 액수가 크더라도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속환비'를 내면 살려낼 수 있었지만 사내가 아닌 여성은 속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여성에게만큼은 치욕이 되는 조선에서 남성들은 돌아온 여성들을 버렸다. 오랑캐에게 잡혀가게 만들었으니 미안해하고, 어떻게든 살아 돌아왔으니 반가워하는 것이 가족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절을 잃었다고 이혼을 요구하고, 집안 망신이 되지 말라며 자결을 강요하는 것을 이미 병자호란 전에, 임진왜란을 겪었던 조선의 여성들을 알고 있었다.

장현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목숨을 놓아야 했던 비극을 겪은 업을 지고 산 청년이었다. 그 업을 끊는 것이 세상을 온당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큰 화두라는 것을 어머니를 잃으며 알게 된 그 청년은 다른 조선 사내들과 달랐다. 길채가 짝사랑하던 연준이 의병을 일으켜 임금을 구하자고 나설 때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왜 백성이 임금을 구해야 하느냐고 어깃장을 놓는다.

대신 장현은 사랑과 자비로 연인을 지키고, 싸우고, 구한다. 첫사랑도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길채가 오랑캐에게 쫓겨 칼날 앞에 서게 될 때, 사냥놀이 내몰려 화살받이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 길채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새장가 들어 새살림 차리고 살다가 적국에서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고향에 돌아온 아내에게 정절을 지켰는지 묻을 때, 길채의 아버지가 자기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욕받이가 된 상황에서 잠자리에 든 딸을 목 졸라 죽이려 할 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도 조선 사대부들이 명분이라며 갖다 붙이는 정절을 거부하고 먼저 이혼을 선언할 때, 장현은 길채를 지지한다.

사실 너무 많은 여성들이 끌려갔고,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들도 많았지만 강하게 버티어 살아 돌아온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조선 사내들은 이 여성들에게 이혼이나 죽음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인조는 속환된 부인과 이혼하는 것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어찌나 사내들이 정절 타령을 해대며 반발을 했던지 다음 대 왕위를 이은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이혼을 허용했다. 길채의 이혼 선언도, 길채의 곁에 선 장현의 지지도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판타지일지도 모른다. 사명대사가 이적을 보이며 왜군을 겁에 떨게 했다던 일화처럼. 그러나 사실로 기록된 진실도 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건립하는데 큰 역할을 한 오대산 월정사의 주지 정념 스님은 "실록을 보관하는 오대산 사고가 1606년 조선 조정의 명령으로 산중에 지어질 때 건물터 자리는 사명당이 수행하던 거처"라며 "오대산 사고본이 원래 보관됐던 자리인 월정사로 돌아오게 된 건 사명당의 호국정신과 호국을 위한 행적들이 지금 시대 발현된 것"이라고 했다.

왜란이 끝난 후 일본에 외교사절로 가서 도쿠가와와 담판해서 납치 조선인 3000여 명을 무사히 귀국시켰던 사명당 스님이 이후 수행하며 머물던 장소가 왕조실록이 보관된 사고 건물 터 부근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 조정이 외적의 침입에 안전한 실록의 보관처를 찾기 위해 나라 안 심산유곡을 수소문할 때 사명 대사가 수년 동안 은거하며 수행했던 오대산을 길지라고 적극 추천을 해서 서고가 들어서게 됐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절에 전해져 왔다고 한다.

월정사는 그 뒤 주지가 유사시 승병을 동원할 수 있는 왕의 밀부를 지난 수호총섭이 되어 300년간 실록의 관리 책임을 맡았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이 찬탈해갔던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되찾아왔고,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을 견인해 실록과 의궤를 환지본처했다. 이 과정을 정념 스님은 "'화중생연'이란 불가의 게송을 지침 삼아 이끌어 왔다"고 했다. '화중생연'은 불꽃 속에서도 연꽃을 피운다는 뜻인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수행되고 단련돼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도 담겼다.

실록이 돌아오는 것처럼 오랑캐에게 잡혀갔다 돌아온 여성들도 연꽃처럼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못난 조선은 이제 없다. 남한산성에 주춧돌을 놓았던 승려들과 살아 돌아와 스스로 연꽃이 된 여성들에게 드라마 〈연인〉은 왕조 중심의 전쟁사보다는 가치있는 삶을 이야기 하는 사극으로 기억될 것이다.

〈영화평론가〉

일일시호일

헛디딘 발끝 한 번에
산산이 부서진 고향 생각

추석날 가파른 계단서 실족…두개골 · 허리 골절에 중환자실
밀린 병원비 3000만원…"수술 불가피" 권고에도 엄두 못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선정서 보는 경계가 가장 정확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㊹ 수음(受陰)이 다하는 과정에서

〈원문〉 아난아, 선남자가 삼마제와 사마타를 닦는 가운데 색음(色陰)이 다한 자는 부처님의 마음을 보되 밝은 거울 가운데 영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아서 부처님 마음을 얻은 것 같으나 능히 쓰지 못하는 것이 가위눌린 사람이 손발이 제대로이고 보고 듣는 것은 의혹할 게 없으나 마음이 가위눌림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으리니 이를 수음(受陰)의 구우(區宇)라 하느니라. 만약 가위눌림의 허물이 쉬면 그 마음이 몸을 떠나서 그 얼굴을 반대로 보게 되며 가고 머무는 것이 자유로워 더 이상 장애가 없으면 수음이 다했다고 하느니라. 이 사람은 곧 능히 견탁(見濁)을 초월하리니 그 연유를 관하건대 허명(虛明)한 망상이 그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아난아, 그 선남자가 색음이 다하고 수음이 다하는 가운데 있으면 큰 빛이 밝아짐을 얻어 그 마음이 일어남에 안으로 억누름이 분을 넘으며 홀연히 거기에서 한없는 연민심이 일어나 모기나 등에 따위를 보고도 마치 갓난아기처럼 생각하여 마음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일어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리라.

〈강해〉 〈능엄경〉 '변마장'의 특징은 삼마제와 사마타를 닦을 때 오음(五陰)이 색음(色陰)부터 차례로 다해지면서 신비한 경계가 나타나는데 이 경계를 잘 못 알고 속아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는 내용이다.

먼저, 색음이 다하고 수음(受陰)이 없어지려는 단계에 이르면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부처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여 내 마음이 부처님이 마음이 된 것 같으나 가위눌린 사람이 손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아 그 마음이 응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음이 몸을 떠나 몸 밖에서 자기의 얼굴을 본다고 하였다. 이는 유체이탈(幽體離脫)현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다. 흔히 말하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경우와 같은 말이다.

유체의 유(幽)는 유명계(幽冥界)를 뜻하는 말이다.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한다. 이 상태를 유(幽)라 한다. 다시 말하면 유는 저승이다. 가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을 두고 저승에 갔다 왔다고 한다. 이런 경우를 요즈음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근사체험(近死體驗)을 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으나 죽음을 가까이해 본 체험이라는 말이다. 이때 몸 밖으로 나간 혼이 자신의 몸을 보는 수가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던 사람이 숨을 거뒀다가 깨어나 피투성이가 된 자기 몸을 몸 밖에서 전체 모습을 보았다는 근사체험의 이야기도 있다.

경전에는 수음이 없어질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음의 빛이 몸 밖으로 나가 자기 얼굴을 반사하여 그 얼굴을 본다는 말이다. 또 하나의 예는 마음에 한없는 연민심이 일어나 모기나 등에 따위의 미물을 보고도 불쌍하다고 여겨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비마(悲魔)라고 하기도 한다. 지나친 슬픈 생각으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 전통 강원에서 공부하는 학인으로 있을 때, 노스님 한 분이 마당을 걸어가다 땅바닥에 개미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오음이 차례로 하나씩 다할 때 오탁을 하나씩 초월하는데 수음이 다할 때는 견탁(見濁)이 초월된다고 하였다.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사견(邪見)이 무성하게 일어나 세간을 흐리게 하고 어지럽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견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정(禪定)을 다른 말로 정수(正受)라고 하기도 한다. 글자 그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외부의 경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선정의 마음에서 보는 경계가 가장 정확하다는 말이다. 선정을 닦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경계가 각기 오음이 다해감에 따라 불가사의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계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변마장의 이야기는 매우 신기한 게 많다. 이는 내적으로 마음을 닦는 수행이 세속적 외부 환경에서 체험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내공(內功)이 있음을 말해주는 이야기들이다. 비록 중생이 망상으로 살지만, 이 선정의 수행으로 망상이 정화될 때 신비한 내적 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모든 경계 삼각거울로 본다면…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㊹ 32진로 수행법 중 삼각형 그리기

중심에서 영대로 숨을 들이쉬고 영대에서 명문으로 숨을 내쉰다. 그렇게 하다 보면 등줄기에서 열감이 일어난다. 영대와 명문이 열감으로 이어지고 중심과 명문도 열감으로 이어진다. 삼각형을 세울 때는 기점의 연결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반듯하게 서야 된다. 손가락으로 수인을 잡아주면 기울어졌던 삼각형이 반듯하게 세워진다. 양쪽 3지, 4지 셋째 마디를 직각으로 굴곡시키고 그 상태에서 둘째 마디도 직각으로 굴곡시킨다. 그런 다음 둘째마디를 서로 맞닿게 한다. 양쪽 5지와 엄지 검지는 세워서 붙인다. 손가락 수인을 이런 모양으로 지어주면 검지와 5지에서 두 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중심 높이로 수인을 들고 두 개의 삼각형을 내려다본다. 이때 시선은 반개를 한다. 삼각형이 반듯하게 서 있는 상태로 인식되면 눈을 감는다. 중심, 영대, 명문을 연결하는 삼각형을 주시한다. 그 상태에서 '옴' 자 발성으로 중심, 영대, 명문 기점을 울려준다. 발성이 끝나면 삼각형을 주시한다. 그러다가 삼각형의 느낌이 희미해지면 다시 '옴' 자 발성을 해준다.

두 번째 운용 경로는 중심, 중극, 명문 라인이다. '옴' 자 발성으로 운용한다. 이 라인을 운용하면서 갈비뼈 순화를 한다. 2선정 3선정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심 분리가 이루어진다. 중심이 표면과 이면으로 분리되고 7식이 발현된다. '옴' 자 발성으로 중심, 중극, 명문을 동시에 울려준다. 중심에서 시작된 발성의 진동이 명문과 중심을 동시에 울리도록 하면서 세 기점을 서로 연결한다. 중심과 명문을 연결하는 사선을 지켜보면서 중심과 중극, 중극과 명문을 연결하는 양쪽 경로를 함께 주시한다.

세 기점을 연결하는 경로를 경대(鏡臺)로 삼고, 세 기점이 연결되면서 생겨난 삼각 공간을 거울로 삼는다. 그런 다음 안팎으로 접해지는 일체의 경계들을 거울로 비춰본다. 일치되는 현상들도 삼각 거울로 비춰보고 습성이 발현될 때도 삼각 거울로 비춰본다. 의식 · 감정 · 의지로 접해지는 모든 경계들을 삼각 거울로 비춰본다. 삼각 거울로 조견을 하게 되면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중심, 중극, 명문 경로를 운용하면서 갖추게 되는 부동심이다.

두 번째로 세워지는 삼각형은 네 종류 에너지가 합쳐진 것이다. 중심에서 집약되는 후천기와 명문의 쿤달리니 에너지, 교감신경 에너지, 척수액의 파동으로 생성되는 슈슘나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삼각형 자체가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삼각형의 내부 공간은 마음 거울로 쓰인다.

세 번째 운용 경로는 중심, 중극, 하단전 라인이다. 이 라인의 운용을 통해 한물건을 형성한다. 한물건은 후천기와 선천기, 밝은성품이 합쳐진 것이다. 밝은성품은 본성을 자각했을 때 인식할 수 있는 에너지이다. 때문에 세 번째 삼각형은 견성오도 이후에 운용하는 경로이다.

가슴바탕의 철벽이 허물어지면서 본성을 인식하게 되면 중극에서부터 밝은성품이 생성된다. 반신소주천을 하면서 갈비뼈 순화가 이루어지면 몸통 전체가 텅 비워진다. 마치 텅 빈 항아리와 같다. 그 상태에서 밝은성품이 생성되면 빈 공간을 채우게 된다. 그러면서 하단전으로 내려온다. 그때의 형상이 있다. 연기 같은 형태의 백색 에너지가 꼬물꼬물 내려오면서 하단전에 응결된다. 하단전에 응결된 에너지는 세 종류의 에너지가 합쳐진 것이다. 중심의 후천기와 중극의 선천기, 본성에서 생성되는 밝은성품이 합쳐진 것이다. 세 종류 에너지가 하단전에서 합쳐지면 푸른색의 빛무리가 맺힌다. 이 빛무리를 한물건이라 부른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㊹ 오온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다

오온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장 전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문장은 하나의 문제 같지만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이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하고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누구도 그 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분리하여 오온의 의미는 무엇이고,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참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은 기본적인 질문을 많이 하였다. 기본적인 사유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가르침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대승에서 수행의 과위를 한자어로 만들다 보니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승불교에서는 처음 얻어지는 과위를 수다원과라 지칭한다. 아마 〈금강경〉을 독송하다 보면 한 번이라도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수다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대답을 하지 못한다. 부처님은 수다원이라 지칭하지 않으시고 흐름에 든 님이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과 같아 배를 만들어 띄우기만 하면 그 흐름을 따라 큰 바다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사유인 것이다. 배는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못과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아교 등이 필요하듯, 기본적인 사유도 오온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기본적인 사유를 무시하면 밖의 대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밖의 문제로 인식하여 바깥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오온에 대한 기본적으로 사유한 수행자들은 밖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밖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오온에 대한 바른 사유를 통해 어떠한 해결 없이 고요해진다. 기본적인 사유가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기본적인 사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몸이 구성하고 있은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다. 만약 이것에 대해 관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맛지마니까야(전재성 역주)〉, '10. 새김의 토대에 대한 경'을 참조하기 바란다. 오랜 시간을 들여 성과 없이 수행하고 입으로 "나는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건물을 짓지 않는 이유는 건물을 세울 줄을 모르기 때문이지 진리를 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건물을 세울 줄 모르는 사람은 세우지 않는 것이 무봉탑인 줄 알겠지만, 그것은 무봉탑이 아니다. 건물을 세웠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만이 참으로 무봉탑이 되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이 이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본이 튼튼한 수행자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것이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을 알고 있으니 현상계가 아무리 현란하게 변하더라도 이런 이치를 벗어난 현상은 없으니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는 사물은 우리의 판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자. 그리고 진리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위치에 따라 그 사물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찰자에 의해 나타난 사물은 고정성을 가진 사물이지만 관찰자가 없는 사물은 고정성이 없는 사물인 것이다.

고정성이 없다는 말은 고유한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유한 성질이 없는 사물에 대해 단정적인 이름을 붙여 그것이라고 사용한다고 그 사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색이 즉 공이요"라고 말할 때 그 공의 의미는 고유한 성질이 없다는 뜻이고 고유한 성질이 없는 색을 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텅 비어 있는 공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였기 때문에 색즉시공은 어떻게든 이해한다고 하겠지만 공즉시색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다. 풀어보면 형태와 위치라는 고유한 성질이 없는 색은 우리의 눈으로 그 형태와 모양을 본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색의 본래 성질 자체가 공이고, 공의 성질 자체는 고유한 성질이 없는 색이므로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다. 그러므로 오온은 '있다'라는 개념도 아니고, '없다'라는 개념도 아닌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61호 | 17 | 전면광고

선업이 있으면 그 자체에 갖추어진 힘 때문에 좋은 업보를 받게 된다. 나라의 왕이 편들어 주는 힘이라 할지라도 업력에는 못 미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승장엄론》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60평, 외전각 3채
- 주변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35억
- 경기분당포교원
- 8층 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역세권, ev. 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 집기류 다 주고 갑니다. 그냥 오셔서 법회를 하시면 됩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조정 가능)
- 법사님 일반인 무속인 인연맺습니다.
- 사찰, 굿당 등 활용 가능 문의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가액 : 4억 5천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010-7710-8334

사찰(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소재
- 부지 : 약 50여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30평 (종무소1층)
- 가액 : 3억원(절충가능)
- 특징: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스님 건강상 때문에 모든집기 다 드립니다.

010-3190-8113

토 굴 안 내

- 위치 : 영주시 조망이 좋은 곳에 위치해있음
- 대지 : 82평
- 건물 2동(윗채, 아래채), 별채, 마당
- 시책사업 공사완공으로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고 주차장이 넓음
- (전세도 가능 전화문의)
- 가액 : 9천 5백만원

010-5538-5570

건 물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시랑로 118
- 4층 건물 (1층 33평 법당, 2층 24평 종교시설, 3층 20평 주택, 4층 15평 주택)
- CCTV 4대 설치
- 가액 : 4억원

010-9881-7363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연산동 황령산
- 가격
  - 전세 : 일백만원
  - 월세 : 십오만원
- 시설비 : 일천백만원

051-634-3366

사 찰 안 내

- 위치 : 동해시
- 여법한 목조건물(법당30평,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 창고, 주차장) 동해시와삼척 중간지점으로 포교 최적지임 / 인근에 휴양지 근접 (추암, 망상, 증산, 삼척해변)
- 원력과비젼을 가진분께 양도함
- 주지스님의 건강상 가액은 시세 이하로 협의합니다.
- 좋은 인연을 기대합니다

010-9279-4542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삼기면 석기길 익산시내에서 10분거리
- 토지 : 160평
- 건물 : 법당30평외 2동
- 동불보살님 3분과 탱화 및 살림 포함가능
- 가격 : 1억1천만원 (다른곳 소임문제로 급매매)

010-3676-4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2천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합포구 교방동
- 임대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10만원

밀양으로 확장 관련 현 가람 임대 놓습니다. 암 말기 환자 치료한 기운이 있는 곳입니다.

010-3132-9666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위치 : 통영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5000만원

010-9456-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 7m
- 많은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사찰 옆에 작은 폭포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 매매가 : 1억 1천만원 (비품대 미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 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 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61호 | 18 | 전면광고

너희는 여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화합하고 존경할 것이요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물과 기름처럼 겉돌지 말고 물과 젖처럼 서로 화합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반니원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전통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구합니다

60대 비구입니다.
남은여생, 수행 정진할
조용한 암자를 구합니다.

010-5929-3217

점 연구원

- 미래 현재 과거 점 보는 법
-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는 없고, 좋은 팔자는 만들 수 있다!
- 사주팔자 풀이 잘 안되는 분, 쉽게 풀이하는 법 전수
- 예) 명리 육임 육효
- 하늘, 땅, 나, 삼합 보는 법
- 준비물 없음
- 토화사 삼봉법사

010-3750-855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GNN 손도사

책50권 저술출간함
세계1등 운명상담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스님을 찾습니다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은 스님. 남은 여생 수행 정진하면서 보낼 스님.

- 나이 : 60~70대
- 위치 : 충남

010-3466-247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능엄사
- 주 지 : 법공 스님 (속명 : 유종군)
- 주 소 : 경북고령군 운수면 새구름길 37-2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대한불교 일승종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나를 닦는 백팔배(백팔대참회문)

The Sound of Life

생명의 소리 CD

특가 12,000원

'절이란 참으로 진지하게 나를 닦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극히 내안에 모시고 살림의 장을 확산해 나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1. 절을 하는 마음 낭송 (01:17)
2. 나를 닦는 108배 낭송과 음악 (37:39)
3. 명상음악 "영혼의 피리소리" (05:40)



연주 – 김영동 (대금, 단소, 훈)
삽입곡 –
대금독주곡(즉흥연주)
단소독주곡(즉흥연주)
영가1 – 자연의 소리
영가2 – 자연의 소리
수제천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⑳ 국화차

피부종독 · 감기 · 두통 · 불면 등에 효능

국화는 국화과 산국속에 속한 여러해살이풀이다. 꽃은 노란색으로 9~11월에 줄기와 가지 끝에 뭉쳐서 피고, 열매는 12월경에 달리는데 안에는 작은 종자가 많이 들어 있다.

꽃말은 '고상함', '밝은 마음'이고, 다른 이름은 국화, 들국화, 선감국, 황국화이며, 생약명은 감국(甘菊), 야국(野菊)이다. 산지는 일본, 대만, 중국과 우리나라 각지에 분포하고 있다.

조선 후기 이운해(李運海, 1701~?)가 차에 대해 간략히 기록한 〈부풍향차보(扶風鄕茶譜)〉에서는 7종류의 향기가 나는 차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풍을 맞았을 때(風)는 감국(甘菊)이나 창이자(蒼耳子)를 넣어 만든 감국차를 마시고"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용부위는 잎과 꽃이며, 차 또는 약용한다.

성분과 약성

꽃에는 아카세틴-7-람노글루코사이드(acacetin-7-rhamnoglucoside), 크라이산테민(chrysanthemin) 고미질, 알파투존(α-thujone), 정유, 비타민 A, 비타민 B1 등이 있고, 잎과 줄기에는 크라이산테민(chrysanthemin), 아데닌(adenine), 스타키드린(stachydrine), 콜린(choline) 등이 있다.

국화는 성질이 차고, 맛이 쓰고 매우며, 독이 없다. 열을 내리고 해독작용을 한다. 피부가 부어 오른 종창(腫脹)과 종독(腫毒)을 다스린다. 감기, 두통, 현기증을 치료하고 숙면을 유도한다. 머리의 어지러움과 붉은 눈을 치료하고, 피부와 터럭을 보호한다.

마음 · 기작용

국화는 폐(肺)에 좋은 태음인의 꽃차이다. 〈동무유고〉, '동무약성가'에서는 "국화는 맛이 달다. 열을 없애고 풍을 내보내며, 머리가 어지러운 것과 눈이 붉은 것을 치료한다. 눈물을 거두게 하는 데 특히 효과가 있다. 감국은 피부와 터럭을 열어준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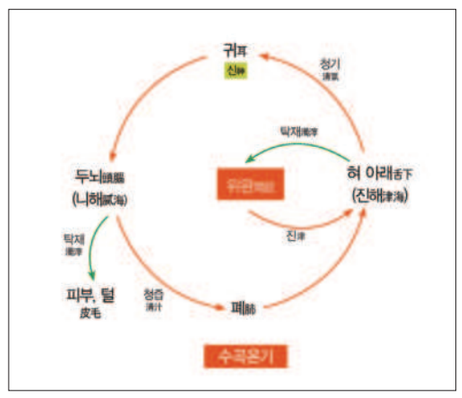
국화는 피부와 터럭을 열어 피부가 부어오른 종창과 종독을 다스리는데, 이는 상초에 흐르는 수곡온기의 니해(膩海)와 관계된다. 수곡온기는 위완(胃脘)에서 진(津)이 생성되어 혀 아래의 진해(津海)로 들어가고, 진해의 맑은 기운은 귀로 나아가서 신(神)이 되고, 신은 두뇌로 들어가 니해(膩海)가 되고, 니해의 맑은 즙은 폐가 빨아들이고, 니해의 탁재(濁滓)는 피부와 터럭을 보익한다. 국화는 두뇌에 있는 니해를 충만하게 하여 피부와 터럭을 보익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즉, 국화는 태음인이 가장 약한 피부나 머리털의 빠짐에 좋은 꽃차이다. 태음인은 수곡온기가 작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나 머리털이 잘 빠지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감국(甘菊)이나 천문동(天門冬), 용안육(龍眼肉)이 좋다고 한다.



또, 국화의 비타민A 성분은 충혈된 눈을 치료하고,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며, 이는 중상초에 흐르는 기운인 수곡열기의 고해(膏海)와 관계된다. 수곡열기에서 양젖가슴에 있는 고해의 맑은 기운이 눈으로 들어가 기(氣)가 되는데, 국화는 고해를 충만하게 하여 눈으로 맑은 기운이 잘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태음인은 간대폐소(肝大肺小)의 장국으로 수곡온기가 작은 사람이다. 국화는 태음인의 작은 장국인 폐당의 수곡온기를 잘 흐르게 하고, 특히 귀에 있는 신(神)을 충만하게 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현기증을 치료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사상의학에서는 4가지의 생기를 밝히고 있다. 상초의 수곡온기(폐, 위완), 중상초의 수곡열기(비장, 위), 중하초의 수곡량기(간, 소장), 하초의 수곡한기(신장, 대장)이다.



제다 및 음용

국화차 제다는 ①감국은 9~10월에 채취한다. ②감초와 대추 달인 물을 국화꽃 위에 분무한다. ③고온에서 1~2분간 증제 후 빠르게 성형해서 덖음과 식힘을 반복한다. ④고온에서 맛내기와 가향 덖음을 한다. ⑤저온에서 장시간 건조를 한 후 완성한다.

음용은 국화꽃차 3~4송이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1분 이내로 우린다.

국화차 블렌딩은 국화차와 진피차를 블렌딩한다. 진피차는 비장과 폐장을 도와 기(氣)를 원활하게 하여 한습(寒濕)을 조화롭게 한다. 국화차 블렌딩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폐 기운을 좋게 하여 감기를 예방하고, 두통을 없애주며, 또 위장을 편안하게 한다. 국화꽃차 2~3송이, 진피차 0.5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로 우린다.

사상인별 음용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국화차의 건향에서는 풀삭은 향과 단향이 났다. 우림한 차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 진하게 남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도 함께 전해진다. 처음에는 단맛으로 진하게 느껴지다가 씁쓸한 맛이 끝에 남는다.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도 오래 남았다. 우림한 차의 색은 연노란색으로 기분도 밝아지는 듯하였다.

다른 태음인이 마셨을 때, 찻잔에서 국화의 향, 맛이 느껴지면서 은은하게 다가왔다. 둘째 잔에서는 향이나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계속 마시고 싶지는 않았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우림한 차는 연한 노란색빛이 나며, 꽃이 찻잔 가득 피어난 모습에 기분도 좋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맛은 은은한 단맛이 나며 입 안 가득 향이 퍼져 향긋하며, 달콤한 맛이 오래 지속되었다. 심신이 편안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마신 후에도 부드러운 꽃 향이 잔잔하게 남고 상쾌해지는 느낌이었다.

차가운 성질의 국화차는 태음인의 열을 내려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꽃차로, 태음인과 열이 있는 소음인은 잘 맞는 것 같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건강 365
⑥ 다리 통증

체온 유지하며 운동해야 겨울철 다리통증 예방

바야흐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음이 몸으로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겨울에 관절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하는 분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왜 추우면 관절이 아픈 걸까?"라고 궁금해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관절의 통증은 부상에 의한 증상이거나 관절의 근본적인 건강 상태에 의한 증상인데, 추운 날씨는 특히 겨울철에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 관절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종류의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와 치료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Q. 추운 날씨에 다리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추운 날씨에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는 주로 고관절, 무릎, 발목 부위입니다. 이러한 통증은 정기적으로 달릴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추운 곳에서 운동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통증은 관절로의 혈류 제한이나 압력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운 날씨로 인해 다리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많습니다. 많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 다리 통증의 확실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왜 어떤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다리 통증을 겪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의 경우 추운 날씨에 관절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날씨에 따라 관절의 통증이 달라진다면 관절염이 있지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의 경우는 왜 추운 날씨와 연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대기압 또는 기압의 변화가 관절의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기압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관절 주위의 연조직이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아져 부풀어 오르고 관절에 압력을 가해 신경이 통증 신호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온 자체의 영향도 있습니다. 추운 날에 신체는 더 많은 열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심장, 폐, 소화 기관과 같은 신체 중앙부의 기관에 더 많은 혈액을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신체는 다리, 무릎, 팔, 어깨 및 기타 관절에 혈액을 덜 보냅니다. 이렇게 감소된 혈류는 결국 관절의 혈관을 수축시켜 해당 부위를 더 뻣뻣하고 차갑게 만들어 통증과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야외에서 활동적인 활동을 하거나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하는 동안 다리 관절에 압력을 가할 때 더욱 심해집니다.

세 번째로 날씨에 따라 사람의 감정이 영향을 받는 계절성 정서 장애가 통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슬픔의 감정이 통증을 더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추운 날씨의 다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특히 겨울에 야외에서 달릴 때 추운 날씨로 인한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5분 이상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준비운동은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체온을 높여 심혈관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운동 전 준비운동을 하면 관절 강직도 줄어들고 관절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달리는 경우 여러 겹의 옷을 입으세요. 최적의 조건에서는 가능한 한 적은 옷을 입고 달리는 것이 좋지만 겨울 달리기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겨울철 달리기로 인해 신체가 겪는 추위 충격에 대응하려면 특히 달리기를 시작할 때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팔다리를 덮어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혈액 흐름이 덜 필요하도록 하여 관절과 연조직이 좋은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몸이 따뜻해지면 필요에 따라 여러 겹의 옷 중 일부를 벗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킷을 허리에 두르거나 스카프를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갑자기 멈추지 마십시오. 달리다 잠시 쉬어야 할 때는 무릎 관절이 차가워지고 아프지 않도록 계속해서 걸어 주어야 합니다. 숨을 쉬면서 계속 움직이면 근육 긴장과 관절 강직을 방지하고 최적의 혈류를 유지하며 리듬과 동기를 유지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 후에 곧 약간의 스트레칭을 하여 장시간 운동 후 발생하는 근육 긴장을 줄이십시오. 짧은 산책이나 장거리 달리기 후 가벼운 조깅도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고 아픈 부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도 매우 추운 날에는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날에는 실내에서 운동하기 바랍니다. 눈 덮인 도로를 달리러 나가기보다는 런닝머신에 올라 20분간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 후에는 안정을 취하고, 가능하다면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온도와 관계없이 무릎 아래로 다리가 차가워지면 말초 동맥 질환과 같은 더 심각한 의학적 상태에 의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계절과 추운 계절 모두 다리가 계속 차갑다는 느낌이 들면 정형외과나 혈관외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한 쪽 다리에만 계속 증상이 느껴진다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상기 내용을 유념하여 활동적으로 건강한 관절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영경 거인병원 병원장

거인병원
Geo-in Hospital
051)996.7000
동래사직운동장앞
어깨·관절·척추, 정형외과 중점진료
세분화된 진료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광고심의필:230622-중-155173
현대불교신문과 협약에 따라
구독자 비급여 10% 할인 제공
민경범 마취통증의학과 | 김종열 신경외과 | 최홍준 신경외과 | 이승준 대표원장 정형외과 | 민영경 병원장 정형외과 | 윤동길 정형외과 | 박지혜 내과 | 염동헌 영상의학과
보호자·간병인 걱정없는 전병동&전병상
24시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마음책 다시 읽기 명상 100문 100답 ❺ 명상의 효과 下

▶ 한줄 요약
조절되지 않는 대상을 통제하려 마시고 조절되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심신 이완, 수면 도움 되지만
잠을 적게 잔다고 좋지는 않아
화날 때 자기 감정 알아차리고
분노 억제하는 문장 외다보면
스스로 마음 통제하는 데 도움

적게 자도 안 피곤할까요?

꾸준히 명상을 하면 집중력이 향상되어 편안하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불면증 환자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명상을 하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어 적은 수면으로도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면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에,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양의 수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가 고픈데 먹지 않으면 쓰러지고 말 듯, 자신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 수면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졸리고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끝내는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근본적으로 명상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면의 양과 질입니다. 지속적으로 명상을 해 나가면 똑같은 수면을 하더라도 깊이 잠이 들고,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깊은 명상을 체험한 사람들은 2시간 정도로도 충분할지 모르지만, 초보자들은 근본적으로 충분한 잠을 자고 명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적게 잔다고 꼭 명상의 대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명상을 실천해 가다보면, 어느덧 집중력이 높아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휴식을 취하게 되어 부족한 수면을 보충해 주는 역할도 하고, 이완된 상태기 때문에 피곤함도 덜 느끼고 에너지 소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명상으로 집중력이 생기면 망상과 근심, 걱정, 신체적 불편함 등이 가라앉으면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특별히 집중력을 키우는 명상을 통해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알아차린다든지, 호흡하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호흡할 때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이를 바로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내버려둔 채 숫자를 세는 데 집중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든, 숫자를 세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참기 억울할 때는?

화가 나서 못 견딜 때는 우선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명상을 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를 알아차리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기를 대여섯 차례 반복해 봅니다. 이후 가볍게 운동이나 산책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올라와서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때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명상을 통해 화나는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불안, 우울 같은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 뇌는 편도체와 우측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열정과 의욕에 차있을 때는 좌측 전전두피질이 활기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명상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명상을 하면 좌측 전전두엽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이나 우울감이 행복감으로 바뀐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분노를 치유하는 명상법의 첫 단계는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만, 화나게 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내가 화나고 있으며, 이 분노는 나의 몸이 떨리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며 얼굴이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곧 현재 일어나는 내 마음의 감각, 감정에 집중하여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분노가 흘러가도록 바라볼 수 있으면 이번에는 분노를 억제하는 말이나 문장을 찾아내어 그걸 반복해서 외웁니다. 화가 일어날 때 어떠한 질책이나 대꾸도 하지 말고 짧은 금언 · 주문 · 기도문 중 하나를 선택해 계속 중얼거립니다. 그러면 차츰 화난 상태에서 벗어나 평정을 찾게 되어 관대해지고 포용력이 넓어지게 됩니다.

사실 대상은 나의 의지대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욕을 하거나 말을 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 화만 더 커집니다. 그러니 조절되지 않는 대상을 통제하려 마시고 조절되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해소될까요?

과민성대장증후군은 뚜렷한 기질적 이상이 없는 만성적인 기능성 위장관 장애로서, 변의 빈도나 경도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는 복통이나 복부의 불편감이 주된 특징이며, 배변 활동에 의해 경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은 그 발생과 진행과정에 있어 정서적인 변화와 관련을 보이는 소화기 증상으로서 신경성 질환의 일종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과민성대장증후군과 성격적 특징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시도들이 있어왔고,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치료를 적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이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리치료가 정규적인 의학적 치료보다 효과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특히 블랜차드와 그린(1994)은 인지치료가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에게 나타나는 자기 · 세계 및 미래에 대한 왜곡된 해석, 자동적 인지를 변화시키는 치료 효과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위장관 증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장 기능과 자율신경계의 기능적 연관성을 치료적 근거로 하여 다양한 심리치료들에서 이완치료가 널리 응용되어 왔는데, 그 중 하나가 명상을 적용한 치료입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이완명상 프로그램이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중학생 12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호흡명상을 실시한 후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호흡명상을 실시한 후 복통, 복부민감, 변비 등과 같은 과민성대장증후군의 주요 증상들이 완화되는 치료적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호흡명상을 통해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잡념들을 바라봄으로써 심리적 이완감뿐 아니라 복통, 변비, 설사 등 주요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생활 중에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의 대상을 한정하는 명상이 보다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 예로 과민성대장증후군의 통증상황에서 호흡명상을 통해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주의 전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통증의 감소뿐 아니라 증상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증세가 나타날 때와 같이 자신이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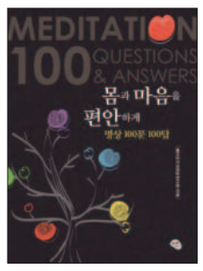
어떤 사람들은 금주와 금연 중 어떤 것이 힘드냐는 질문에 금연이 더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은 손쉽게 혼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연이나 금주나 모두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꼭 금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아래의 명상법을 꾸준히 따라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금연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암시명상을 합니다. 암시명상은 담배를 지금 끊고자 하거나, 끊은 지 얼마 안 되어 흡연 욕구가 아주 심할 때 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정말 피고 싶을 때 3~5분 정도 실시하면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우선, 평소 즐겨 피는 담배와 굵기가 비슷한 볼펜 또는 빨대를 물고 눈을 감은 채 담배를 필 때처럼 숨을 깊게 빨아들이고 깊게 내쉽니다. 이때 실제로 담배를 피고 있으며, 니코틴이 몸속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아울러 담배 필 때와 같은 감각, 맛, 연기가 날리는 모습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실시합니다. 금연한 후 1~2주에 걸쳐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앞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후에 실시하는 혐오명상입니다. 어느 정도 금연을 하고 있지만, 금연에 대한 의지가 점점 약해질 때 도움이 되는 명상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3~5분 정도 실시합니다. 먼저 담배를 필 때처럼 입으로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신 뒤, 담배연기를 내뿜듯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이때 자신이 담배를 피고 있으며, 니코틴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등도 함께 몸에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발암물질이 들어오면서 폐가 고통스러워하고 망가져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다음 단계는 호흡명상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흡연 욕구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담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날 수 있습니다. 보통 금연한 후 5~6주 정도 후에 해당합니다. 먼저 코로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신 뒤 코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들이쉬는 숨에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속의 맑은 공기가 자신의 폐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내쉬는 숨에 몸속의 니코틴과 발암물질 등의 유해물질이 말끔히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한번에 3~5분 정도 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에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아직 흡연욕구가 강하다면 앞의 단계를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바와 같이 암시명상-혐오명상-호흡명상의 3단계를 두 달 정도 실시한다면 금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강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금연의지이니 굳세게 마음먹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저 : 박성식(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교수) 외 12명 / 올리브 그린 펴냄〉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61 호 현대불교
2023년 11월 29일(음 10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한생각에 은산철벽을 뚫을 수 있고 전체 우주를 꿰어 들 수 있다

모든 일이 자기 탓?

질문 모든 일이 다 자기 탓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생에 지은 인연에 의해서 닥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는 요렇게 짤막짤막하게 한 토막씩 찰나찰나 넘어가니깐 그렇지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바로 일생, 칠십 평생 팔십 평생 넘어가는 이 때에 우리는 그 물에서 떴다가 그 물에 가라앉을 뿐입니다. 가라앉았다 뜨고 떴다가 가라앉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인생이 그런 거밖에는 안 됩니다. 떴다 가라앉고 떴다 가라앉고 하는 그런 동안에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어저께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오늘까지 울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비유해 보십시오. 내가 잘되겠다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안돼 버리고 망했을 때 그렇게 자기가 저질러 놨기 때문에, 엊그저께 저질러 놓은 일이 오늘에 닥치니까 막 울죠? 또는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는데 망했다고 남을 원망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업을 지어 놓고 자기가 받는 거죠. 그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진화를 해서 우리가 모습을 바꾼다고 하는 창조력은 우리가 금방, 요거를 이해를 해 보십시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듭디까? 어머니 만났을 때 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딸의 행동과 딸로서 말이 나갑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는 남편에 의해서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 만날 때하고 남편 만날 때하고 찰나에, 내 마음은 전체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그 행까지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활 불교로서 이끌어 가려니까 이렇게 내가 말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에 뛰어든 것입니다. 옛 선사들처럼 낚싯밥을 던져서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하고 뛰어들어서 같이 죽을 쑤든지 밥을 쑤든지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칠십 평생 팔십 평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머니 만날 때의 그 모습하고 남편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은 변화가 돼 가는 것입니다. 찰나여서 자기 자신들은 변한 거를 모르지만 시계 초침 하나 똑똑똑똑 가는 대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금방 엄청나게 변화가 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된 걸 모르고 갈 뿐입니다. 찰나찰나 나투고 가는 것이죠. 화해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만날 때에 말과 행과 마음이 동시에 융합이 돼서 무심으로 그냥 무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 자체와 칠십 평생이나 팔십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또다시 이 세상에 나는 것이 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칠십 평생, 팔십 평생, 백 살을 살다가 죽든지 애 적에 죽었든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인연 따라서 또 만났다 할지라도 그 순간, 어머니 만날 때의, 즉 말하자면 그 삼합이 동시에 움죽거려서 자기가 행을 하는 거, 남편 만날 때에 또다시 그것이 홀딱 바뀌어서 아내로서의 생각이 들고, 딸로서의 생각이 들거나 며느리로서의 생각이 드는 거, 며느리로 살다가 금방 아내로 살았어. 이것을 바로 윤회라고도 하고 인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축소해서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모르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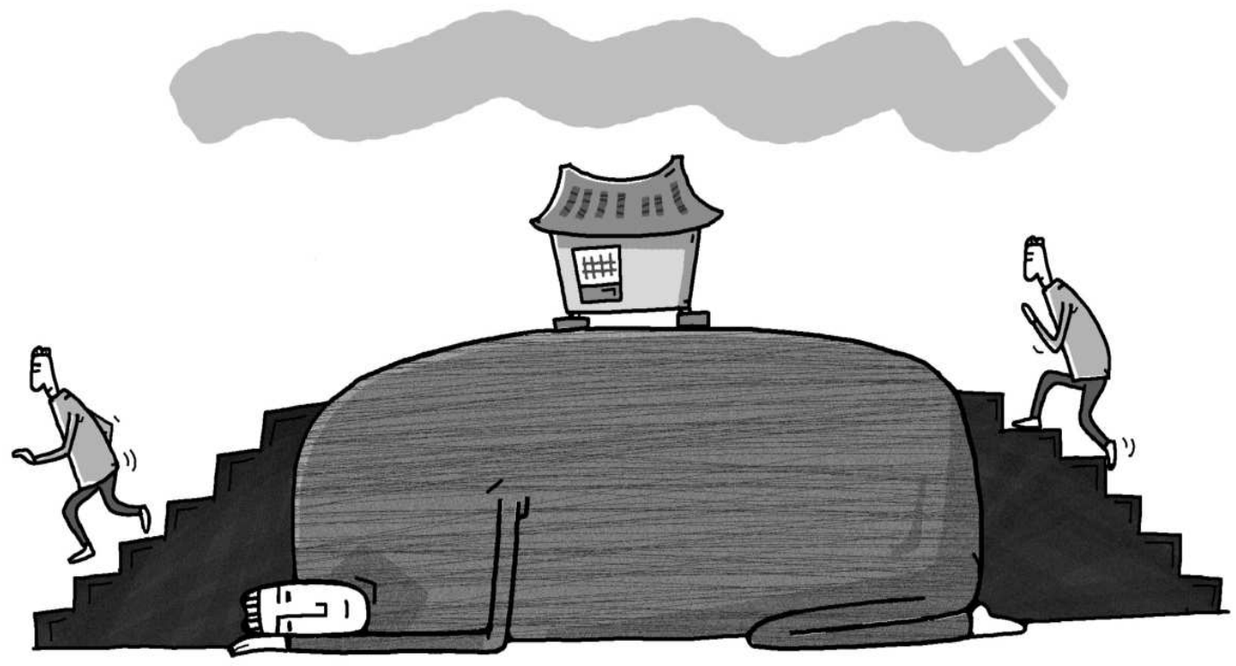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그런 게 존재하느냐고 하는데 진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은 자기가 받게 마련이니깐요. 지혜가 있다면 다 놓을 수 있고 굴릴 수 있고, 지혜가 없다면 바늘구멍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좁은 마음은 그걸 능가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이, 어머니 만날 때도 내가 만났다고 하고, 남편 만날 때도 내가 만났다고 합니다. 벌써 시계 초가 하나하나 갈 때마다 내가 변화된 거를 모르고 있을 뿐 벌써 딸이 됐다가 남의 집 며느리가 됐다가 금방 남의 집 남편이 된 그 사이가 찰나인데….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또 한 번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사는 걸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축소를 하면 그게 되고, 만약에 대의적으로 따진다면 죽고 또다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사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진화나 또는 모습의 진화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날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아까 얘기했듯 어머니 만날 때의 마음과 아버지 만날 때의 마음, 동생 만날 때의 마음이 이렇게 아주 묘하게 자유스럽게 무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깐 우리는 90%가 부처라고 합니다. 왜 90%가 부처인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벌써 부처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자기 부처를 우습게 생각하고 남의 부처만 부처인 줄 알고 위대한 것만 위대하게 보고 낮은 건 낮게 보고서 아상을 높이고 권세를 부리고 이러는 까닭에 우리들은 고가 많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그래서지요.

마음의 생동력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공해서 공심으로서 공생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때에 따라서 조그만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다양하게 능력을 쓸 때에 항상 우주 천하 삼천대천세계의 생명들의 능력은 바로 내가 한생각 낼 때에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와서 수많은 능력이 한데 한마음에 응시되니 한생각에 우주 천하가 들리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물건이 있고 여러 분과 같이 드는 물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독불장군으로서 그냥 '내가 했고, 내가 살고, 내가 모든 걸 줬고, 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 이 물건 이 색(色)이, 내 몸 육신이 나라고 산다면 그렇게 나라고 했으니 수많은 생명의 능력은 한꺼번에 한마음에 들어 주지 않습니다. 무량한 발전소, 즉 비유해서 자동적으로 돼 있는 자가발전소가 있다면 자유스럽게 남에게도 전기를 넣어 줄 수 있죠. 항상 들어오는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스럽게 스위치를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못 쓰게 되는 원인도 바로, 무량한 자가발전소를 모르고 전기가 들어온 것만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전기를 내가 자유스럽게 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가발전소가 바로 나라면 내가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널리 지혜 있게 써서 내 육신이 생기고부터 이 세상이 모두 공한 거를 알았고 나로부터 전체가 공한 거를 알았고 내가 이 세상에 난 것이 태초요, 내가 난 것이 바로 화두니까 그 화두로 인해서 이 세상이 있고 세상에 진리가 있고 세상의 진리를 내가 탐구하고 깨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제 놈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 그 자리에 다가 믿고 일임해 놓지 않는다면 천차만별로 된 부처님의 그 광대무변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헤아릴 줄 모른다면 부처님은 아마 알지도 못하고 맛도 못 보고 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아, 이게 공했으니까 내 주인공이 하는 거로구나. 내 육신과 더불어 같이 공했으니까 주인공이야. 즉 내가 주인공이지. 모두 내가 한 거 나 한테다 놔야지.' 하고서 모든 걸 놓을 때에 홀연히 스스로 단맛이든 쓴맛이든 다 합친 능력이 스스로서 나와서 자기가 그 생명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 22면으로 계속



자성을 찾으려고만 애를 쓰지 말고 좀 믿어 보세요

☞ 21면에서 계속

생로병사가 실감 납니다

질문 나이가 들어가니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문제가 실감 나게 다가옵니다. 내 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자식들도 내 맘대로 안 따라 주니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허무하게만 느껴집니다. 이제 뒤늦게 마음공부에 연이 닿아서 제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우리가 살림을 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일체는 나로부터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 삼합이 공존하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넓게 보면 전체가 돌아가니까 공식하고 있고, 공용하고 있고, 공체로서 모두가 같이 돌아가니까 이것을 보고 공했다 했고 주인공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모두 자기가 한 겁니다. 그러니 공한 내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거기에다 맡겨 놔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되풀이하느냐 하면 요즘 병 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때는 내가 '아이구, 내가 의사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고자 해서 여러분을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병뿐만 아니라 일체 만법을 그대로,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사가 스스로 되게끔 마음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움죽거리게 하는 그 장본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놔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나라고 세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짠 거 먹지 말고 싱거운 거 먹어라.'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럭해야 좋지 저럭해야 좋지' 하고 천차만별로 많은 거를 그저 닥치는 대로 다 받아들이니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 몸에 모여서 뭉쳐진 이 생명들은 가뜩이나 업식으로 만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좋은 환경의 마음을 내게 해 주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게 해 주고, 어떤 때는 몸을 아프게 만들죠. 그 중생들이 아프니까 이 부처도 아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마힐 거사는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가 병이 낫느니라."라고 하셨죠?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이 아픈 것이 바로 내가 아픈 증거입니다. 그러니 중생들을 안 아프게 해 주려면 여기에서 중생들이 달라는 대로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묘법의 생활을 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것도 알고, 어디가 아프면 아픈 것도 알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대로 알고,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게 신호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몸 안의 모든 것이 그렇게 달라는 대로 주면서, 짠 것을 달라면 짠 것을 주고, 때에 따라서는 기름진 거 달라면 기름진 걸 주고, 자기가 달라는 대로 주세요. 자기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자기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어리석습니다. 이 중생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서 건강하게 만듦으로써 바로 내가 말하듯이 이렇게 묘법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지도 말고, 올려 치켜세우지도 말고, 중도에 항상 놓으면서 중간에 놓으면서, 어지러운 걸 봐도 내 모습으로 보고, 아주 모르는 사람을 보더라도 '저것이 모를 때 내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본다면 원망도 안 하고 무시하지도 않게 돼요.

왜 집안에서도 화목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아이구, 저렇게….' 그냥 그러니까 미운 생각이 들고 말이 좋게 나가질 않고 얼굴부터 찌푸려지고 이러죠? 얼마나 총총걸음을 걷는다고,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가 얼마나 멀다고 그렇게들 야단들을 하고 싸우고 옹옹거리고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나로 인해서 부인이 있고, 부인은 나로 인해서 있는 거고, 나로 인해서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우릴 화목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을 좋게 할 수 있는 거는 거기밖에 없다' 하고 놓고 "여보! 이제 들어왔소." 하고 밝게 대하고, 만약 집에 있는 부인이 상을 찌푸리고 신경질을 내더라도 "여보! 어디서 뭐 속상한 일이 있었소?"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해 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늑하냐 이겁니다. 신경질을 내다가도 안 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신경질을 내는 걸 보면, 벌써 "으이그!" 이렇게 시작하면 "아유, 괜히 신경질이야." 이러면서 그때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을 화목하게 살아가며 어떻게 자식들에게도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먹는 대로 그 마음의 초점이 이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좋게 말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맡겨 놓으면 금방 돌아서서 마음이 착해지면서 "여보!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했어." 하고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육체, 말 그것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모두. 그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은 여기 안에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말로 남을 헐뜯을 일이 있더라도, 설사 사람을 죽이고 들어왔더라도 부부니까, 부부 아니더라도 그래요. "여보, 어쩌다가 그랬소? 여보! 그래도 너무 상심 말아요. 아이, 죽으면 죽지 뭐,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해 나가고 안에다 다 놓는다면 그 사람이 그냥 잘 이끌어지고 잘 돼요. 자식도 그래요. 나가서 나쁜 짓을 하든 나가서 노름을 하든,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건 내버려 두고 들어오면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겁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잘못 말하거나 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상전이에요.

어떤 스님네들이 셋이 가다가 지네가 이만한 게 가더라는 거예요. 지네 발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네더러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구! 저 지네 좀 봐. 저렇게 다리가 많은데도 걸리지 않고 가는 것 좀 봐." 하니까 지네가 딱 서 가지곤 가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걸려서 가질 못하니까 거기에서 고만 세 스님네들이 깨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걸어가다가도 말을 하면 거기에 걸려 가지고 아주 옴폐부득을 못 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보더라도 걸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잘못됐더라도 걸리지 말고 잘됐더라도 걸리지 마십시오. 잘못됐더라도 그게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순간 돌아가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 놔 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있는 보물 거기다 그냥 놔 버려요.

아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도 기가 막힌데 세세생생에 구르면서 윤회에 말려서 허덕거려야 옳겠습니까? 이 몸을 벗기 전에 바로 벗어나야죠. 여러분의 한생각이 모든 백지를 뚫을 수 있고, 한생각에 은산철벽을 뚫을 수 있으며 전체 우주를 꿰어 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 어디 가서 무엇을 보더라도 걸리지 마세요.
> 잘못됐더라도 걸리지 말고 잘됐더라도 걸리지 마세요.
> 잘못됐더라도 고정된 게 있는 게 아니고 순간 돌아가니까
> 겁내지 말고 그냥 놔 버리세요.

부처를 찾아 정진해 보았지만

질문 불교 공부에 입문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처를 찾아서 나름 정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잡히는 게 없어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잘못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요.

답변 여러분, 저 등 뒤의 부처님 잘 보시지 않아요? 부처라고 세우는 건 부처가 아니고 부처라고 세울 게 없는 게 부처입니다. 그러니 삼천대천세계에 꽉 찬 거예요, 부처가. 육조 스님이 한 물건도 없다고 했듯이 그걸 한번 확 뒤집어 보세요. 봄 동산에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소리와 같죠. 봄 동산에 꽃이 피어서 향기롭게 두루 하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와 같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부처님. 아주 준수하시고 참 멋지죠? 멋진 부처님이라고 세워 놓은 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기에 융합이 돼야 부처예요. 여러분이 융합되지 않고 불상만 동그마니 있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저 몸은 내 몸이요, 저 마음은 내 마음이니 둘이 아닌 거죠. 저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니 어찌…. 그래서 내 아픔도 둘이 아니요, 내 자리도 둘이 아니요,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님의 그 뜻은, 자성은 컴컴하다 밝다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자성이란 건. 그렇게 밝아요. 여러분이 밤중에 눈을 감고 한번 앉아 보세요. 부산 갔다 오셨으면 부산에 갔었던 곳을 다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거 아는 놈이 자성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믿고 생각을 좋게 해서 맡겨 놓으세요. 그런데 그저 그냥 안 된다, '아휴, 이거 또 안 될 꿈을 꿨어. 아이고, 이거 말이야, 가서 슬슬 둘러보니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안 되겠어.' 하고 탈망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가긍하게 말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부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부처님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성본래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본래 불 아닙니까?

그러니 새털 같은 날에 끝 간 데 없이 우리가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길 없는 길을 걸을 줄 알아야 하고, 발 없는 발로 디딜 줄 알아야 하고, 손 없는 손으로써 만 가지 칠보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여러분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성을 믿어라 이겁니다. 그 자성을 찾으려고만 애를 쓰지 말고 믿어요, 좀. 네? 찾기는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한테 자리하고 그냥 그냥 있는데. 좀 믿어 봐라 이겁니다, 불심지처럼 물러서지 말고. 믿는다면 거기다가 놓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믿는다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 몸뚱이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 소용돌이 속에 내가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버리겠다.' 이런 패기가 아주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죽으면 살아요. 죽고 사는 게 없는데 왜 살 수가 없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써 '자성불이란 바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믿으세요, 좀.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생각을 좋게 해라.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어딨나? '안 되게 한 것도 거기서 한 거고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한 건데 이번에는 되게 하겠지.' 되게 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깐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해 달라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니 더 잘 알고 있는 놈이, 자기가 지금 되고 싶어 하는 거를 자성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다시 돌아서 회전이 돼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되게 해 주시오.' 이럴 필요도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말로는 '난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이, 고것 좀 가졌으면….' 이러거든요. 허허허. '난 그렇지 않아.' 하면서도 '고거 잘생겼는데.' 요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성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고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자성이 알고 있죠.

그러니 '믿지 못하지' 하지 마시고 믿고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서, 죽을 꿈을 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어허, 죽는 것 사는 것이 따로 없는데 어찌 죽을 게 있노! 아, 좋은 일 생기겠구먼. 승진하겠구먼.' 용도에 따라서 딱 생각을 해 버리세요. 그냥 밀어 던지란 말입니다.

마음 하나 돌리면 모든 것이 그냥, 이 몸뚱이 속의 모든 것이 회전을 해 줄 텐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자성을 믿고 놓을 수 있고 생각을 잘해서 놓을 수 있다면, 회전이 돼서 50% 안 보이는 데서 50% 보이는 데로 나온다면 우리는 사람다웁고 흥겨웁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불교 아픈 역사는 왜 멈추지 않나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광화문광장 역사물길 연표 오류
불과 1년 전 사건 다시 떠올라
항상 부당한 대우 받아온 불교
불교 미래 위해 넘어가선 안 돼

무제 폐불정책에 맞섰던 스님들
폐불 정책 속에서 사찰 구해내
백곡 처능 '간폐석교소'도 귀감
종교편향에 한국불교만 멍든다

작년, 광화문광장의 역사 기록에 불교 승려는 '보우처벌'이라고 새기고, 천주교 신부는 '김대건 신부 순교'라 새겨 놓아 한숨 짓게 만들었다. 올해도 한(恨)의 한숨은 가중되었다. 근자에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고위인사 임명을 앞두고, 불교계 인사를 배제한 종교편향이라며 성명서를 내었다. 솔직히 필자는 이런 성명에 크게 놀라지 않는다. 늘상 불교는 권력으로부터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필자는 '그러든 말든 나만 잘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니 절대 허투루 볼 수 없다.

불교사에서 고려불교는 선교일치가 주된 이슈였다. 수행과 교리 측면을 결합해 어떻게 불교 사상을 발전시키느냐(?)였다.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오면, 입장이 다르다. 즉 조선의 승려들은 유불도일치를 주장했다. 조선이 건국될 때, 성리학을 기반으로 나라가 세워지면서 불교는 찬밥 신세였다. 나라를 좀먹는 폐불론이 제기되면서 구유물의 잔반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다보니 조선의 승려들은 불교가 유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우리 좀 좋게 봐 달라'고 한 셈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중국사에서 승려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북주의 무제(557~581 재위)가 폐불정책을 실시했다. 이 폐불은 큰 법난 가운데 하나다. 이때, 정영사 혜원(523~592)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무제에게 충고했다. 혜원은 승조(374~414)의 제자로서 〈기신론〉의 주석서를 쓴 학승이며 선사다. 당시 무제에게 향변하는 승려가 없었는데, 혜원만 무제에게 당당하게 맞섰던 것이다. 당시 승통(僧統)이었던 담연 법사는 혜원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다.

"혜원 스님의 용기는 참다운 호법보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바른 도리는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이 한 목숨,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절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걱정할 것 없습니다."

또 송나라 진종(998~1022 재위)이 태평흥국사(太平興國寺)를 폐하고, 그 사찰을 창고로 만들 예정이었다. 흥국사에 조서가 전달되는 날, 한 스님이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온몸으로 항거했다. 황제는 신하에게 칼을 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사찰을 폐하는 날, 그 승려가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목을 베어라. 그런데 그 스님이 이 칼을 보고 겁나서 떨거든 목을 베고,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거든 용서해 주어라."

신하가 황제의 명대로 스님에게 칼을 들이댔더니, 스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목을 길게 내밀며 말했다.

"불법을 위해 죽는다면, 칼날을 핥으라고 해도 달게 받겠다."

진종이 이 말을 듣고, 스님의 용기와 기백에 감탄해 사찰을 폐하지 않았다〈인천보감〉. 우리나라에도 이런 승려가 있었다. 조선 중기, 백곡 처능(1617~1680)이다. 18대왕 현종이 폐불 정책을 실시했는데, 비구니 출가를 금하고, 이미 비구니가 된 사람은 환속할 것을 권하거나 명령했다. 또한 문정왕후 내원당으로 5천 비구니를 수용했던 자수원(慈壽院)·인수원(人壽院)을 철폐하고, 선종 사찰 봉은사와 교종 사찰 봉선사까지도 폐하여 승려를 환속시키고, 폐쇄 조치를 취했다. 선사는 '간폐석교소(諫廢釋敎疏)'라는 8천여 자에 이르는 조선시대 가장 긴 장문의 상소문을 올려 부당함을 주장했다.

중국 불교사에 네 차례 법난이 있었지만, 2~3년 단기간이다. 조선 500년은 불교의 씨를 말린 긴긴 폐불이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10.27법난이 일어난 것이고, 근자에까지 크고 작은 종교 편향으로 한국불교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 있다. 어떻게 타개책을 만들어야 할까? 안타까운 현실에 글로나마 울분을 달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웃음으로 치유하자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해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쁜 일상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가다 보면 건강에 좋다는 운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웃는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니 너무 시시하게 들리나요? 예부터 웃음이 보약, 웃음이 명약이라는 말도 있지요. 웃음이 사라지지 않고 얼굴에 언제나 미소가 가득한 사람은 남들보다 건강하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10분 정도 크게 깔깔거리고 웃고 나면 두 시간 동안은 고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웃음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웃을 수 있는 여유도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에게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은 정신과 몸도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여자 코미디언 샌드라는 10년 전에 관절염의 일종인 루퍼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통이 심한 날을 달력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코미디언 공연을 하던 날은 달력에 그 표시가 없었습니다. 바로 웃음을 남에게 전해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고통을 느낄 사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웃음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과의 대화에도 항상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용서보다 비판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여 남으로부터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으로 급기야 무너지고 맙니다.

웃음으로 마음속 긴장과 근심을 털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의 자세를 지니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폴 에그만 교수는 웃을 때는 눈자위 주위를 싸고 있는 안육근과 광대뼈에서 입술의 가장자리를 이어주는 내협골근을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 근육은 뇌에서 즐거움의 감정을 지배하는 부분을 자극한다고 했습니다. 웃음이 치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웃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지요. 웃음은 그 자체만으로 즐겁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시 즐거운 감정을 유발시켜 항상 쾌활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尹정부, '출판선교'까지 지원하려 하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 11월 22일 발표한 '2023 세종도서 교양·학술 부문 지원사업 추천 결과'는 충격적이다. 세종도서 교양 부문 불교 관련 도서는 5종(종교4·예술1)이었고, 학술 부문은 8종(철학1·종교4·기술과학1·예술2)이 선정됐다. 하지만 교양 부문 종교 분과 37종 중 30종이 기독교 도서였고, 학술 부문 종교 분과 23종 중 13종이 기독교 학술서였다. 각각 4종만이 선정된 불교 도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교양·학술 부문 추천위원의 기독교 편중도 심각한 수준이다. 교양 부문 추천위원 212명 중 불교 인사는 2명인데 반해, 기독교 위원은 목사, 신학대학 교수 등 7명에 이른다. 학술 부문 추천위원 80명 중에는 2명이 기독교 인사이지만, 불교 관련 위원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출판진흥원 측은 "출판 종수 비례해 선정해 나온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해명 내용은 '국민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양서 출판 의욕을 진작시키겠다'는 세종도서의 사업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부문별 출판 종수를 비례해 도서가 선정될 경우 종교출판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큰 지분을 가진 기독교 출판계만이 세종도서를 독식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출판선교'를 지원하는 행위와 진배없다.

세종도서에 선정되는 불교 도서는 감소 추세다. 2019년 22종, 2020년에는 21종, 2021년에는 19종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13종으로 유독 줄었다. 양서로 꼽힐 불교계 출판 도서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오며 줄었을 리가 없다. 도리어 출판진흥원 측에 묻고 싶다. 선정 기준은 무엇이길래 기독교 창조론을 소개하는 책이나 미국의 교회 사역 사례, 선교사 이야기가 교양도서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전법 결실엔 교구본사 역할 크다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에서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대학생 포교에 좀처럼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 불교동아리가 없는 대학만 6곳인데다, 이를 경기북부 유일의 교구본사인 봉선사가 혼자서 책임지기엔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봉선사는 청년·대학생 전법이 불교의 미래라는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경동대 불교학생회 창립을 이끌었다. 상월청년회도 5기가 입재하면서 꾸준히 회원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봉선사 주지로 취임한 호산 스님의 원력과 이에 공감한 사부대중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학생 전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월결사의 목표에 따라 한국불교는 교구본사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봉은사에서 열린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첫 워크숍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18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힘을 보태면서 전법의 기틀을 다졌다. 벌써 대구경북엔 17개의 불교학생회가 탄생했다. 봉선사가 경기북부 6개 대학과 소통하고, 경기남부에선 용주사가 4개 대학을 맡아 한층 더 대학생 전법 열기가 높아졌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교구본사중심제를 표방한다. 중앙종무기관인 총무원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각 지역 교구본사에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그에 따라 교육과 포교에 나선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신호탄은 이미 쏘아졌고, 상월결사 정신을 따라 대학생 전법을 위해 사실상 모든 교구본사가 마음을 내었듯 한걸음씩 나아갈 때다. 경기북부처럼 전국 곳곳에서 대학생 전법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편집인 : 박재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 사이즈 : 233~287mm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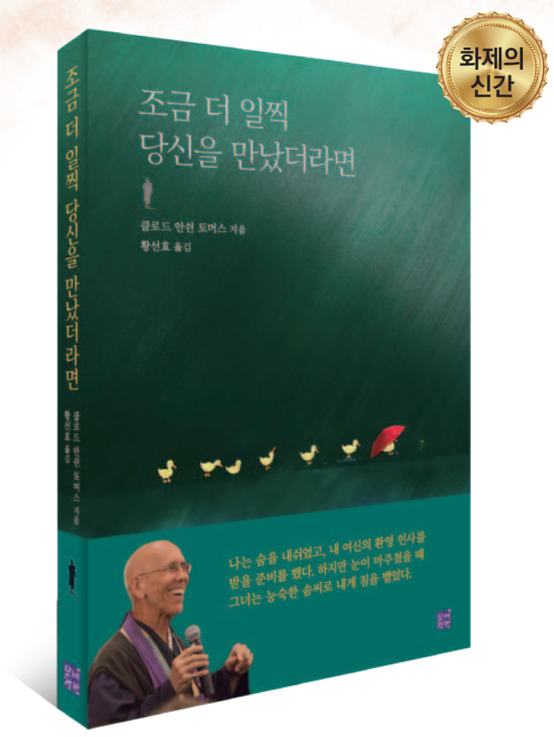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